



경주국립공원 해설 자료집



경주국립공원 해설 자료집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DYONGJU NATIONAL PARK OFFICE

목 차

남산지구

1. 포석정	1
2. 다시 찾은 얼굴 속에 비밀을 간직한 부처님	6
3. 화강암에 부드러운 부처의 미소를 새긴 신라인	11
4.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15
5. 자리를 떠난 문화재	20
6. 쉬멍 걸으멍 포석정으로	23
7. 가을, 경주 남산의 칠불암에 취하다.	39
8. 숲 속의 가수 개구리	52

토함산지구

1.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무장사지	56
2. 토함산이 품어 안은 세계유산 석굴암	59
3.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64
4. 숨 쉬는 토함숲 길	68
5.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72
6. 왕의 길, 나의 길	82

시내권

1. 대릉원 (발굴-허가 받은 도굴)	94
2. 오릉 따라 흐르는 역사 이야기	98
3. 운치 있는 왕릉에서의 힐링	103
4. 동궁과 월지를 통해 신라 옛보기	108
5. 신라 왕릉 투어	113
6. 벚꽃 엔딩	120
7. 경주의 별, 첨성대	124
8. 신라의 별을 따라서	128
9. 천년의 숲으로 떠나는 경주국립공원 여행	139

대표 프로그램

1. 남산의 꽃, 나무, 동물 이야기	156
2.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190

남산지구

1. 포석정
2. 다시 찾은 얼굴 속에 비밀을 간직한 부처님
3. 화강암에 부드러운 부처의 미소를 새긴 신라인
4.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5. 자리를 떠난 문화재
6. 쉬멍 걸으멍 포석정으로
7. 가을, 경주남산의 칠불암에 취하다.
8. 숲 속의 가수 개구리



포석정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고 유상곡수 이해하기
해설주제	포석정 이해하기
해설소재	포석정, 유상곡수연
운영장소	포석정지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탐방객(청소년~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경주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포석정지	1
주제별 해설	포석정이름풀이	포석정이라 이름 붙여진 유래	사진자료		1
	역사기록	포석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			1
	유상곡수연	유상곡수연	-		1
	포석정의 구조	포석정의 구조 회돌이 현상			1
	재연행사모습	유상곡수연 재연행사 모습			사진자료
	물은 어디에서?	유상곡수연을 하기 위해 물은 어디에서 끌어왔을까	-		1
	새로운 견해	비운의 장소로 알려진 포석정 그리고 새로운 의견			2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		1

해설주제	상세내용
<p>도입부</p>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p> <p>오늘 포석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경주국립공원은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입니다. 토함산, 남산, 대본, 소금강, 화랑, 서악, 구미산, 단석산 등 총 8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설할 주제는 포석정 이해하기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고 유상곡수연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포석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실 것은 이곳 남산입니다. 남산은 예로부터 산신이 산다고 여겨 신라인으로부터 신성시되어온 산이며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이 근처에 있고 탑과 불상, 그리고 절터가 곳곳에 있어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p> <p>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이 귀족 불교의 상징이라 한다면, 남산은 민간신앙과 서민 불교가 어우러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석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을까요?</p>
<p>포석정이라 이름 붙여진 유래</p>	<p>먼저 포석정이라 이름 붙여진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양을 한 번 살펴볼까요? 이 모습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어떤 모양을 닮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모양을 보고 전복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책에도 보면 전복을 형상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포’, ‘돌 석’자를 써서 ‘포석정’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포석정은 정자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 주변을 보면 남아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만 남아 있기 때문에 흔적 지자를 써서 ‘포석정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p>
<p>포석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p>	<p>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p> <p>‘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근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국유사에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 일어났습니다. 신하들과 연회를 즐기러 포석정에 왔는데 남산의 상심이란 신이 내려와 춤을 추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춤을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어무상심무’라고 불러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화랑세기’라는 필사본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석정을 ‘포석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혹시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셨나요?</p>

	<p>신라의 화랑들이 나옵니다. 그 중 문노라는 화랑이 있었죠. 문노가 이곳 포석사에서 길레를 올렸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p>
<p>유상곡수연</p>	<p>그럼 왜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이곳이 무엇을 하던 곳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술 마시며 놀던 곳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바로 ‘유상곡수연’입니다. 유상곡수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흐르는 굽이도는 물에 술잔을 띄워 놓고 시를 짓거나 연회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유상곡수연이라는 것은 중국의 명필가인 왕희지라는 사람이 난정이라는 곳에서 문인 41명을 모아놓고 시회를 즐겼던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유상곡수터 모습이고요. 이것은 일본의 유상곡수터 모습입니다.(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자연석 그대로를 이용해서 수로의 폭이나 규모가 포석정보다 훨씬 큼니다. 자연미에 치중하다 보니 술잔이 바위나 돌등 장애물에 걸리는 단점도 있답니다.</p>
<p>포석정의 구조 회돌이 현상</p>	<p>포석정은 63개의 곡선의 돌들을 조립하여 만들었는데 연결부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마치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느껴질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양에 또 다른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12군데의 굴곡이 있는 곳에서 잔이 맴돌거나 멈추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회돌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계곡에 가보시면 큰 바위틈을 따라 흐르는 물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곡수거의 길이가 22m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잔을 띄우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길이죠. 하지만 회돌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 한 수를 지을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잔의 모양, 술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현재 이러한 모양으로 모형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재연하기가 힘들다고 해요.</p>
	<p>유상곡수연을 즐기던 곳이 신라 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창덕궁 내에 ‘옥류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p>

<p>유상곡수연 재연행사 모습</p>	<p>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옥류천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유상곡수연의 재연행사도 열리기도 하는데 일본의 유상곡수연 재연행사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여야하기 때문에 옆에 긴 막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바로 걸리는 잔을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재연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포석정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포석정의 모양을 본뜬 조형물에서 한 모습이고요, 또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p>
<p>유상곡수연을 하기 위해 물은 어디에서 끌어왔을까</p>	<p>지금까지 유상곡수연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유상곡수연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물이죠!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에서 끌어왔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니 물이 흐를 만한 곳이 없는데 말이죠. 포석정 뒤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배상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못인데요. 이곳의 물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수구 앞에는 돌로 만든 거북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거북이의 꼬리를 통해 들어와서 입으로 토해내는 형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조선 시대 경주에 부임한 사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지 자신의 조상님 묘에 비석받침대로 쓰겠다고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잘 보존 되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셨다면 남아 있는 문화재를 볼 때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p>
<p>비운의 장소로 알려진 포석정 그리고 새로운 의견</p>	<p>포석정은 비운의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제55대 경애왕이 견훤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 때문인데요. 경주 남산을 알고 포석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이곳을 ‘연회를 즐겼던 것이 아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러 왔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애왕이 이 포석정을 찾았을 땐 바로 음력 11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력 11월이면 바로 양력으로 12월 1월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과연 유상곡수연을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화랑세기 필사본에 포석정을</p>

	<p>포석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곳이 사당이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고, 1999년 이 일대를 발굴했는데 포석이라고 적힌 기와와 제사에 관련된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주변에 어떠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도 제를 지냈던 사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상곡수연이라는 것도 제사의 한 행사인데요. 계육 또는 계사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기 전 몸을 깨끗이 하는 행사인데 이것 다음으로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제사를 지낸 후 음복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포석정 주변에서 계육장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제사를 지낸 사당이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p>
<p>마무리</p>	<p>자. 오늘 우리가 함께 포석정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말한 포석정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죠?</p> <p>네.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던 유상곡수연을 즐겼던 장소였고, 두 번째는 경애왕이 놀러 왔던 곳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곳으로 포석정을 단순히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즐겼던 곳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아주 신성한 장소이지 않았을까요?</p> <p>역사의 기록은 평면적으로 전해 내려왔지만 입체적으로는 경애왕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장소가 아니었는지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시각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문화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현재 역사도 미래세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포석정 해설에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다시 찾은 얼굴 속에 비밀을 간직한 부처님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아름다운 자연 속에 훼손된 문화재의 안타까움과 복원의 필요성,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문화재를 생각해 본다.
해설주제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으로 본 불상의 훼손과 복원의 필요성
해설소재	남산의 훼손된 문화재와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의 과거, 현재 모습과 반출 문화재
운영장소	삼릉~ 삼릉곡 석조여래좌상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소개 및 인사 나누기	-	안내지도 앞	0.5
	약속	남산은 어떤 곳일까? 삼릉곡 석조여래좌상 탐방 시 주의사항			0.5
주제별 해설	불상 훼손 및 복원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의 과거와 현재 모습 현재 불상의 복원 에피소드	사진자료		1
주제 심화	남산 문화재의 훼손	남산의 아픔 남산에 있던 불상 훼손 사례	사진자료	삼릉곡 석조여래좌상	1
	삼릉곡 석조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의 과거, 현재 모습 불상의 구조와 대좌 비교해 보기 석조여래좌상 주변의 문화재 이곳에 불상을 조성하게 된 이유	사진자료		5
정리	문화재 보존의 방법과 의미	문화재 복원의 의미와 필요성	-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및 정리	평가지 (설문지)		1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p>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경주 남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다행히 날씨가 청명하니 탐방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p>
남산소개	<p>경주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경주국립공원입니다. 보셨나요?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이 바로 경주국립공원 남산입니다. 남산은 신라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어 남산입니다.</p> <p>동서 4km, 남북 8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자라가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엮드린 형상입니다. 해발 468m 금오봉, 494m 고위봉 이 두 봉오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전설과 불교 유적이 자연과 조화롭게 있는 곳, 산 자체가 절이고 신앙인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남산은 1968년에 국내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남산지구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막연히 온 이 ‘남산’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p> <p>제가 아는 분 중에 “남산에 아무것도 없다. 오지 마라” 하는 분과 고유섭 선생님은 “한국불교의 원류를 알고 싶으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 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말이 맞을까요? 또 남산에 있는 문화재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으며, 그 자리를 떠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증을 안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삼릉을 지나 오늘의 목적지인 남산 최고의 비밀을 간직한 미남 부처님이신 석조여래좌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p>
남산 문화재의 훼손	<p>상쾌한 솔향이 느껴지시나요?</p> <p>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삼릉 소나무 숲길입니다. 국립공원 탐방 하기 좋은 명소, 걷기 좋은 곳 5곳 안에 든 곳입니다.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정말 멋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혼자 걸어도 너무나 낭만적인 곳입니다. 저 길을 돌아가면 무엇이 나올까 기대감마저 드는 길입니다.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한번 와본 사람이든 남산에 들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문화재의 파괴, 훼손된 모습입니다. 남산의 아픔입니다. 불상 대부분이 머리가 없거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불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화재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누가 그랬을까...’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p>

	<p>종교적, 사상적, 천재지변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랬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훼손된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p> <p>그래서 경주국립공원에서는 계곡이나 산기슭에 있는 석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석재 유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p>
<p>석조여래좌상</p>	<p>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너무나 잘생긴 미남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삼릉계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66호)’입니다. 지금은 남산에서 제일 미남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p> <p>1917년만 해도 불상의 머리는 떨어져 얼굴이 깨어지고, 광배는 뒤로 넘어져 있던 것을 1923년 일본인 학자들이 머리를 올리고 광배를 세웠습니다. 불심이 있는 분이 부처님의 얼굴이 깨어진 것이 안타까워 시멘트로 발라둡니다. 남산에서 가장 못생긴 부처님이었어요. 그 후 1963년 광배를 넘어뜨려 산산조각 내어 버려둔 것을 2008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얼굴 갖기에도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p> <p>복원 시 시멘트를 제거하고 이 부처님의 그 시대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석고상에 붙여보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모습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 했습니다.</p> <p>역시 미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완전 젊은 오빠로 변신했습니다. 불상을 살펴보면 부처님 몸에서 나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 광배인데 광배가 유난히 크고 화염문 불꽃이 아주 힘에 넘치게 피어납니다. 이런 광배는 남산뿐만 아니라 전 신라 시대 불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가슴은 볼록하니 탄력이 넘치고, 허리는 잘록하고 아주 육감적입니다. 부처님이 앉는 의자를 대좌라 하는데 연꽃이 있어 연화대좌라 합니다. 대좌는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으로 되어 있으며, 상대석에는 연잎이 위로 보고 있는 양련이 아주 화려하게 표현 되어있습니다.</p> <p>중대석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안상’이란 귀인들이 앉는 평상을 말하는 것이니 중대석 위는 절대로 존엄한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대석입니다. 상대석에 양련이 있으면 하대석에는 연잎이 땅을 보고 있는 복련이 있어야 하는데</p>

	<p>없습니다. 신라 문화재를 보면 신라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거나 대충해 버립니다.</p> <p>그렇다면 하대석은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p> <p>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대석은 땅속에 묻혀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상이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건물은 있었을까요? 건물이 있으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겠죠? 발굴 당시 기와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아 불상은 노천불로 보입니다. 건물은 부처님 밑 동쪽과 남쪽에 2개의 건물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홀로 이렇게 계시지만 조성 당시에는 부처님 앞에는 탑이 있었고, 뒤쪽 산기슭에는 약사불이 있었습니다.</p> <p>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탑은 이곳을 떠나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있고, 약사불은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를 한다는 이유로 이곳을 떠나 경북궁 마당에 전시되었다가 현재는 중앙박물관에 계십니다. 아마 부처님은 떠나버린 탑과 약사불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더욱 빛나는데 말입니다.</p> <p>이곳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바위에서 탑이 솟아오르고 바위가 주욱~ 솟아 올라가면서 불상이 솟아오르는 근엄한 하나의 조각상이 아닌 같이 숨 쉬고 느낄 수 있는 부처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신라인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p>
<p>문화재 보존의 의미</p>	<p>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원하면서 축대를 쌓는 바람에 솟아오르는 부처님보다는 그 자리에 갇혀있는 부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그것을 보존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존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조성당시 이 문화재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화재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비록 훼손된 문화재지만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p>

<p>마무리 인사</p>	<p>지금까지 남산의 훼손된 문화재와 복원된 문화재, 자리를 떠난 문화재,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생각해보고 동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산에 있는 문화재를 현장에서 다 보면 좋겠지만 산에 오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릉 탐방지원센터에서 VR로 가상체험과 영상으로도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역사, 자연에 끊임없는 관심과 경주국립공원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	---

화강암에 부드러운 부처의 미소를 새긴 신라인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신라의 역사가 담긴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 공존하는 자연과 역사의 소중함
해설주제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소개와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해설소재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운영장소	남산 입구 안내지도 앞~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인사 및 경주국립공원 소개	-	안내지도 앞	2
	약속	국립공원 탐방 시 주의사항			
주제별 해설	신라의 역사를 함께 한 경주남산	관음보살상의 모습 신라인에게 남산의 의미 남산의 지형 특징 및 화강암	사진자료	마애관음 보살상 앞	4
주제 심화	마애불에 새겨진 신라인	토르 지형과 마애불 불교 중의 관음보살에 대한 설명	사진자료		3
정리	자연과 문화공존의 공간을 만들어진 신라인	문화재와 자연경관의 가치 보존의 중요성	사진자료		1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및 정리	평가지 (설문지)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p>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p> <p>大家好! 欢迎大家来到庆州国立公园的南山(중국어로 인사)</p> <p>어! 뭐라고 했어요?</p> <p>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어보다 더 잘하는 것은 중국어입니다.</p> <p>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현재 경주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남산 삼릉 계곡에 있는 마애관음보살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p> <p>그곳에서 ‘단단한 화강암에 부드러운 부처의 미소를 새겨진 신라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남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멋진 인생 사진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경주국립공원 소개	<p>‘그곳에 가면 신라가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992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수도는 바로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신라 천 년의 고도’라고도 부릅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보전해야 할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입니다.</p>
안전 약속	<p>여러분이 국립공원에 오셔서 자연보호 다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안전한 탐방입니다. 무리한 산행이나 음주 후 산행 그리고 탐방로를 이탈하는 산행은 하지 않기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안전한 탐방을 약속하시고 지금부터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p>
부처의 미소를 새긴 신라인	<p>저 높이 솟아오른 돌기둥 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보이시나요?</p> <p>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의 작품이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마애관음보살상입니다.</p> <p>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요? 왜 그렇게 보이나요?</p> <p>자세히 보면 관음보살의 입술이 붉은 빛이 도는 듯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인공으로 칠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암석의 붉은색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가요? 인공? 자연?</p> <p>이런 의문은 이 불상을 더 신비롭게 만들었고 신라인은 마치 이 바위에 숨겨진 부처님을 붉은 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찾아낸 것 같지 않나요? 남산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어 ‘미스 신라’라는</p>

	<p>애칭도 있습니다. 키 154cm 정도 단아한 모습에 머리에는 아미타불이 새겨져 있는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잘 표현하였습니다.</p> <p>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정병(淨瓶)을 들고 있습니다. 불상 뒤로 기둥 모양의 바위가 광배(光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머리와 어깨는 돌을새김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옷 주름과 함께 바위에 묻혀있는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입니다.</p>
<p>신라의 역사를 함께한 경주남산</p>	<p>신라인은 왜 절벽마다 부처님을 새겼을까요? 남산은 신라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산은 신라인에게 단순히 산이 아니라 서라벌을 지켜주는 신이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신라인은 산악신앙과 연관된 불교문화가 남산 곳곳의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여 오늘날의 남산 전체가 노천박물관이 되었습니다.</p> <p>남산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돌산입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단단한 암석입니다. 신라인은 이 단단한 화강암에서 부드러운 부처의 미소를 새겼습니다. 남산 뿐만 아니라 신라인은 화강암을 이용해서 불교예술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p>
<p>토르지형과 마애불</p>	<p>이곳 주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원래 돌기둥 형태로 된 바윗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바위를 지형학의 용어로 토르지형이라고 합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토르(tor)와 같은 이름인데요. 특히 암석 중에서 수직, 수평 절리가 가장 잘 발달하는 화강암에 이런 지형이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한 덩어리이던 화강암이 냉각, 팽창 하면서 표면에 절리(갈라진 틈)가 생기고 그 모양은 가나 초콜릿 모양처럼 수직, 수평 방향의 절리로 인해 블록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 작용으로 모서리 부분이 깎이고 씻겨 내려가면서 결국 둥근 핵석(核石)만 높은 곳에 남게 됩니다.</p> <p>이것이 오랜 세월 준비된 자연산 명품 석재입니다. 신라인은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여 마애불상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애불은 갈 마(磨), 벼랑 애(崖) 자를 써서 절벽에 새겨놓은 불상을 뜻합니다.</p>

<p>불교에서의 관음보살</p>	<p>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어떤 분일까요?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인도하는 보살입니다. 정성으로 그 이름 부르면서 구원을 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 곧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다고 합니다. 중생의 모든 것을 듣고, 보며 보살피는 의미를 1,000개 손과 1,000개의 눈으로 형상화하여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p>
<p>문화재와 자연경관의 소중함</p>	<p>이 관음보살상 보는 방향은 예전에는 강정산 기슭으로 흐르는 기린내가 보였답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사라지려 할 때 노을이 흘러드는 강물에 반사되어 관음보살 얼굴에 비추니 보살의 얼굴은 활기에 찹니다. 불상이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은 석양 해질 무렵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빛과 장소를 잘 이용하여 단단한 화강암에서 미소를 새겨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 여기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p>
<p>마무리</p>	<p>바위 벼랑과 산기슭에서 ‘관음보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는 그 순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드셨나요?</p> <p>신라인은 이 남산에 부처님이 살아 있고 늘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표현하였습니다. 경주 남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아끼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잘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p>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경주국립공원의 소나무는 신라문화유적과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
해설주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소나무의 존재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소나무의 푸른빛이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설소재	남산, 삼릉, 소나무, 조선시대, 송금정책, 거북선, 재선충
운영장소	삼릉 소나무 숲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센터 앞	1
	약속	자연과 약속해요!			
주제별 해설	국립공원의 깃대종 소나무 이야기	소나무의 외형과 우리의 모습 소나무가 주는 존재감 역사를 품고 있는 소나무	-	삼릉숲	2
주제 심화	삼릉 숲의 풍경	남산의 명소 생명력 넘치는 소나무 숲 푸름의 향기	사진자료		2
	역사속의 소나무	소나무와 함께 하는 삶 소나무를 사랑한 조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2
마무리	자연이 주는 소중함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며 재산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사랑하자	-	2	
	마무리	인사 및 평가지 작성	평가지	1	

해설주제	상세내용
<p>인사말</p>	<p>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날씨가 가을 같은 겨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의 인연 감사드립니다.</p> <p>이곳은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 중 남산지구입니다.</p> <p>경주 남산을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소나무의 산이라고 합니다.</p> <p>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남산의 문화유적과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 소나무이야기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이라는 주제로 소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내어주는 소나무의 존재와 그 의미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코스는 어린아이도 쉽게 갈 수 있는 고운 길입니다.</p>
<p>삼릉 소나무 숲</p>	<p>이곳은 남산의 명소가 된 삼릉 소나무 숲입니다.</p> <p>삼릉보다도 삼릉 앞 소나무 숲이 어느 사진작가 덕분에 너무 유명해진 숲입니다. 왜 삼릉인지 다들 아시죠? 왕릉이 3개라서 삼릉(신라 박씨 왕인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등 세 왕의 무덤이 한곳에 있어 삼릉이라 부른다) 왕릉 주변은 소나무로 인하여 따뜻한 느낌과 소나무가 왕릉을 호위하는 느낌을 줍니다. 역시 왕릉은 소나무로 둘러싸여야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p> <p>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는 경주국립공원의 깃대종입니다. 깃대종? 깃대종은 법으로 보호를 명시하는 천연기념물과 달리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야생 동식물을 깃발을 표현하여 깃대종이라 합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식물을 소나무를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릉 소나무의 나이는 전문기관과 함께 성장추 분석을 한 결과 굵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90~1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소나무가 참 많이 있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소나무, 구불구불 제멋대로 휘어진 소나무, 마디마디 상처가 나 아문 흔적이 있는 소나무, 서로 얽히고 기대며 살아가는 소나무. 제각각인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신비감마저 느껴지는 소나무 숲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평온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서로 기대고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 소나무</p>

	<p>숲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오히려 감동이 오고 위로가 되어 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p> <p>소나무로 뒤덮인 숲에는 소나무에서 뿜어내는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나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물질.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라고 하죠. 피톤-식물, 치드-죽이다. 즉, '숲 하단의 식물을 죽이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식물이나,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진달래나 철쭉이 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초록색이 주는 치유 효과와 귀로는 산새 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날숨과 들숨을 쉬면서 피톤치드를 몸속 가득히 채우면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해가시기 바랍니다.</p>
<p>소나무와 인연</p>	<p>조선 시대 선비들은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면 소나무 숲으로 와서 마음산책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합니다.</p> <p>피톤치드가 가득 찬 곳에서 천천히 걸어도 보고 웬지 나를 닮은 듯한 소나무를 안아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왜 소나무를 좋아하는지 소나무와의 인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탄생과 축복의 의미로 삼칠일동안 솔가지로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나무와의 인연을 맺습니다. 살아가면서 소나무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였을까요. 저는 어릴 적 추석에 할머니가 송편을 찌 때 솔잎을 깔고 송편을 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솔향을 맡기도 하지만 솔향 속에 있는 항균 성분 피톤치드를 맛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소나무와의 이야기 없나요?</p> <p>또한 옛날 목재 시대에는 대부분 소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으면 마른 솔잎을 이용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불을 사용했으며 죽으면 소나무로 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민족은 끊임없이 소나무를 이용해왔고 소나무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요.</p> <p>소나무가 최고의 나무로 인정받는 시대는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유배지 중 하나였던 제주도에서 소나무의 절개를 담은 그림 한 점이 탄생합니다.</p> <p>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에 답례하고자 그린 그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나무라는 존재에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소나무의 자태에서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써 많은 그림 속에 등장할</p>

	<p>수밖에 없는 최고의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함. 다들 알고계시죠?</p> <p>거북선과 관옥선의 재료는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전함은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부딪혔을 때 재질 자체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소나무가 강했습니다. 이처럼 소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들 때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재료였습니다.</p> <p>이 때문에 소나무벌목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를 보호하는 정책이 조선 초기부터 시행됩니다.</p> <p>조선 시대 나무 보호 현장 ‘송금정책’ <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 100대를 때리고 벼슬을 하는 자면 파직을 시킨다> 한 종류의 나무를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조선시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세조가 정이품 벼슬을 내린 소나무 이야기 등. 그만큼 조선은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한 나라였습니다.</p> <p>소나무가 보호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소나무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p>
<p>소나무의 수난</p>	<p>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시기 일제강점기 때에는 우리 민족의 고통과 함께 소나무 역시 많은 고통과 수난을 겪게 됩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칼자국, 그리고 송진채취를 위해 일본인들의 만행은 소나무의 수난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산림은 파괴되고 민둥산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p>
<p>마무리</p>	<p>이후 1970년대 나무심기운동으로 소나무는 점차 옛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강산은 푸르게, 푸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기후의 변화, 재선충, 산불 등으로 우리의 소나무가 점점 힘들어합니다. 경주 남산에서도 탐방객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나무가 죽어가고 또한 재선충으로 한그루 한그루씩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주국립공원의 깃대종인 소나무는 우리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소나무를 잘 지켜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소나무야! 우리 소나무야...! 고마워... 사랑해...’</p>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소나무를 토닥토닥 살포시 안아 주면서 소나무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으며 우리 삼릉 숲의 청정한 공기를 책임지고 있는 소나무. 그리고 삼릉 숲의 온갖 식물들과 새, 다람쥐들의 친구인 소나무처럼, 저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떠난 문화재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문화재의 보존, 복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껴본다.
해설주제	남산에 있었지만, 자리를 떠난 문화재를 소개하고 제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을 AR(증강현실)으로 만나본다.
해설소재	경주남산 삼릉곡 삼층석탑, 삼릉곡 석조 약사여래좌상, 장창곡 석조미륵삼존불상, 남산 승소곡 삼층석탑
운영장소	보물 제666호 석조여래좌상 앞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인사, 프로그램 주제 소개	-	보물 제666호 석조여래좌상 앞	1
	약속	산행 시 주의사항			1
주제별 해설	자리를 떠난 문화재 소개	경주 남산 삼릉곡 삼층석탑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 장창곡 석조미륵삼존불상 남산 승소곡 삼층석탑	사진자료		4
주제 심화	문화재의 소중함	AR(증강현실)로 보기 자리를 떠난 국내·국외 문화재	-		2
정리	문화재의 미래	과거에서 온 문화재를 미래까지 안전하게 보존, 복원의 중요성			1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및 정리			평가지(설문지)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p>안녕하십니까?</p> <p>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이곳까지 오르시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산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산행입니다.</p> <p>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 남산에 있었던 문화재이지만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를 소개하고 제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을 AR로 만나보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지금 도착하신 산이 남산입니다. 경주의 산치고 어느 산인들 신라의 유적이 없고 전설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남산이야말로 역사와 전설의 보고이며 신앙의 중심지로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야외 박물관과 같은 곳이죠. 계곡마다 전설이 있고 불교 유적이 있고 바위마다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는 남산에서 시작되어 남산에서 막을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남산이 우리나라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입니다.</p>
경주남산삼릉곡 삼층석탑	<p>이곳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보물 제666호) 앞에 자연 암반의 공터가 있죠. 여기에 높이 2m가 조금 넘는 작고 아담한 삼층석탑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p> <p>이 터에서 2007년 석탑 부재가 2점 확인되었는데 이 탑재가 현 경주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있는 삼릉계 삼층석탑의 결실부와 일치하였답니다. 이 부재가 발견되어 석탑의 원위치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삼릉곡 석조 약사여래좌상	<p>이 불상은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향마촉지인을 하고 왼손에 약합을 쥐 약사불 좌상입니다. 약사불은 중생을 질병에서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준다는 부처죠. 이후 191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이 불상을 입수하면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p> <p>한번 서울로 올라간 이 부처님은 서울의 변화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노천에서 산성비 맞기가 싫어서였는지 100년이 다 되어가도록 고향 삼릉곡을 다시 찾을 기색이 없네요.</p>

<p>장창곡 석조미륵 삼존불상</p>	<p>삼존불상은 경주 남산 장창골을 동북으로 따라 올라간 산릉의 석실 안에서 발견되어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좌우 협시불을 보면 작은 키에 천진난만한 아기의 표정과 같아서 아기부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p>
<p>남산 승소곡 삼층석탑</p>	<p>반출 경위는 1930년대에 승소곡 사지의 서북쪽 끝에서 양 10m 뒤의 언덕에 삼층석탑 1기가 도괴된 채 조사되었습니다. 현장의 탐재들은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옮겨지고 이후 1975년에 현재의 국립경주박물관 야와 뜰에 옮겨져 전시되어 있습니다.</p> <p>이러한 남산 삼릉계곡에 있던 문화재와 자리가 옮겨져 있는 문화재 몇 점도 소개해 드렸는데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 소재 17만여 점이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등 문화재가 반출되는 이유는 선물, 매매, 교환, 약탈 등의 이유로... 반출 문화재 중 대표적으로 한 점을 소개 해 드리자면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입니다. 처음에는 네 마리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세 마리가 없어지고 한 마리만 남아있죠.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다고 하니 아마도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p>
<p>문화재 보존, 복원</p>	<p>문화재의 가치는 곧 그 고유성에 있기 때문에 현대과학으로 시간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하지만 문화재를 세월의 힘 앞에서 유지 할 수 있죠.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문화재로부터 제거하거나 차단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보존, 복원에도 이용되고 있죠. 문화재란 연구자나 어느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유산, 더 나아가 인류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존,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마무리 인사</p>	<p>남산에 오셔서 자리를 떠난 문화재를 소개해 드렸는데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끼셨는지요? 우리나라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로서 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와 천 년 전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p>

쉬멍 걸으멍 포석정으로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삼릉부터 포석정까지의 길 위의 유적들로 신라의 역사를 알아보고 남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즐기는 힐링 탐방
운영장소	삼릉, 삼불사, 태진지, 지마왕릉, 포석정
소요시간	3시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사말	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코스는 삼릉에서 출발하여 배리삼존불-태진지-지마왕릉을 지나 포석정까지입니다. 심미자, 우복순이 전하는 자연과 문화재의 역사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오늘 하루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산 소개	여기는 경주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967년에 가장 먼저 지정된 지리산에 이어 경주는 1968년에 두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산이나 바다 등 자연경관 중심의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경주국립공원은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남산은 동, 서로 4km, 남, 북으로 10km이며 해발 468m 금오봉과 494m 고위봉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상 탐방로가 20개이며 오르는 계곡마다 볼거리와 역사, 문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 기슭 ‘포석정 가는 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지, 어떤 자연이 관찰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삼릉</p>	<p>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삼릉곡입니다.</p> <p>삼릉곡은 남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이 있고 등산이나 유적답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계곡입니다. 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어서 냉골이라고도 합니다.</p> <p>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릉의 주인공이 신라의 박 씨 성을 가진 세분의 왕이라 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고 신라 초기의 아달라왕과 신덕왕, 경명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무덤이 한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p> <p>또한 신라 초기에는 이와 같은 대형무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 습니다. 무덤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라 초기(청동기 말~철기시대)에는 토광묘, 마립간시기(4~6세기)에는 돌무지덧널무덤 (적석목곽분)에서 신라 23대 법흥왕 때(527년) 불교가 들어오면서 점차로 구릉이나 산지로 옮겨가면서 석실분으로 바뀝니다.</p> <p>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조선 영조 6년 경술년(1730)에 경주부윤으로 있던 김시형이 박씨 문중과 타협하여 잃어버린 왕릉을 찾는 작업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p> <p>가운데 있는 신덕 왕릉은 1953년, 1963년에 두 번 도굴이 되었는데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덤에는 돌방 벽면에 병풍을 돌려세워 놓은 것처럼 동. 서양 벽의 일부에 12폭으로 적, 황, 백, 감청. 군청의 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벽화는 아니지만 벽화가 그려지지 않은 경주의 신라 무덤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것으로 주목되는 자료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정상 발굴 후 복원된 모습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나무</p>	<p>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소나무가 많이 있죠?</p> <p>소나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아왔고 나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소나무는 한반도에서 6000년 전부터 자라왔고 우리 문화와 함께해온 나무입니다. 한자로는 ‘송’이라 하는데 중국 진시황이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소나무 덕으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자 고맙다는 뜻으로 공작의 벼슬을 주어 ‘木公’ 즉 나무의 공작이 되었고 이 두 글자가 합하여 ‘松’자가 되었다고 합니다.</p> <p>소나무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고 따뜻한 기후와 햇볕을 좋아합니다.</p>

	<p>뿌리에서 타감 물질인 갈로타닌 물질을 내기 때문에 진달래와 철쭉 정도 외에는 소나무 숲에서 함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고 잔디도 죽기 때문에 무덤가에는 잘 심지 않고 대신 측백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소나무 대신 측백나무를 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덤가에 심는 나무도 신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백성의 무덤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제후의 무덤에는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소나무는? 소나무는 황제를 위한 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가장 고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황제 능 주위를 송림으로 둘러쌌습니다. 이 영향인지 이곳 경주에 있는 신라 왕릉들은 대부분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의 왕릉도 송림으로 싸여있습니다. 삼릉의 소나무 수령은 전문기관과 함께 성장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 61그룹을 표본 조사한 결과 굵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90~100년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p>
<p>계 입</p>	<p>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p> <p>‘걷기는 창조적인 삶의 시작’, ‘걷는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p> <p>한 줄로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바닥에 발을 내려놓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팔을 움직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p> <p>[걸음 알아차리기]</p> <p>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억지로 가는지 등 여러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p> <p>두 팀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항의 걸음걸이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길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다. -어두운 골목길을 두려움에 떨며 걷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를 걷고 있다. <p>어때요? 평소에 나는 어떤 걸음으로 걷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삼불사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p>

<p>공동묘지</p>	<p>남산에 오르다 보면 문화재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이 엄청난 수의 묘지들입니다. 남산의 북쪽 상서장을 출발해 숲으로 들어서면 만나는 무수한 묘지, 그리고 지금 이곳과 정상부인 금오봉과 고위봉 등에 있는 많은 봉분은 ‘공동묘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남산이 도심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전통 장묘문화, 수많은 사찰 터 등에 의해 남산 전체가 명당이라는 지역민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묘지로 인해 경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묘지관리를 위한 셋길의 발생하여 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파괴, 산불 발생 위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경주국립공원 남산을 이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2011년부터 묘지 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330기 (2016년 조사) 중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91기를 이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p>
<p>회양목</p>	<p>산소에 울타리로 심어 놓은 나무는 회양목입니다.</p> <p>예전에는 황양목이라고도 불렀습니다.</p> <p>석회암 지대가 발달된 북한 강원도 회양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회양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질이 단단하고 균일하여 쓰임새가 많은 나무로써 조선 시대에 목관활자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으며, 호패, 표찰을 만드는 데도 이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장기 알 등에 이용되었습니다. 도장을 팔 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도장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회양목과 닮은 나무로는 짱짱나무가 있습니다.</p> <p>황궁나무라는 살짝 우스운 이름은 나무가 불에 탈 때 ‘짱짱’ 소리를 낸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잎이 두껍고 표면이 막질로 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잎이 터지면서 짱짱 소리가 납니다.</p>
<p>배리삼존불</p>	<p>길가에 애기똥풀(줄기를 자르면 노란 액체가 뭉쳐있는 것이 꼭 애기똥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 꽃마리(꽃차례가 위에서 말려있어 ‘꽃말이’에서 유래), 민들레, 황매화(꽃 모양이 매화를 닮고 노란색이라 황매화라 한다. 여러 장으로 겹쳐 난 황매화를 죽단화, 겹황매화라 함)등 예쁜 꽃들을 보면서 온 이곳은 배리삼존불입니다. 배리라는 지명은 옛날 이 마을에 한 재상이 살았는데 그는 부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덕이 높은 스님을 모셔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덕이 높은 스님을 모시고 제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 여겼답니다. 제삿날이 되어 덕이 높은 스님이라고 모시고 온 스님이</p>

너무 누추한 옷을 입었고 행색이 초라했으므로 재상은 격노 했습니다. “턱이 높은 스님을 모셔 오라고 했지 이런 거지 같은 중을 데려오라고 했냐?” 하며 초라한 스님을 문밖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거절당한 초라한 스님은 소맷자락 에서 한 마리 짐승을 꺼내니 큰 사자로 변했습니다. 스님은 그 사자를 타고 사라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상은 그제서야 중이 고승인 것을 깨닫고 사라산 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으므로 이 마을을 ‘절하는 동네’ 배리(拜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정구역 지명으로 ‘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을 보시면 미소가 아름다운 삼존불이 있습니다.

이 석불들은 원래 이 자리에 흩어져 누워있던 것을 1923년에 한곳에 모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삼존불이 모두 명랑하고 천진스러운 어린 아기들처럼 보입니다. 불상들의 이러한 표정은 조성될 당시 7세기 초엽 명랑하고 천진스럽던 국민성이 반영되었고 전신의 키가 머리 길이의 5배로 아기들 키와 같은 비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존여래불은 풍만하고 네모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가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안전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 주름이 조심스럽게 그어져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 절에서 보시면 부처님의 손 모양이 갖기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할 때 도장을 찍지만 부처님께서서는 도장 찍는 대신에 약속을 손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가운데 본존불의 수인은 두려운 것을 없애준다(시무외인)는 약속으로 오른손 바닥을 앞으로 하여 위로 향해 들었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여원인)는 약속으로 왼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아래로 향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존불의 수인을 [시무여원인] 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원래 있던 대좌가 깨어졌으므로 그 뒤에 새로운 돌을 대좌로 삼아 세운 것입니다.

좌협시 보살의 연화대좌는 없어지고 네모난 바위에 서서 오른손은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드리워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보살이 정병을 들고 있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괴로운 사람을 구하겠다는 보살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머리 뒤에는 무늬없는

	<p>등근 두광이 배치되었고 머리에 쓴 보관에 아미타의 화불이 있어 관세음보살로 보고 있습니다.</p> <p>우협시 보살은 조각 솜씨도 옷맵시도 왼쪽 보살과 다르므로 원래 삼존본존불상과 짝이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발견 당시 이 보살상은 가운데 여래상의 오른쪽에 누워 있었으므로 우협시 보살로 보여 집니다. 이 보살상은 대좌와 몸체가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화대좌가 남아 있음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눈에 웃음이 서려 있습니다.</p> <p>등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체의 화불과 두 송이의 보상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p> <p>이 보살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두 어깨에서부터 발등 가까이 드리워진 구슬과 꽃으로 장식된 굽은 영락입니다. 보살상의 이러한 장식은 6세기 말 7세기 초 중국 수나라 시대 보살상 장식으로 유행되던 것입니다. 왼쪽 협시보살을 관세음보살로 보아 가운데 여래상은 아미타여래이고 오른쪽 협시보살은 대세지보살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된 연대는 7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남산에서 이 불상과 같은 시기의 불상으로는 불곡마에여래좌상, 삼화령 미륵삼존불이 있습니다.</p>
<p>삼불사 석 탑</p>	<p>몇 개의 돌을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탑이죠.</p> <p>탑이란 무엇일까요?</p> <p>탑은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 음역하여 솔도파, 팔리어로 탑파 음역하여 탑이라 합니다. 탑은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비롯됩니다. 즉,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부처님이 돌아(열반)가시고 화장(다비)을 하여 그때 나온 사리를 인도의 여덟 나라에 나누어 8개의 탑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사리 신앙과 더불어 불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p> <p>이 탑이 최초의 근본 8탑입니다. 그 후 200년 뒤 아쇼카왕이 7개의 탑을 열어 사리를 모아 다시 8만4천 등분으로 나누어 인도 전역에 8만4천 개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탑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간다라(서북인도지역, 현재의 파키스탄)지방을 거쳐 중국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탑은 재료에 따라서 석탑(한국), 목탑(일본), 전탑(중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있는 탑은 절을 세우면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쌓아둔 것입니다. 몇 개의 탑일까요?</p>

	<p>제일 밑에 있는 것과 1층 탑신은 새로 만든 것이고, 위에 옥개석 4개와 중간에 탑신은 신라 시대 것입니다. 현재 4층으로 되어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1층과 3층의 층급받침이 3단, 2층은 4단, 4층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탑이 아닙니다.</p> <p>형태가 다른 3기의 탑이 모여 있습니다.</p> <p>남산에 발견된 탑이 100여 기인데 벌써 3기를 보신 것입니다.</p> <p>남산의 탑이 제대로 복원이 된 것은 17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깨진 채로 계곡이나 산기슭에 방치되어 있거나 묻혀 있습니다.</p>
<p>태진지</p>	<p>이곳은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는 생태공원 태진지입니다.</p> <p>‘태진지’라는 이름의 유래는 못을 만들 때 참여한 주민의 이름이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p> <p>오른쪽으로 보면 연못을 중심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안내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상나무, 소나무, 산철쭉, 남천, 부레옥잠, 꽃창포, 왕원추리, 제비붓꽃, 남개연, 세모고랭이 등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p> <p>개화기 다르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계절마다 여기에서 꽃을 볼 수 있습니다.</p>
<p>남 천</p>	<p>테크 시작 지점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이 남천입니다.</p> <p>남천은 중국 원산으로 중국명인 남천촉(南天燭), 남천죽(南天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인 남천에서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촉(燭)은 열매가 불에 타는 것처럼 빨갱다 하여 붙여졌고, 죽(竹)은 곧게 자란 줄기가 대나무 같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남천 잎이 겨울철에는 홍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4계절 내내 멋스러워서 원예나무로 많이 쓰입니다.</p> <p>흔히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남천도 붉은색이 강해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해서 중국 진시황이 남천 나무의 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하고, 딸의 행복을 빌며 가마 속 방석 밑에도 딸의 순산을 기원하며 이불 밑에도 남천 잎을 넣어 주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선물할 때 음식 위에 남천 잎 석 장을 올려서 보냈다고 합니다.</p>
<p>계 입</p>	<p>문화와 자연을 보면서 신나게 걸어왔는데 여기서 ‘인드라망’이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인드라망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드라’라는 신이 가진 그물을 말합니다. 이 그물은 모든 망이 교차하는 곳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을 비춥니다.</p>

	<p>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담겨져 있고 모든 구슬은 하나의 구슬로 통한다는 깊은 뜻을 가진 그물의 이야기로 하여 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드라가 제석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p> <p>< 놀이 방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여 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둘러서서 손을 잡는다. 2. 오른손은 누구의 왼손을 잡았는지 왼손으로는 누구의 오른손을 잡았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3. 원을 유지하며 흩어져서 자리를 다 바꾼 후 줌 전에 잡았던 그 손을 찾아 안으로 손을 뺄으며 그대로 잡는다. (그러면 손과 팔이 뒤죽박죽 얽힌다) 4.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 요리조리 서로 몸을 양보하며 엉킨 팔을 풀어간다. 5. 절대 손을 놓고 다시 잡는 행위는 금지이다. (손목이 꼬여 아파서 다시 잡는 것은 괜찮다) 6. 신기하게도 처음의 손을 모두 정확히 잡으면 다시 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p>엉킨 모습을 원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몸을 부대끼며 머리를 서로 맞대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원으로 풀고 난 후 모두가 느끼는 성취감이 커서 모두 하나가 되어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비록 영킴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p> <p>이제 저와의 시간은 마치고 000 선생님의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p>
<p>지마왕릉</p>	<p>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분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지금까지 포석정으로 가는 발걸음이 신나고 즐거우셨나요? 우리 팀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함께 공유 하시면서 즐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p> <p>자! 그럼 포석정으로 가는 길 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는지 길을 떠나볼까요? 길을 가면서 다양한 나무와 풀들과 곤충들이 어떻게 어울려져서 그들 나름대로 생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피면서 발걸음 가볍게 물루랄라~</p> <p>소나무 숲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능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p>

	<p>드시죠? 여기서 퀴즈 타임 입니다. 연상되는 단어 맞추어 주세요. 만 원짜리 지폐, 애국가, 정이품, 송편, 정답은? 딩동댕!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소나무입니다.</p> <p>역시 왕릉은 삼릉에서도 그렇고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왕릉의 주인공은 신라 제6대 지마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왕이죠. 성은 박 씨고 이름은 지마. 5대 과사왕의 아들입니다.</p> <p>112년에 왕위에 올라 23년간 재위하면서 114년에는 우박, 홍수 등 재해가 심하므로 사형수를 빼고는 죄수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134년 8월에 왕이 아들 없이 죽었다고 전할 뿐 구체적인 장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p> <p>삼릉과 같이 1730년대에 박씨 문중에서 잃어버린 왕릉 찾기에서 찾아내어서 지마왕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능 앞에 잘 다듬어진 돌은 1955년에 영혼이 나와 놀게 하려고 설치하였다는 혼유석 입 니다.</p>
<p>지마왕릉 에서</p>	<p>주변을 둘러보실까요?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눈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연에서 오감을 열고 몸의 기능을 열기 위해서 손 박수 동작을 해보겠습니다.</p> <p>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손바닥(열고)으로 박수 3번 짹! 짹! 짹! 주먹 쥐고(닫고) 콩! 콩! 콩!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어서 짹! 짹! 짹! 닫~아서 콩! 콩! 콩! 열고 짹! 닫고 콩!”</p> <p>열고 닫고 손 박수 동작을 해봤는데 어때요. 손 박수 동작은 치매 예방과 건망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p> <p>그러면 숲에서 열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눈과 귀와 코입니다. 눈을 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을 느끼고, 귀를 열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코를 열어서 나무, 풀, 흙이 품어내는 향기를 맡으면서 몸과 마음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닫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감을 열어서 몸의 기능을 열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조용히 자연에 몸을 맡겨봅니다.</p> <p>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너무나 흔하게</p>

접하다 보니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분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고 보고자 했던 3일간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헬렌 켈러. 다 아시는 분이죠. 두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병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죠. 그분이 어느 날 숲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친구야, 숲을 산책하는 동안 무엇을 보았니” 하고 물으니 “별로 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두 눈을 갖고 두 귀를 갖고 보지도 듣지도 못할까 하면서 ‘내가 만약 3일만 눈을 뜬다면’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3일간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첫째 날의 여행- 자기를 가르쳐주신 설리번 선생님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느꼈던 그분의 인자한 모습을 몇 시간이라도 보면서 가슴속에 간직하겠다. 그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겠다 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우리처럼 들로 산으로 나가서 바람결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을 보고 들에 핀 들 꽃과 풀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소원인 적 있나요. 오늘 보셨나요? 첫째 날 보고자했던 것이 바로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들꽃과 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보고자 했던 바람, 그 소중한 바람, 이 바람이 없다면 소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곤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짝을 찾아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그 소중한 바람을 우리 다 같이 불러 볼까요? ‘산바람 강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맞나요?

둘째 날 여행-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셋째 날은 여행- 마지막 날에는 정리를 해야겠죠. 일찍 큰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p>그리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 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준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하고 여행을 마무리합니다.</p> <p>어때요? 이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일상의 생활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숲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 3일간에 담았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p> <p>길가에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 노란 꽃이 아름다운 들꽃입니다. 민들레 꽃말은 행복이라네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피어서 이리 밝히고 저리 밝히고 잡초 취급받는데 꽃말이 행복이라니 다소 뜻밖이죠. 민들레 꽃말이 행복이어서일까요?</p> <p>길가에 핀 노란 민들레를 보니 포석정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네요.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는 풀꽃을 보면서</p> <p>‘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p> <p>이 말에 공감을 하듯이 길가에 아무렇게 핀 들꽃들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요. 개명을 한 봄까치꽃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손톱에 예쁘게 장식도 해봅니다.</p>
<p>접 목</p>	<p>소나무에 잣나무를 접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p>접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들이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을 말합니다.</p> <p>접붙이기가 가능한 부분은 유전적으로 유사한 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접붙이기가 가능하게 하려면 관다발 형성층이 있는 가지로 접목을 해야 합니다. 위에 붙이는 부분을 접지, 접수라 하고 바탕이 되는</p>

	<p>뿌리 쪽을 접본, 대목이라 합니다. 북한은 쓸모가 적은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을 통해 소나무림을 잣나무림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999년)</p> <p>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하게 자란 소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으나 접목의 방법으로 소나무림을 잣나무림으로 개조하면 나무가 곧게 자라고 짧은 기간에 많은 잣을 수확할 수 있어 경제적 효용이 매우 높습니다.</p> <p>또한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목하면 아무렇게나 키운 잣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며 병충해의 피해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p>
<p>포석정 입구</p>	<p>(남산을 바라보면서) 남산은 언제 어떻게 저 자리에 위치하게 됐을까요?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부부신이 서라벌 구경에 나섰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는데 빨래터에서 이들을 돌아본 처녀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앗! 산보다 큰사람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을 “앗! 산이다”라고 외치고 기절해 버렸다. 이 말을 들은 신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었는데 남편신은 남산이 되었고 부인신은 남산 맞은편 망산이 되어서 두신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마주 선 채 수천 년 서라벌을 지키는 산이 된 것 이라고 합니다.(포석정 안내판 앞)</p> <p>우리나라 사적 제1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신라 시대 만들어진 바로 이 포석정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물길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양이 참 특이하죠. 이 모양이 전복껍질 모양과 같다 해서 ‘전복 포’자를 사용해서 ‘포’돌로 만들어져 ‘포석’ 여기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어서 ‘포석정지’라고 합니다. 기록에는 성남이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의 남쪽에 있는 별궁이라 보시면 됩니다.</p> <p>이곳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돌 흙만 보고 이곳을 신라 왕들이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놀았던 곳이며, 그래서 신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포석정은 신라왕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놀았던 곳일까요? 포석정 안으로 들어가서 포석정의 참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포석정</p>	<p>남산은 소나무 산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소나무가 주종인데 비해서 이곳은 활엽수, 침엽수가 잘 어울려져서 포석정만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입니다.</p> <p>대부분 사람들은 잎이 뽕족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p>

하면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다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리기다소나무 앞) 옆에 있는 소나무와 다른 점이 있죠. 수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잎의 개수가 다릅니다. 잣나무 잎이 5개, 소나무 잎 2개, 리기다소나무 잎 3개,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잎의 개수를 이용해서 짝을 짓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둥글게 빙빙 게임 놀이)

이제 신나게 몸도 풀고 했으니 자리에 앉아서 포석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복 형상의 돌에 물을 흐르게 하고 술잔을 띄워 술잔이 앞에 멈추면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놀이로써 이런 놀이를 ‘유상곡수연’ (流觴曲水宴)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 잔 상, 굽을 곡, 물 수, 잔치 연’ 유상곡수연의 시작은 중국의 명필 왕희지와 그의 친구들이 난정이라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개울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결제사를 올리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시를 읊는 놀이로써 이때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 3잔을 마시면서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석정은 이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석정은 언제 만들어졌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국유사>에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향연을 베풀었는데, 산신이 홀연히 나타나 춤을 추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좌, 우 신하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왕만 홀로 이 춤을 보았다. 신하들의 재촉에 의해서 왕이 다시 춤을 추니 그 춤을 어무상심(御舞祥審 다스릴 어, 춤출 무, 상서로울 상, 살필 심)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왕들이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곳에 신이 왜 나타났을까요?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포석정은 9세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포석정하면 떠오르는 비극의 주인공 경애왕이 생각납니다. 경애왕 4년(927) 9월에 후백제 견훤의 침략 소식을 듣고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청해놓고 구원병이 도착하기 도전에 음력 11월 견훤이 불시에 서라벌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은 비빈 종친들과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다가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로 지금까지 포석정은 신라왕들의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곳, 또한 신라멸망의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고려 사람의 눈으로 본 신라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1989년 발견된 화랑세기 필사본 (신라사람 눈으로 본 신라 이야기) 화랑세기는 신라 성덕왕 때 김대문이가 쓴 화랑의 우두머리 풍월주들의 이야기 속에는 포석정은 ‘포사’ (포석사 사당)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랑들의 국선 문노의 초상을 포석사에 모셨다는 내용과 또한 포석사에서 문노와 그 부인의 길례, 김춘추와 문희의 길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사람의 눈으로 본 포석정 이야기는 성스럽고 경건한 사당으로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쳐주는 설

『첫째-신라인에게 포석정이 위치한 남산은 현재 남아있는 불교유적들로 봐서 신라인의 정신세계 신앙 그 자체로 여겨진 곳으로 이런 곳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포석정 자체도 남산에 포함되는 곳으로 신라인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성스러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남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 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포석정에 남산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종교적인 의례형식에는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 좋은 예가 조선 시대 종묘와 영녕전에 올리는 종묘제례악이 있습니다. 아마 포석정에서 왕이 남산 신에게 춤과 노래를 올리면서 신과 교류하는 모습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

둘째-삼국사기에는 927년 음력 11월 경애왕이 왕비와 신하들과 술잔을 띄우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나 음력 11월은 양력 12월로 이때는 물이 얼어서 야외에서 유상곡수를 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애왕이 견훤의 침략 소식을 듣고 그 추운 겨울에 포석정에 간 이유는 아마도 국가의 위급함을 사당에 알리고 기울어가는 신라를 구해달라고 몸소 빌다가 견훤에게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인식의 주된 이유는 고려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p>마무리</p>	<p>신라의 멸망과정에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인물 표현을 보면 경애왕- 한심하고 놀자 판 견훤- 무자비함 태조 왕건- 하늘이 내린 성군 경순왕- 참 잘한 임금</p> <p>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상곡수만 보고 포석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포석정을 신라 사람들의 눈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고려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직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포석정. 포석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 우리는 포석정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이제 포석정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1998년 발굴 조사한 결과 건물지와 ‘포석’이라는 글씨가 써진 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남쪽잔디밭에서) 또한 제기류가 많이 출토 됨으로써 이곳에 사당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이동해서 계곡 쪽으로 보시면 자연적인 바위에 인공으로 파놓은 목욕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목욕했던 흔적) 몸을 깨끗이 씻고 결제사를 올렸다 하는 내용을 봐서 유상곡수연은 단순히 놀이문화 보다는 제사 의식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계곡의 현장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치른 곳) 포석정 옆 계곡에 왕족, 귀족들이 목욕했다는 계곡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신라 시대 귀족들의 놀이 문화로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주령구)에서 한 면마다 써진 글의 내용에 ‘소리 내지 말고 춤추기’, ‘술 다 마시고 크게 웃기’, ‘술 석 잔 연달아 마시기’ 등 노래와 웃음을 즐기는 귀족들의 여유와 풍류를 볼 수 있는 자료가 경주박물관 월지관에 전시되어 볼 수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주령구를 통해 외국 사신 접대 등 왕족 귀족들의 놀이문화는 동궁과 월지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지금까지 000, 000이 함께한 쉬멍 걸으멍 포석정으로 가는 길이 즐겁고 재미있는 길이였나요? 우리가 걸어온 포석정으로 가는 길은 비록 짧은 길이였지만 그 길 위에는 명품 소나무 숲을 만나는 길,</p>
------------	--

	<p>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 줄 것 같은 천진한 웃음의 부처님을 만나는 길, 신라의 아픔. 역사도 만나는 길이였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있는 길 그 길 위에선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한 100년 뒤에 이 길 위에는 또 어떤 변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무궁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길이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포석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일간의 여행처럼 오늘 함께한 모든 것들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p>
--	--

가을, 경주 남산의 칠불암에 취하다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남산의 자연을 느끼고 프로그램 참가자들 모두가 마음을 나누며 빼어난 우리 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알아간다.
운영장소	염불사지, 칠불암, 신선암 마에보살상
소요시간	3시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반갑습니다.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 000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탐방하는 코스는 경주 남산 동쪽 코스 칠불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안전 약속	산행 중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무리한 산행하지 않게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을, 경주 남산의 칠불암에 취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남산지구 소개	‘천년 신라의 노천 박물관’ 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잘 이룬 곳입니다. 1968년에 남산을 포함되어 토함산, 대본, 소금강, 화랑, 서악, 구미산, 단석산 총 8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남산은 높은 산이 아니지만, 동. 서로 4km, 남. 북으로 10km이며 해발 468m 금오봉과 494m 고위봉 2봉우리 중심 으로 40여 개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탐방로가 20개 이며 오르는 계곡마다 볼거리와 역사. 문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산입니다. 삼국유사를 쓰신 일연스님께서서는 서라벌을 가리켜 ‘사사성장, 탐탐안행(寺寺星張 塔塔雁行)’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절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p>그 중심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지구는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 신라시대 임금님이 살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이라 하며 마치 한 마리의 금자라(거북이)가 엮드려있는 것처럼 보여 金 (쇠 금), 鰲 (자라 오), 山 (메 산) 자를 써 금오산이라고 합니다.</p>
<p>염불사지 삼층석탑</p>	<p>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탑은 염불사지삼층석탑입니다. 탑이 자리한 마을은 남산동 내촌 혹은 내촌리 라고 불리는데 신라 시대에는 피리사촌, 피리촌, 피이촌으로 불렸다고 하며 지명으로 볼 때 피리사가 존재하고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 피은 편에 사찰의 이름과 관련된 기록이 전합니다. 남산 동쪽 산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그 마을에 있는 절을 피리사라 했습니다. 그 절에 이상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아미타불을 외었는데 그 소리가 성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낭랑하기가 한결같았습니다. 그를 이상히 여겨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모두 그를 염불사(念佛師)라 불렀습니다. 그가 죽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를 염불사로 고쳐 불렀습니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절터는 온데간데 없이 흩어져 주변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옛 염불사 절터에는 도괴되어 있던 쌍탑만이 남아 있었는데 한 때 불국사역 광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가 2008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삼층석탑은 길게 석축을 쌓아 터를 닦아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이중의 기단과 삼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입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탕주가 2개씩 새겨져 있어 불국사 삼층석탑의 구성과 비슷한 시기인 8세기 중엽이나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p> <p>석탑의 사리 장엄구를 봉안하였던 사리공은 다른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탑을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 2기와 불상, 불화, 불경을 봉안 하였습니다. 전하는 전설을 상상하면 염불 스님의 염불 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합니다.</p>

	<p>염불 소리 같이 한 번 들어보실래요? 염불 소리에 취하셨나요? 염불소리가 시끄러운 내 마음 가라앉혀 주나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남산 가을의 풍경에도 한 번 취해볼까요? 칠불암 가는 길로 이동하겠습니다.</p>
<p>남산식생</p>	<p>남산을 ‘느림의 산’ 이라고 부릅니다. 탐방로 곳곳에 불교 유적들은 탐방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자연스럽게 산행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조들의 신앙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풀들로 어우러진 숲이 있습니다. 남산은 상층은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있으며 참나무류가 곳곳에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림수종인 사방오리나무와 물오리나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층은 참나무류와 아까시나무, 쇠물푸레나무, 개웃나무 등이 보이고, 대팻집나무, 밤나무, 사람주나무 등 관상 가치가 뛰어난 수종도 있습니다. 하층은 진달래, 철쭉, 국수나무, 싸리 등이 보이고 초본으로는 억새, 주름조개풀, 노루발 등의 야생화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모여 만든 산길, 이 길을 따라서 칠불암으로 출발하겠습니다.</p>
<p>인간 모노레일</p>	<p>여기는 칠불암 사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곳입니다. 칠불암 스님은 이것을 ‘인간 모노레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 느리지만 땀과 호흡 소리만 나는 모노레일입니다.</p>
<p>산뽕나무</p>	<p>뽕나무입니다. 어린 시절 뽕나무 열매 오디를 따 먹은 기억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오디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되어 방귀가 ‘뽕’ 하고 나온다고 해서 나무 이름을 뽕나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뽕나무가 뽕~하고 방귀를 끼니 대나무가 대끼눔~ 야단을 쳤네 참나무가 점잖게 하는 말 참아라’ 어린이 노래도 있습니다. 산뽕나무는 산에서 나는 야생 뽕나무입니다. 뽕잎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누에의 먹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집마다 뽕나무도 재배했습니다. 뽕나무 잎을 먹고 누에가 자라고 누에로부터 비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단으로 인해 무역이 생기고 문화가 오가고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전벽해’라는 말도 있는데 桑(뽕나무 상), 田(밭 전), 碧(푸를 벽),</p>

	<p>海(바다 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모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뽕나무는 우리 생활 속의 나무입니다.</p>
<p>생강나무</p>	<p>생강나무는 생강이 열리는 나무인가요? 생강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녹나무과의 나무들 대부분이 향기가 있는 휘발성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나무의 이름도 이 나뭇잎이나 가지를 잘라 비비면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유래합니다. 생강나무는 봄에 노란 구슬과 같은 꽃이 피어 새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특징이 있고 참나무 소나무 같은 큰 나무들 사이에서도 부족한 햇볕과 수분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또 적은 양분을 아껴 쓰며 잘 자랍니다. 생강나무는 강원도지역에서 동백으로도 부르는데 이유는 동백기름을 사용하던 시절, 비싸고 귀한 동백기름 대신 생강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어 머릿기름으로 써왔기 때문입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자료</p>  <p>생강나무 꽃</p> </div>
<p>때죽나무</p>	<p>맑은 계곡에서 볼 수 있는 때죽나무는 꽃과 열매 그리고 나무껍질에 따라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얀 꽃이 마치 종을 달아 놓은 것처럼 무리지어 핀다고 하여 ‘스노우 벨’ 이라고 하는 때죽나무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매달린 열매가 회색빛으로 반질반질해서 마치 스님이 떼를 지어 있는 모습같아 ‘떼중 나무’ 라고도 하였고 열매껍질에 독성이 있어 옛날에 열매를 찢어 물에 풀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떼로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 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포닌성분이 들어 있어서 비누로 쓰이면서 기름때를 죽 뺀다고 하여 ‘때죽나무’ 라는 설도 있으며 짙은 갈색의 나무줄기가 마치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불리지게 되었습니다.</p>

<p>참나무</p>	<p>참나무라는 나무이름은 있다? 없다?</p> <p>참나무는 어느 한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과 참나무속에 속하는 여러 수종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속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도토리를 생산하여 도토리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oak) 오크나무라고도 합니다. 예부터 우리 산에는 참나무가 흔히 자랐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아 선조들은 ‘진짜나무’라는 뜻으로 한자 참, 진(眞)을 써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나무 용도와 쓸모 또한 참으로 많고 고마운 나무입니다. 연기가 적고 오래 타기 때문에 장작으로 사랑받았고 ‘참숯’이라고 불리며 숯으로도 귀한 대접도 받는 나무들입니다. 가구, 목자재로 큰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서양에서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나무통, 오크통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참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오크는 꽤 괜찮은 향기가 나는 경우가 많아 숙성용 저장 통으로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굴참나무에서는 수피가 코르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서 보는 참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p> <p>보통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그리고 떡갈나무의 6종의 나무는 참나무 6형제라고 합니다. 이 6종의 나무들은 서로 교배가 잘되므로 잡종이 수없이 많지만, 대체로 이 6가지이면 참나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참나무 6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첫째, 상수리나무</p> <p>상수리나무는 그 열매인 도토리를 한자로 橡實(상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어 ‘상수리’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이 항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수라상에 오르는 도토리’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합니다.</p> <p>둘째, 굴참나무</p> <p>굴참나무는 나무껍질에 굴(골의 지방 방언)이 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무껍질이 두꺼운 코르크질이라 폭신해서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만드는 데도 이용하고, 옛날에는 강원도 산골에서 이 껍질을 지붕 재료로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굴피집이라고 합니다.</p>
-------------------	---

셋째, 천연 깔창-신갈나무

신갈나무는 참나무 가족 중 가장 높은 곳에서 자라는데, 옛날에 짚신 등의 밑창으로 이 나무 의 잎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갈이 나무’ 라 불리다가 지금의 신갈나무로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번식능력이 강하여 백두대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내력이 강하고 키 큰 나무의 그늘아래 있다고 하여 기죽지 않고 곳곳이 견디며 햇볕을 듬뿍 받을 날을 기다리는 나무로 한 민족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진 자료



짚신

넷째, 잎으로 떡을 찐던-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옛날에 떡을 만들 때 이 나무로 떡을 찌서 보관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이 참나무 형제 중에서 가장 크고 두껍습니다.

사진 자료



떡갈나무 잎

다섯째, 가을에 제일 눈에 띄는- 갈참나무

갈참나무는 다른 참나무에 비해 가을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어 가을 참나무라고 불리다가 갈참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잎이 제일 작은 졸참나무

졸참나무는 졸병이란 의미의 ‘졸’ 자를 사용하고 참나무 중 잎과

도토리 열매의 크기가 가장 작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목을 쭈어 먹는 참나무 열매 중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도토리의 크기는 졸병이지만 맛은 대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

참나무 6형제 서로 교배가 잘되므로 잡종이 수없이 많지만, 대체로 이 6가지이면 참나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잎의 모양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잎이 크고 두툼한 무리로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잎이 길고 가는 형태로는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 중간단계인 넓은 잎 모양을 가진 것으로 졸참나무와 갈참나무입니다.



신갈나무는 잎이 두꺼운 떡갈나무에 비해 잎이 얇고 뒷면에 털이 없습니다. 참나무는 잎의 뒷면이 흰색으로 상수리나무와 구별됩니다. 졸참나무는 갈참나무 보다 작고 잎 뒷면에 털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자루로도 구분 가능합니다. 떡갈나무와 신갈나무 잎자루가 짧은 데 비해, 갈참나무와 졸참나무는 잎자루가 깁니다. 그리고 참나무 6형제 도토리 각정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토리 민모자 3형제와 털모자 3형제로 구별합니다.



생태놀이

<거미줄 놀이>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걸어가다가 거미줄에 걸리는 경험. 거미줄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지셨지요? 하지만 거미는 왜 자신의 그물에 달라붙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거미줄은 가로줄에만 점착성이 있고 먹이가 걸리는 줄이 바로 가로줄입니다. 거미는 가로줄로 다니지 않고 세로줄(우산살 같이 펼쳐진 매끈한 줄)만 골라서 밟습니다. 거미줄은 사람의 뼈보다 단단하고 강철이나 나일론보다 질기다고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거미줄 성분의 연필 굵기 정도의 실로 짠 그물로 점보 제트기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입? 손목?

정답은 엉덩이입니다. 거미줄은 항문 근처에 있는 한 쌍의 방적 돌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거미줄을 내뿜는 종은 없고 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미줄은 거미의 거주지이자 사냥도구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거미 새끼들은 한동안 그것을 통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태 놀이 ‘거미줄 놀이’를 통해서 재밌게 거미의 사냥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줄을 이용해서 나무에 연결하고

	<p>거미줄처럼 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거미줄에 걸리지 않게 지나가는 팀원이 많은 팀으로 이깁니다.</p>
<p>칠불암</p>	<p>봉화골은 동남산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인데 남산불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솜씨가 뛰어난 칠불암 유적이 있어 유명한 계곡입니다. 신라 시대 유적으로 일곱 불상이 남아있는 곳에 근래에 와서 한 암자를 지어 칠불암이라 부르고 있는데 실상 신라 때 절 이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힘차면서도 화려한 기와 무늬며 귀인들이 기도드리고 중병을 고쳤다는 비석 조각들로 보아 이곳은 나라에서 경영하던 큰 사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칠불의 배경은 기기묘묘한 거암으로 하늘에 잇닿은 듯 드높게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돌축대를 쌓아 터를 만들고 터 위에는 서쪽 바위 면에 기대어 자연석으로 불단이 병풍처럼 솟아 있는데 이 바위에 삼존 대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존불 앞으로 4면의 바위에 면마다 여래상을 새겨 사방불을 나타내었으니 이곳 불상은 모두 칠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칠불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지내왔지만, 삼존불의 코가 조금 상했을 뿐 대체로 완전하게 남아 있으니 고마운 일이죠.</p> <p>마애삼존불의 본존불은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있는 절벽 바위 면에 돌을새김으로 새겨 남산 불상 중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존여래는 두 겹으로 핀 넓은 연꽃위에 결가부좌로 당당히 앉으셨고. 넓은 어깨를 위엄있게 펴고 양가로 조금 치켜 오른 눈은 비교적 크게 뜨고 먼 앞을 내다보며 손은 향마촉지인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향마촉지인은 마귀들의 행복을 받고 계신 모습에는 샅된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엄숙한 기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삭발한 머리 위에 육계가 끈으로 동여맨 듯이 나타나 있고 코는 길고 힘차게 나타나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 파손된 것을 시멘트로 수리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p> <p>얇은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는데 입 양가에 힘을 주어 부처님의 얼굴은 더욱 엄격하게 보이고. 큰 귀는 양어깨까지 드리워져 있고 몸체는 가슴이 좀 평평하나 전체가 직사각형으로 장대하게 솟아 있어 위엄스러워 보입니다.</p> <p>더욱 두 팔이 팔꿈치에서 직각으로 꺾여 있어 입체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편단우견으로 입은 가사의 옷 주름은 고운 곡선을 그리며 부처의 몸을 감싸고 흘러내려 엄격한 몸체에 부드러움을 보태어</p>

화기를 돋우어 주고 두 다리 위에서 흘러내린 옷 주름들이 무릎 아래에서 잔잔히 물결치듯 조각된 것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라의 불상 대좌는 보통 복련대와 앙련대 사이에 팔각중대석이 놓이는데 이 대좌에는 중대석이 없고 복련대위에 바로 앙련대가 놓여있죠. 밑으로 처진 복련대는 꽃잎이 좁고 길어 사실적인데 비해 앙련대의 꽃잎들은 짧고 넓으며 끝이 두 개의 곡선으로 그려져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협시보살은 본존여래의 양옆에 배치되어 여래의 뜻을 받들어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보살은 본존대좌의 복련대 꽃잎과 같은 모양의 연화대좌 위에 서서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집어 가슴 앞에 올려 들고 오른손은 아래로 떨어뜨린 채 정병(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 가슴 앞에 올려 든 것은 부처님의 뜻을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고 물병을 들고 있는 것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듯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이 보살의 약속입니다. 풍만하게 살찐 얼굴은 본존 쪽으로 약간 돌리고 시선도 바로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며 입은 굳게 다물었고 머리는 삼두면식(관)으로 장식하고 왼쪽 어깨에서 비스듬히 승기지가 가슴을 감싸고 남은 자락이 수직으로 물결을 그리며 흘러 내렸습니다. 두 어깨에는 보발이 덮여 있고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있고, 허리를 감싼 치맛자락은 발등을 덮고 곱게 주름 잡아 처리되었습니다. 넓은 천의는 어깨에 걸쳐 양 옆으로 흘러 내렸고 팔목에는 팔찌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왼쪽보살도 큰 복련꽃 대좌위에 서서 오른손에는 보살 연꽃을 들고 왼손은 아래로 떨어 뜨린채 천의 자락을 들고 있습니다. 흙탕물에서도 때를 타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도하겠다는 이 보살이 중생들께 약속하는 모습이 연꽃을 든 손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이 보살님도 얼굴을 본존 쪽으로 반쯤 돌리고 머리에는 삼면두식으로 된 관을 쓰고 두 어깨에는 보발이 덮여있습니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있고 승기지가 비스듬히 가슴을 감싸고 치마는 끈으로 동여매었는데 끈은 배 앞에서 나비 날개처럼 매듭을 지었고 팔목에는 팔찌가 끼어져 있고 오른쪽 보살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의 보살상은 신라 불교 미술사의 발달과정에 있어 잘 살펴 봐야 할 듯합니다. 이 보살 상들은 다리 길이에 비해 가슴이 넓고

길며 보살상의 이런 맵시는 백제 말기의 보살상에서 볼 수 있으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규암리 발견 금동관음상이나 일본 니찌다 소장인 금동관음상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보살상들은 8c 중엽에 이르러 가슴이 짧아지고 다리가 길어 몸맵시가 날씬해지죠. 석굴암 문수, 보현, 십일면관음보살상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로 미루어 칠불암 부처님들의 조성연대를 통일신라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칠불암 삼존대불 앞에 솟아 있는 네모난 바위에 면마다 부처님을 새겨 사방사불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방사불의 존명은 경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방사불에는 동방에 약사여래상, 서방에 아미타여래상이 배치되죠. 그러나 남면과 북면에 배치되는 부처님들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존명을 알기 어렵습니다.

동면에 있는 이 불상은 손에 약그릇을 들었고 동향으로 앉아 계시므로 약사여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방 아득히 먼 곳에 유리광정토라 부르는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약사유리광여래이신데 생략하여 약사여래라 부르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의 부처님으로 숭앙 받았으니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절실한 소원으로 신앙되었던 듯합니다. 서면에 있는 불상은 몸체만 돈을새김으로 나타내었고 연화대좌는 선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약사여래의 반대편인 서쪽을 향해 앉아 계신 것으로 보아 서방정토 교주 아미타여래로 짐작되며,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시 언제나 좋은 설법을 하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즐겁고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남면과 북면은 신라의 사방 불이 반드시 경전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처님의 존명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쉽네요.

이 사면석불상들은 탑골 부처바위와 마찬가지로 사방 불국정토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 바위에서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났던 불국정토들이 이 바위에서는 그 정토를 대표하는 여래 부처님들로 단순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굴불사 사면석불에서는 서방 극락 세계만은 아미타 부처님의 양옆에 관음, 대세지 두 보살을 입체로 조각하여 크게 세우고 바위에 둘러가며 좌상, 입상, 선각 돈을새김 등으로 많은 불상들을 배치하였는데 이런 것이 다시 불국사로 발전하죠. 불국사에서는 대웅전의 서쪽에 극락전을 세우고 그 앞에

	<p>구품 연못을 파고 연화교와 칠보교를 가설하여 화엄 세계의 환상을 우리 국토에 실현한 것입니다.</p> <p>석탑 옥계석</p> <p>입구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석재를 포개어 탑처럼 쌓아놓은 석재를 볼 수 있습니다. 옥개받침이 3단으로 되어있어 신라 하대 것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5단으로 된 것도 있어 통일 신라 초기의 양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신라 때 절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으나 이곳에서 발견된 경석편이나 귀인들이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는 비석편, 화려한 꽃무늬로 장식된 막새기와 조각들로 미루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운 큰 가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불상이며 탑이며 석등 하나라도 조화되는 자리에 배치해 놓은 아름다운 가람인데 지금 제자리가 변경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 유적들은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신선암 마애보살상</p>	<p>신선암 마애 보살상 마애불은 자연의 암벽에 부조, 선각 등으로 불상을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이 절벽 암면에 신비에 찬 신선암 보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절벽을 이루고 있는 이 암면은 비가와도 부처님이 젖지 않도록 위쪽 면이 조금 앞으로 나오도록 경사를 지어 깎아 내고 감실 모양으로 파서 돌을 새김으로 보살상을 나타냈습니다. 머리는 보계를 틀어 크게 올리고 그 둘레에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장식을 동여맨 끈은 머리 좌우에서 나비 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자락이 양 귀 언저리로 흘러내려 두 어깨 위에 보기 좋게 드러져 있으며 살결이 풍성한 둥근 얼굴에는 하현달 모양으로 패어진 고운 눈썹과 눈이 가늘게 새겨져 있고 가름한 코가 솟아 있습니다. 부드럽게 언덕을 이룬 두 뺨과 둥글고 풍성한 덕성스런 얼굴을 형성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화려한 보상화 가지를 들었고 왼손은 설법인을 표시하여 왼쪽 가슴에 들었습니다. 손목에는 팔찌가 끼여 있고 손과 손 사이로 승기지 자락이 보입니다. 허리에는 치마끈이 매여지고 그 자락이 의자 위로 흘러 내렸는데 왼발을 그 자락 위에 편안히 얹어놓고 오른발은 의자 아래로 내려 걸터앉아 계시는 모습이죠. 이러한 앉음 자세를 유희좌(遊戲坐)라 부릅니다. 아주 편안한 앉음 자세라는 뜻이죠. 패어진 얇은 감실은 주형광배(舟形光背)이고</p>

	<p>광배 위에는 흙이 일직선으로 패어져 있는데 이곳은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보살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이라 짐작되며 보살상 앞에 앉아 내다보면 아득한 아래 세상은 송림의 푸른 구름으로 덮여 있고 멀리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들은 하늘 위에 솟아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게 되니 내 몸은 부처님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선택해 생명을 다하여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는 소망과 정열로 불상을 세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p>
<p>마무리</p>	<p>경주 남산은 신라 시대의 불교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면서 승산신앙, 암석 신앙과 연관된 불교문화가 남산에 집중, 표현되어있죠. 오늘은 약 2시간에 걸쳐 칠불암을 오르시면서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해서 보고, 들으며 산행을 하셨습니다. 보람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p>

숲 속의 가수 개구리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습지의 소중함과 생물의 다양성을 알아보자.
해설주제	개구리의 특징 및 다양한 울음소리를 알아보자.
해설소재	개구리
운영장소	서출지
운영시기	3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초등학생 10여 명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경주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안전교육 실시 자연보호 약속하기	마이크	서출지	1
	질의·응답	숲에 살고 있는 개구리 알아보기	사진		1
주제별 해설	개구리 특징	산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무당 개구리, 두꺼비	사진		3
주제 심화	개구리 소리	숲 속의 가수 개구리 개구리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듣기	음원		3
정리	생태계 역할	마무리 및 뒷정리	-		2

해설주제	상세내용
오리엔테이션	<p>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주국립공원의 남산지구 내 있는 동남산 자락의 서출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준비(몸풀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발목 먼저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리도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목을 한 번 돌려볼까요?</p> <p>하나, 둘, 셋... 자! 출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약속을 저와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국립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생수병 등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되가져가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길가에 많이 있는 꽃이나 나무 가지를 꺾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풀 한 포기조차 함부로 꺾거나 밟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간단한 비상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친구는 제게 말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p> <p>올 여름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내려 우리 귀에 자주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네 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p> <p>개구리는 비가 오면 유난히 많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p> <p>개구리는 허파와 피부로 두 가지 숨을 쉬는 양서류입니다. 개구리 피부가 항상 젖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젖어 있어야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보다는 밤이, 맑은 날보다는 비오는 날이 개구리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쉬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개구리가 밤과 비오는 날에 울어대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랍니다. 오늘 저의 해설 주제는 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개구리의 특징과 울음소리를 비교 해 보면서 생물의 다양성과 습지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합니다.</p>
숲에 살고 있는 개구리 알아보기	<p>출발~! 자! 여기에 첫 번째 개구리가 있네요! 사실 개구리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어서 사진으로 준비 했습니다.</p> <p>우리가 만난 첫 번째 개구리는 바로 산개구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북방산개구리라고도 하는데요. 산에서 주로 살고 이렇게 온몸이 누렇게 눈 뒤에 검은 무늬가 있어 낙엽 사이에 숨어 있으면 잘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p>

	<p>개구리이고요!</p> <p>두 번째 개구리를 찾아가 볼까요? 출발!</p> <p>자! 여기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이름은 한국산 개구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애기개구리라고 하는데요, 애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에서 주로 살고 2~3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흐르는 아무르 강에서 처음 발견됐다 하여 아무르산개구리라고 불렀으나 2006년에 한국 토종개구리로 밝혀져 지금은 한국산 개구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p> <p>이어서 세 번째 개구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출발!</p> <p>자! 세 번째 개구리를 벌써 만났네요? 금방금방 찾죠? 이 개구리의 이름은 무당개구리입니다. 등은 풀색을 배는 빨간색을 하고 있어서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비단개구리라고도 불리고 독개구리 라고도 불립니다. 위협에 처하게 되면 네 다리를 바짝 치켜들어 빨간 배를 보여 주며 “나 독 있는 개구리야!” 라고 위협을 하는데요. 살갓에서 미끈미끈하고 하얀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독이 있어서 개구리를 만진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만지면 엄청 따갑고 혀에 대면 아주 매운 고추를 먹은 것처럼 혀가 아프고 얼얼하다고 해서 고추개구리 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나 새도 잘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p> <p>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구리를 찾으러 가볼까요?</p> <p>여기 있네요! 네 번째로 만날 개구리는 바로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웬만해서는 펄쩍펄쩍 뛰지 않고 느긋하게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것이 특징이죠. 전해오는 설화에는 지혜로운 두꺼비. 은혜를 갚은 보은 이야기 등. 한편 아이들은 흙 속에 주먹을 묻고 집을 짓는다고 하며 두꺼비에게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의 주변에서 표현되기도 합니다.</p>
<p>숲속의 가수 개구리</p>	<p>지금까지 저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차이점들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긴 모습과 크기는 당연히 다르고요. 알의 모습을 보면 개구리는 동글동글 알을 낳지만 두꺼비는 길쭉한 알주머니에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알로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구분할 수 있고요! 울음소리는 어떨까요?</p> <p>개구리는 어떻게 울어요? 개굴개굴 우나요?</p>

	<p>지금부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p> <p>(의성어를 적은 인쇄지를 보여주며)</p> <p>뽕오옹악 뽕오옹악(산개구리) / 꾸~옥 꾸~옥 꾸~옥(무당개구리) 똑똑똑똑 딱딱딱딱(한국산개구리) / 뽉뽉뽉뽉뽉뽉뽉뽉(두꺼비)</p> <p>개구리는 실제로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개구리입니다. 뽕악 뽕악 뽕악 뽕악 이렇게 우는데요. 가짜 같나요? 그러면 진짜 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똑같죠? 다음으로 한국산 개구리입니다. 한국산개구리는 똑똑똑똑 딱딱딱딱 이렇게 우는데요. 믿을 수 없다고요?</p> <p>진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듣고)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당개구리는요. 꾸옥꾸옥 꾸옥 이렇게 우는데요. 바로 진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듣고) 이쯤 되면 제가 잘한다는 게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두꺼비는요. 뽉뽉뽉뽉뽉뽉뽉 이렇게 우는데요. 진짜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듣고) 네! 이렇게 개구리들은 다 똑같이 개굴개굴 우는 게 아니라 다르게 운다는 걸 알아봤습니다.</p> <p>(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올챙이는 어떻게 울까요? - 정답은 그냥 뽉뽉뽉뽉)</p>
<p>마무리</p>	<p>지금까지 저와 함께 개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20여년 동안 일어난 양서류의 감소는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구상에서 개구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개구리의 먹이가 되었던 모기, 파리와 같은 벌레들도 아주 많아져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 새, 오소리, 너구리 등 많은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연은 이처럼 개구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작은 습지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리수거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환경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실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자연을 조금이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이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토함산지구

1.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무장사지
2. 토함산이 품어 안은 세계유산 석굴암
3.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4. 숨 쉬는 토함숲 길
5.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6. 왕의 길, 나의 길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무장사지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평화 메시지와 계화왕후의 간절함을 느껴본다.
해설주제	무장사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아미타불을 조성한 계화왕후의 애잔함
해설소재	무장사지 지형, 보물 제125호, 보물 제126호
운영장소	무장사지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50대 부부 모임(10명)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인사 나누기 및 국립공원 소개	-	무장사지	1	
	지명유래	명곡에서 암곡으로 불리어진 유래			1	
주제별 해설	무장사지 가람배치 형태	지리적 위치와 신라시대의 출입구			-	1
주제 심화	무장사지 3층 석탑	전형적인 신라 석탑			사진	1
	‘무장사지’라 불리어진 이야기	평화의 메시지 전달				1
	아미타여래조상 사적비	아미타불을 조성한 계화왕후의 염원			사진	2
정리	무장사지 가람배치의 시대별 구분	무장사, 탑,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	2		
마무리	마무리	사계절이 아름다운 무장사지 주변 풍경과 마무리인사	-	1		

해설주제	상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공원 소개</p>	<p>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이곳까지 오시는 데 느낌은 어떠셨나요? 산악회, 동호회 등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뵙는데 부모모임에서 이렇게 암곡을 찾아주시니 더욱 감사하고 의미가 있네요. 은근히 부럽기도 합니다.</p> <p>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국립공원 자원을 해설하는 자연환경해설사 000 입니다. 우리나라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은 제가 입고 있는 옷에 그려진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입니다. 두 번째가 경주국립공원입니다. 경주국립공원은 토함산, 남산, 구미산, 단석산, 송화산, 선도산, 소금강산. 대본 8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토함산지구 암곡 무장사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설할 주제는 ‘무장사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와 아미타불을 조성한 계화왕후의 애잔함’ 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담긴 평화의 메시지와 계화왕후의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암곡의 유래</p>	<p>어두운 골짜기 암곡! 조선 초기에는 ‘밝은 마을’ 명곡이라고 불리다가 삼국유사 기록에 ‘절이 자리한 이곳은 어둡고 그윽하여 저절로 텅 비어 순박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도를 즐길 수 있는 신령스러운 곳이다’ 하여 조선 말기에 와서 ‘암곡’이라 불리며 지명유래가 생긴 이곳 무장사지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 특성상 서향 가람배치를 보이며 좌우에는 협곡을 끼고 있고 맨 아래쪽에는 삼층석탑, 가운데는 금당, 윗부분이자 금당의 동쪽에는 아미타전을 건립하였으며 지금은 북쪽으로 출입하지만 신라 시대에는 능선 말단부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하여 찾았던 무장사지 입구에는 비례와 균형이 잡힌 높이 4.95m의 신라의 전형적인 삼층석탑 보물 제126호인 무장사지 3층 석탑은 1963년 석재를 보충하여 복원하였고 1996년 전면해체 보수하였습니다. 무장사지에 대한 이야기는 3가지 기록이 있습니다.</p> <p>삼국유사 무장사 미타전조에 의하면 신라 38대 원성왕의 부친 효양이 그의 숙부인 파진찬을 추모하여 창건하였다는 기록과 사찰의 이름을 무장사라 한 것은 태종무열왕이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는 백성들이 피 흘리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투구와</p>

	<p>무기를 숨겼다 하여 투구 무, 숨길 장, 절 사, ‘무장사’라 하였습 니다. 또한 이곳 보물 제125호인 무장사 아미타여래조상 사적비에는 애뜻한 왕후요 어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손자이 며 39대 왕인 남편 소성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아 세 상을 떠나자 왕비 계화왕후가 ‘아미타불에게 지성으로 귀의하면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재산과 재물로 미타 전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성왕과 계화왕후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인 신라 40대 애장왕은 13살에 왕위에 올라 삼촌 김연승(41대 헌덕왕)에게 시해를 당하였고 딸은 소성왕의 동생 42대 흥덕왕의 왕비 장화부인으로 왕후에 오르자마자 단명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먼저 보낸 계화왕후의 아픈 마음이 서려있는 이곳.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 순간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랫말이 생각 나네요.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는 지금 얼마인가요? 포근하고 양지바른 이곳 너른 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있는 무장사가 먼저 건립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삼층석탑이 조성되었 으며 미타전은 800년 이후에 조성되었습니다.</p>
<p>평화의 메시지</p>	<p>무장사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좌우 계곡에 흐르는 물과 함께 조용한 변신을 한답니다. 봄에는 3층 석탑 옆쪽 동백 고목나무가 하얀 꽃을 만발하게 피워 벌과 나비를 초대해 대향연을 펼치고 여름에는 계곡능선의 느티나무 참나무가 짙은 초록색으로 시원한 바람을 일어주고 가을이 되면 누리장나무의 아름다운 루비열매로 아미타조상사적비를 치장하고 겨울이면 폭신평신향 하얀 눈밭에 고라니가 발자국 도장을 찍는답니다. 14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왕후의 애뜻함이 서려 있는 무장사지 에서 더욱 부부애를 돈독히 하시고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해설을 이만 줄일까 합니다. 저는 경주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 였습니다.</p>

토함산이 품어 안은 세계유산 석굴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김희지)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석굴암의 가치성을 인식시키고 보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고취 시킨다.
해설주제	통일신라시대 신라인의 건축기술을 보고 배운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안되는 것도 된다.
해설소재	석굴암 석굴
운영장소	석굴암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운영시기	3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직장인 20명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인사 및 주의사항	심볼 그려보기	일주문 앞	1
	목표 설정	자연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보전 의 가치성을 일깨운다.	-		1
주제별 해설	석굴암의 우수성	통일신라시대 건축기술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배운다.(온고지신)	-		1
주제 심화	석굴암의 역사성과 예술성	석굴사원의 기원과 유래 본존불. 관세음보살상. 천신상과 제자상 사천왕상과 금강 역사상 팔부신중상	사진 자료		2
	석굴암의 과학성과 수학적성	궁륭천정(돛형천정) 돌못(주먹돌과 동틀돌) 지렛대원리 무게분산하학이 갖는 수학적성 돛형 건축물의 외국의 경우와 비교	사진 자료		2
정리	석굴암과 자연경관보전	아름다운 자연경관/우수한 문화자원/ 미래세대로의 보전/자연과 인간의 공생	선물		2
	마무리	동참유도/인사	-	1	

해설단계	상세내용
인사말	<p>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과 문화자원을 좋아해서 시인이 된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반갑습니다.</p> <p>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어 안은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지구를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문에서 석굴암까지 울창한 숲과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새소리와 다람쥐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건졌습니다.</p>
주의사항	<p>이곳은 해발 745m 토함산 정상 바로 아래 740m 정도의 길을, 1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석굴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동해 쪽 비탈에 미끄러운 마사토 길로 이어지므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동해바다를 구경하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요. 탐방에티켓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주 제	<p>오늘의 해설 주제는 온고지신이 되겠습니다. 옛것을 보고 새것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세계유산 석굴암을 보고 나면 우리는 뭔가를 하나는 얻어서 돌아가셔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예술적 영감이라든지, 산업아이디어 등...</p> <p>세계유산 석굴암의 석굴은 자연과의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석굴암을 보러 오가는 길에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소중함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 힐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근심·걱정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오른쪽 방향으로 나의 자랑 하나씩 얘기 하고 엄지 척을 해 주기로 해요. 그런 다음 엄지로 연결해서 잡아, 동그랗게 되면 파이팅! 을 한 번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출발~~~!</p>
주제심화	<p>어느새 석굴암에 도착했네요. 이곳은 신라인들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석굴암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석굴암으로 불리게 되었죠. 근데, 누가 이렇게 높은 곳에다 석굴사원을 지은 거죠? 오르내리기도 힘든데...</p> <p>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 시대 35대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다고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실제로 재상 김대성이란 이름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동일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굴 사원은 과연 어디서 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본래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왔어요.</p>

	<p>너무 덥고 뜨거운 인도의 자연조건은, 수행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수행하였는데 비가 오면 옷에 황토물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라마(스님)들이 황토색 승복을 입는 전통이기도 하죠. 더 나은 굴을 원하다 보니 석굴사원이 출현했습니다.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이 그 대표적인 석굴들이죠.</p> <p>인도의 차이티아식 예배굴, 비하라식 승방굴에서 출발 한거죠. 그럼, 석굴암은 예배굴의 한 형태겠지요. 중국의 운강석굴과 둔황석굴, 용문석굴로 이어지는데, 인도나 중국은 강도4 정도의 많이 단단하지 않은 사암과 화산암이라 어렵지 않게 굴을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석굴암은 강도7의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서 다듬어 직접 쌓아 만든 인공 석굴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나 중국처럼 굴을 파기가 힘들어서 화강암을 하나하나 다듬고 끼워 맞춰 석굴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것이 석굴암이죠. 이러한 석굴을 만들기 위해서 신라인들은 해박한 수학적 지식과 고도의 기하학, 과학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었기에 세계가 인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995년 불국사와 함께 등재가 되었어요.</p>
<p>주제 심화</p>	<p>석굴암의 구조는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사각 공간 전실, 하늘로 오르는 연결을 상징하는 비도, 부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 공간 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돛형 궁륭천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통일신라시대에 등장하는 돌뿔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포기를 모르던 신라인들은 결국 아름답고 완벽한 인공 석굴사원을 탄생 시키게 되었지요. 굴 안에서 돌뿔을 바깥쪽을 향해 치고 흘러내리는 무거운 돌을 잡아주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무게 분산을 시킬 줄 알았던 거죠. 마지막 뚜껑 돌은 무게가 무려 30톤이나 되었고 연꽃을 조각하여 하늘의 태양을, 부처님 머리 뒤의 작은 연꽃은 광배이나 달을 상징하기도 하구요. 조그만 석굴 안에 온 우주를 다 들여놓았지요. 더운 나라 인도에서 오신 부처님의 얇은 옷의 표현, 움직일 것 같은 손가락, 피가 도는 듯한 부처님 입술, 마치 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지 않나요?</p> <p>본존불 뒤로는 관세음 보살상과 십대 제자상, 천신상들이 둘러져 있는데, 얼마나 선이 아름다운지 감탄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부처님 생신날 하루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p>

	<p>제가 사진 파일을 준비했습니다.</p> <p>석굴암과 판테온 신전, 돔형 천정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p> <p>그럼, 신라인의 뛰어난 건축술이 살아 있는 석굴암의 실체를 보러 올라 가볼까요? 높은 계단이 힘들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계단은 수행의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고대의 신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계단을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해요. 오르내리다가 길옆에 깨진 석재들이 보일 거예요. 1910년대와 1960년대에 두 번 수리하고 깨진 돌들을 모아 둔 돌이랍니다. 신라인들의 손때가 묻어 있을 거예요. 석굴암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외관부터 둘러보면 목조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어 안개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후대에 세운 거예요. 목조건물이 없었을 당시 화강암 바닥 돌에 반사된 햇살이 어두운 굴속 부처님 얼굴에 비춰들었다고 해요. 직접채광이 아닌 간접채광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닥 돌의 온도는 일 년 내내 12°C~14°C 유지가 되어 자동 온습도 조절장치 역할을 해 주어서 내실에 이끼가 끼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수리를 하면서 물길을 돌려 버리고 시멘트를 발랐는데 이끼가 끼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 포로 쏘아서 닦아도 보고, 염산을 쏘아서 닦아도 보았는데 그때뿐이었다고 해요.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수리하면서 전실 앞에 유리로 막아 습기를 차단하고 기계장치로 자동 온습도 조절을 하여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존불의 손 모양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순간의 모습인데, 마귀를 제압하는 모습이에요. 동해구로 들어오는 왜구를 물리쳐 달라는 신라인의 염원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p> <p>왜구라면, 적이 되는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영원히 신라 땅에 머물면서 불력으로 신라를 지켜 달라는 염원으로 영구적인 돌집과 돌부처님을, 토함산 정상부 가까이에 부처님 나라 석굴사원을 만들지 않았을까요?</p>
정 리	<p>여기서 퀴즈 두 개를 풀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1. 인공석굴사원의 기원은?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p> <p>2. 석굴암 건축 기술 중에 우리나라만의 하이테크 기술이 하나 숨어</p>

	<p>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돌뿔을 사용한 것)</p> <p>지금까지 석굴암의 역사적, 예술적, 수학적, 과학적 가치성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할만한 통일신라시대 즉, 신라전성기의 최고의 걸작으로 그 조영 계획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입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소나무와 활엽수가 적당히 어우러져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 다 보이는 석굴암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잘 보전해서 미래세대로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을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에 걸터앉거나 올라서지 않습니다. 2. 국립공원에서는 내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 갑니다. 3. 산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기를 갖고 입산하지 않습니다)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5. 고성방가, 음악 소리 크게 하지 않습니다. 6. 임산물을 불법 채취 하지 않습니다. <p>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곧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잘 보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p>
<p>마무리</p>	<p>마지막으로 만약 신라인들이 서라벌의 남쪽 남산에 가서 큰 바위를 골라 석굴을 파 보았는데 화강암이 너무 단단하여 겨우 90cm 정도 감실을 파고 할머니를 닮은 부처님을 모시고는 포기했더라면 이렇게 우수한 세계유산 석굴암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문화재를 보고 또 보면 가슴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안 되는 것도 되더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통과 과거를 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미래를 보러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을 다니지요. 그럼 우리도 일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뭔가를 얻으셨나요? 계절이 바뀌면 좋은 사람들 손잡고 좋은 날에 다시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p>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자연과 소통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슬로우 탐방으로 능동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해설주제	자연순환의 원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
해설소재	토함산탐방로, 풍월도, 청마시비, 단풍, 세계유산
운영장소	토함산지구 일원 (안내거리 약 200m)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적정인원 15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경주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불국사경내	1.5
	불국사 연혁	불국사 역사 및 김대성의 설화			1
주제별 해설	석축	한국 특유의 건축기법 그랭이공법			1.5
주제 심화	탑의 유래	한·중·일 탑의 비교			1
	석가탑	한·중·일 목관 인쇄물 비교 석가탑의 균형미			2
	다보탑	목탑양식 다보탑, 다보탑의 수난			1.5
정리	마무리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의 미묘(美妙)			사진자료, AR앱

해설주제	상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 및 공원소개</p>	<p>안녕하세요. 따짜 하오, 따께호!!</p> <p>얼굴은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만 타이페이 출신인 경주국립공원 이주여성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p> <p>국립공원이 무슨 공원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에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입니다. 잘 보존된 신라문화유적, 특히 늘 구름과 안개를 머금고 토하는 토함산지구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그리고 노천박물관인 남산지구 등 총 8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바로 8개 지구 중 가장 큰 지구인 토함산지구에 있는 부처님의 나라를 품은 천년 고찰 불국사입니다.</p> <p>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설할 주제는 ‘불국사의 역사와 석조미술에 대해 알아본다’ 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경주국립공원에 있는 불국사를 통해 한국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가 볼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불국사 연혁</p>	<p>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751년 신라 경덕왕 때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므로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護國보다 孝로 절을 지었습니다.</p> <p>그런데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죽자 국가에 의하여 완성을 했습니다. 당시의 규모는 무려 80여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조선 시대 1593년에 일본의 침입(임진왜란)으로 목조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석탑을 포함한 석조물은 신라 시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의 모습은 조선 시대 그리고 1970년대부터의 대대적인 복원공사에 의해 이루어져 당시의 10분의 1만 볼 수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석축 그랭이 공법</p>	<p>지상에 세워진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평지보다 산 중턱에서 사찰을 짓는 것이 몇 배 더 어렵습니다.</p>

	<p>지는 지 1200여 년이나 되고 지진도 있었는데 불국사가 아직까지 훌륭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구 밑을 보시면 모양이 참 독특하죠. 자연석을 기초로 놓고 위에 인공석을 놓는데 자연석과 인공석이 맞물린 부분은 인공으로 다듬어 맞추는 방식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연석이 흩어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방식입니다.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목조건물에서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돌을 소재로 한 그랭이 공법은 불국사에 있는 가구식 석축과 석가탑의 하층기단이 대표적입니다. 불국사가 1200년간 지진을 견딘 비결은 바로 이 그랭이질을 이용한 내진 설계에 있었습니다. 신라인의 내진설계 지혜가 느껴지는 건축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p>
<p>탑의 유래, 양식 및 용도</p>	<p>다음은 대웅전 앞에 동서로 마주 서 있는 탑은 국보급인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합니다. 탑의 용도는 뭘까요? ‘탑’이란 원래 인도에서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스투파(stupa)’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스투파가 중국 한자어 다(塔)라고 하고, 한국에서 탑(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탑은 부처님의 유골(遺骨)인 사리를 봉안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각 나라의 자연환경에 맞게 만듭니다. 중국에는 기존 전통 누각과 융합해서 벽돌로 만든 전탑이 많고, 한국에서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일본에는 나무로 조성한 목탑이 발달하였습니다. 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또는 불경이나 불상 등 법신 사리를 넣기도 합니다.</p>
<p>석가탑 및 목판인쇄물</p>	<p>서쪽에 있는 석가탑은 1966년 보수공사 할 때 2층 탑신 안에서 사리장치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 되었습니다. 종지와 인쇄기술을 발명한 중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868년 만든 ‘금강경’입니다. 아쉽게도 이 인쇄물은 중국이 아닌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있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770년에 만든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51년에 창건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되었으니 적어도 일본보다 20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를 보아 한국의 인쇄기술과 한지의 우수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석가탑은 아무 장식 없이 입자가 굵고 단단해서</p>

	<p>다듬기 어려운 화강암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의 석탑 중에 수학적으로 볼 때 최고의 비례와 균형미를 표현한 대표적 석탑입니다. 그래서 그 후 대부분의 한국 석탑은 석가탑을 모방하게 됩니다.</p>
<p>다보탑</p>	<p>이에 비해 옆에 있는 탑은 한국의 어떤 다른 석탑과도 닮지 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다보탑입니다. 단단해서 가공하기 힘든 화강암을 목재처럼 가공하여 목조 건물의 복잡한 구조를 자유롭고도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절에는 똑같은 탑으로 2기를 세우는데 불국사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에 따라 석가여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보여래가 나타나서 석가의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에 따라, 두 여래를 형상화 해서 만든 겁니다.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때 다보탑 내부에 있던 사리장치와 기단부에 있던 네 마리의 돌사자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한국 10원짜리 동전과 여권에도 이 다보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불교 미술과 불교의 정서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p>
<p>마무리</p>	<p>중국사찰의 남해선사를 방대하고 웅장함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불국사는 섬세함과 절제된 화려함을 한 공간에 배치하면서 지극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에서 바라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다보탑 앞의 단순한 경루와 강직한 석가탑 앞의 화려한 범영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인의 대단한 디자인 감각이죠.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모든 점들이 높이 평가 되었기에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 일겁니다. 이처럼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는 이것 외에도 많은 국보와 보물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들에게 이들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고자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무료 해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스마트탐방 PARK’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으로 경주국립공원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증강현실(AR)로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p> <p>지금까지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모두 뜻깊은 불국사 탐방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숨 쉬는 토함숲 길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자연과 소통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슬로우 탐방으로 능동적인 환경교육의 실천한다.
해설주제	자연 순환의 원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
해설소재	토함산 탐방로, 풍월도, 청마시비, 단풍, 세계유산
운영장소	토함산지구 일원 (안내 거리 약 200m)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적정인원 15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소개	경주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주제소개 및 주의사항	탐방문화 에티켓	탐방지원센터	1
	토함산	토함산 테마별 탐방코스 안내 석굴암 가는길: 친목 도모 코스	지도	안내판	1
주제별 해설	등산 유래	승배의 대상 화랑의 교육: 유오산수	태백산	청마시비	2
주제 심화	청마 유치환	화랑의 후예: 시 낭독 체험 청마의 시: 석굴암 대불	시		2
		단풍나무	단풍잎체험: 인연 맺기 상록수와 낙엽수의 겨울나기 자연 순환의 원리	단풍	단풍나무
마무리	자연 순환의 원리	나무의 일생 세계유산 로고	세계유산로고		2

해설주제	상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소개 및 주의사항</p>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주가 국립공원이야?” 하고 아직도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신라 천 년의 역사와 함께 자연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벌써 반 백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반 백년을 채우고 싶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가 처음은 아니겠죠? 학창 시절 수학여행으로, 연애 시절 데이트코스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여행으로 꼭 한번은 오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숨 쉬는 토함 숲길’ 탐방에서 꼭 걸어서 가야만 보이는 토함산의 숨은 이야기를 준비하였으니 이번에는 놀라도 됩니다. 그전에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곳이 가까이 있습니다.</p> <p>이번 탐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에티켓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또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토함산 탐방로</p>	<p>산 이름이 안개와 구름을 토했다 머금었다 하여 불린 토함산은 해발 745m 정상으로 향하는 다섯 개의 탐방코스가 있습니다.</p> <p>먼저 탐이 있는 입구에서 가파른 능선 타고 쉽 없이 오르는 탐골의 체력단련코스와 토함산의 자연경관과 동해 바람을 맞으며 감상할 수 있는 추령의 사색 코스 그리고 토함산의 숨은 계곡이 있어 음이온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시부거리의 힐링 코스와 토함산 주능선을 밟고 10킬로 주옥- 보불로의 묵언 수행코스가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목 도모 코스로 오늘 탐방할 코스입니다. 입산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코로 크게 숨 쉬고 눈은 소리가 나는 곳을 훑어보면서 편하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숨 쉬는 토함산 숲길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등산 유래</p>	<p>고개 한번 들어보셔요.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p> <p>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Because it is there.(산악인 조지 말로리)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산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그저 산이 좋아서(산이 적당해서, 모든 산이 좋았다) 산에 오는 거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산이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닌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단군신화처럼</p>

	<p>대부분 시조가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바로 산이죠.</p> <p>삼국유사 기록에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정상으로 내려와 나라를 다스렸다’ 하여 산을 승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산에서 제천행사를 지내게 되다가 신라 시대 화랑이 등장하면서 산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 풍월도를 지닌 화랑이 있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여 산과 사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p> <p>신라 진흥왕이 인재양성을 위해 만든 화랑은 수련 교육과정 중에서 ‘유오산수 무원부지’라 하여 명산대천이 멀어도 다 찾아다니며 즐길 줄 알았다고 하죠. 그곳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고 이것이 국내 순수등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마 유치환</p>	<p>우리 모두 화랑의 후예로서 기분도 좋은데 시 한 수 읊어볼까요? (시 낭독)그렇다면 제가 먼저 한 수 읊어 드리겠습니다.</p> <p>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박. 목. 월.</p> <p>경주 출신의 문학가 김동리, 박목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동리 목월문학관’ 이 가까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 하나니라’ 라는 구절 들어보셨죠? 왕년에 연애편지 좀 써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p> <p>‘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의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은 원래 통영 출신으로 경주와의 인연은 해방 이후 교직 생활(1955~61)을 하면서 문학 활동을 이어 왔는데 경주에서 살다 보면 우리처럼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고 너무 행복해서 시상이 막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잠시 머물던 경주가 얼마나 좋았던지 유치환 선생님은 ‘경주 남산 기슭에 초가삼간 짓고 할망구와 단돌이 살다가 뼈를 묻겠노라’ 하였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산에 묻히게 되었는데 이듬해 1968년 가을 경주문인협회에서 그분을 위해 ‘석굴암 대불’의 한 부분을 새겨 시비를 세웠습니다. 『목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 개 돌로 누었나니』</p>
<p style="text-align: center;">단풍나무</p>	<p>여기서 놀이 하나 해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손을 잡아보아요. - 두 사람이 함께 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아보아요. - 성공하면 두 사람은 인연이 됩니다. <p>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짹 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단풍을 잡고</p>

	<p>있었습니다. 단풍나무를 Acer[아게르]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단풍(丹楓)은 나무가 찬바람을 맞으면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것을 말합니다. 가을에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광합성을 못 하는 엽록소가 분해되고 그 그늘에 묻혀 있던 색소가 노랗고 빨갱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푸른 소나무는 단풍이 든다? 안 든다. 정답은 늘 푸른 상록수라 단풍이 없는 것 같지만 2, 3년에 한 번씩, 일부분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땅속의 물이 얼지 않는 한 침엽수는 표면적이 좁아 겨울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잎이 다 떨어진 낙엽수는 어떻게 겨울나기를 할까요?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를 위해 수분 이동을 차단하고 당분을 최대한 늘어서 얼지 않게 해야겠죠. 그것이 고로쇠 수액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설탕물(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p>
<p>자연 순환의 원리</p>	<p>나무는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풍은 낙엽에서 거름이 되고 따뜻한 봄날에 다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공급과 뿌리 보온까지 해주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순환의 원리인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WOW!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했는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낌없이 버리소서! 배낭무게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등이 있겠죠. (핸드폰, 차키, 일회용품 등을 버리며) 토함 숲길을 걷고 나면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토함산중턱에 있는 세계유산 석굴암입니다. 그전에 세계유산 로고 한번 볼까요?</p> <p>등근 것은 자연을 뜻하고 네모는 우리가 만든 땅 위의 문화를 뜻합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연과 문화는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자연 순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p> <p>자~ 두 손으로 네모난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살포시 손끝을 모아보면 ♡모양이 되죠? 좋아요.</p> <p>경주국립공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생태계의 다양한 식생과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느껴본다.
운영장소	암곡, 무장사지
소요시간	2시간 30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국립공원과 탐방로 소개	<p>* 도입(화장실 쉼터)-국립공원과 탐방로 소개</p> <p>안녕하십니까?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탐방 길을 떠나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탐방의 주제는 ‘암곡의 자연경관과 지질구조 및 무장사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곡 생태계의 다양한 식생과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무장사지에서는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경주는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토함산, 남산, 소금강, 구미, 단석, 서악, 대본, 화랑, 이렇게 총 8개 지구이며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은 토함산지구 암곡입니다.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길은 총 8.9km이며 오늘 저와 함께 보물을 찾는 길은 이미 1400년 전 세계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무장사지까지 2.4km로서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가시는 동안 계곡에서 암곡의 지층을 보실 수 있고 굴피나무에서 역사를 알 수 있고 서어나무에서 대륙을 느낄 수 있으며 무장사지에서는 신라인들의 정신을 담아가는 것으로 해서 총 6개 구간으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물을 품고 있는 정상 무장봉 에서는 한반도의 지각 변동으로 인한 감동을 실감하고 가실 것입니다. 보물을 찾아 나서기 전 안전에 유의 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 볼까요?</p>

<p>무장애 탐방로</p>	<p>* 1구간(둘째 쉼터)-동·식물(봄,여름)</p> <p>암곡이라 하여 아주 좁은 골짜기인 줄 아셨죠? 생각과 달리 넓게 잘 조성된 탐방로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암곡 탐방로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2016. 9월 ‘썩쓸바람’이라고 불리는 풍속에다 비까지 동반한 슈퍼태풍 ‘차바’가 오기 전에는 노면과 계곡의 높낮이가 동일하여 계곡으로 걸어 다녔죠. 그런데 차바로 인해 불어난 계곡물로 탐방로 전 구간이 유실되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탐방을 할 수 없었기에 또다시 탐방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높이를 차별화하였고 조금 전 쉼터에서부터 0.5km 구간을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탐방이 가능한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탐방 할 수 있는 암곡 탐방로입니다.</p>
<p>변산바람꽃</p>	<p>얼음이 채 녹기도 전에 암곡에 찾아온 변산 아씨. 곱게 꽃단장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변산 아씨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한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개체 수가 적어 보존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누가 말했든가 스타는 맨 나중에 등장한다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변산아씨의 모습은 그리 긴 시간을 내어 주지 않아요. 아씨답게 봄을 얹전히 불러놓고 소리 없이 모습을 감추는 변산아씨는 꽃도 보기 어렵지만 씨앗 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p>
<p>때죽나무</p>	<p>바람 소리, 물소리를 들으려고 계곡 쪽으로 몸을 돌린 이 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 때죽나무예요. 때가 끼어 때죽나무인가? 하지만 어감과는 달리 매력적인 검은 피부를 가진 매끈한 나무입니다. 열매껍질에 독성이 있어 옛날에는 열매를 찢어 물고기를 때로 잡았다 합니다. 또 사포닌 성분이 있어 기름때를 쫓 빼준다고 때죽나무라 하네요. 대체로 어린이날이 지난 어느 날 긴 꽃대에 다섯 개의 하얀 꽃잎을 살포시 펼치면서 1개의 암술에 10개의 노란 수술이 달려 수줍은 듯 땅을 보고 피지요. 보통 열흘 남짓 진한 봄의 향기를 풍기고 9~10월이 되면 은회색 육질 안에 딱딱한 씨앗 1개씩을 담고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한 가을을 보여주는 때죽나무입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맑은 자연의 소리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p>
	<p>때죽나무 향기가 진동할 때 이곳을 하늘길을 날아오는 특별한</p>

<p>원 앙</p>	<p>친구들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 이면서 소나무와 함께 경주국립공원 깃대종인 원앙 한 쌍이 둥지를 틀어요.</p> <p>부부금슬의 대명사 원앙은 기러기목 오리과이며 수컷은 ‘원’ 암컷은 ‘앙’ 그래서 ‘원앙’입니다. 전국 산간계류에 자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원이는 잔뜩 멋을 부려 귀공자로 변신을 하죠. 앙이를 만나 사랑을 하고 짝짓기가 끝나면 화려한 장식깃은 모두 빠지고 앙이와 같은 모습에 부리만 붙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사라진 원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짝을 찾아 가는 건지 말없이 정치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무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앙이는 오롯이 육아를 혼자 담당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앙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부부금슬의 대명사의 실제 주인공은 기러기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전통 혼례 중 ‘전안례’라는 순서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 어머니에게 기러기 보에 기러기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한번 맺은 연을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기에 기러기처럼 살겠다고 사위가 장모님에게 믿음과 약속을 드리는 예절이지요. 결혼 때 선물 받은 목각 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p>
<p>후투티</p>	<p>원앙 못지않게 화려하고 렌즈 속에 담고 싶어 따라다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 맞혀볼까요? 뽕나무밭 주변에 주로 서식한다고 오디새. 머리 깃털이 인디언 추장처럼 생겼고 여름 철새며 주로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은 입구가 좁은 집을 이용하여 알을 낳고 번식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후투티‘ 후투티는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하며 성장기에는 땅강아지와 지렁이를 먹으며, 한 번 정해진 둥지는 겨울 동안 잠시 임대를 주고 여러 해 동안 한 둥지를 고집한답니다.</p>
<p>호반새</p>	<p>6월 중순 아침 호르륵 호르륵 독특한 울음소리에 저는 ‘호루라기 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귀에 익어가던 더운 여름날 나뭇가지에 먹이를 물고 있는 핑크빛 작은 새가 제 눈에들어 왔어요. 울음의 주인공은 ‘호반새’였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죠. 등 부위가 분홍색인 후투티와 달리 몸 전체가 붉은 ‘불새’ ‘호반새’도 여름에만 우리나라에 피서를 오는 여름철새 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우거진 숲속에 보금자리를 틀어 쉽사리 모습 발견할 수가 없으며 서식 유무는 독특한 울음소리로 확인 할 수 있는 숨바꼭질 새는</p>

	<p>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이며 먹이는 개구리, 담수어 등 아주 건강한 숲에서만 서식하는 환경 지표종으로 호반새의 별장도 이곳 암곡에 있습니다.</p> <p>가을 자락에 들어서면 후투티와 호반새는 내년에 또 오리라 마음 먹고 긴 여행을 떠나겠죠. 만약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 후 나의 보금자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선 황당하겠죠. 그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조용한 걸음으로 하늘길을 다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다음 보물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너 털</p>	<p>* 2구간(셋째 쉼터)-무장봉의 지질(가을)</p> <p>햇빛이 주는 선물을 받으며 암곡의 지질 보물을 발견하는 두 번째 구간입니다. 탐방로 왼편 산비탈에 안전망을 두른 곳에는 절벽 바위들이 떨어져 생긴 너덜이 있습니다. ‘너덜경’의 준말로 ‘돌들이 깔려있는 산비탈’이라는 순수 우리말이지요. 너덜에는 길동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맹독을 가진 살모사가 세 종류 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칠점사(七點蛇)는 까치 살모사로 나뭇가지와 가지로 다니죠. 그래서 탐방을 할 때는 스틱과 둥근 모자를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암곡에도 3종이 모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이유는 없어요.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주면 도망가거나 지나가도록 지켜보거나 비켜서 가면 되니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고위평탄면</p>	<p>암곡은 사시사철 어지간히 가물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장봉 지형 때문이지요. 암곡의 정상 무장봉은 고위평탄면으로 해발고도 600m부근의 정상부에서 관찰되는 지형으로 한반도 지각 융기의 증거로, 과거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 면이 지각이 융기하면서 산정부에 남은 넓고 평탄한 지형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 속이었다는 것 이죠. 실감이 나시나요? 땅이 융기하면서 지각의 변동으로 암곡 습지가 생겼고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물이 세어 나오기에 덕동호를 채우는 발원지이며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돌의 색깔로 암곡의 지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푸른 코발트색 암석으로 흐르는 물조차 푸른색으로 보이며, 4구간에서는 매끄러운 검은 돌. 습지위쪽은 밝은 황토색으로 우리나라 지질연구에 귀중한 자료가</p>

	되는 곳이지요. 여러분들도 지질학자가 되어 무장봉을 탐방하시는 동안 지층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습 지	정상인 고위평탄면에서 조금 내려오면 ‘자연의 허파’ ‘늪’ ‘빨’ ‘수렁’이라고 부르는 암곡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는 전체면적의 10%이고 70%는 역새와 샷갓초로 형성되었고 나무의 천이는 극상림인 오리나무가 주를 이루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토함산 국립공원 암곡에는 1990년 말까지 일부 지역이 목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역새가 자연 밀생하여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익어가는 가을의 멋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추석이 지나면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경주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지 입니다.
굴피나무	솔방울처럼 생긴 작은 열매가 다음 해 여름까지 달린 굴피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나무라하면 당연히 소나무이죠. 하지만 아스라이 먼 옛날 석기. 청동기시대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나무는 귀족나무 굴피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와 참나무의 막강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목책으로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의 몸체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임금의 시신을 감싸는 목관으로 이용되었던 귀족나무 굴피나무는 몽고 난을 겪고 고려 말의 혼란기와 조선의 개국이라는 역사와 함께 베어지고 불타는 흑사를 겪으면서 햇빛만 풍족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천민으로 전락한 지금은 산속에서 띄엄띄엄 자라는 굴피나무 이지만 암곡에는 큰 키의 나무로 쉽게 볼 수 있으며 흔히 굴피집을 만드는 재료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굴피집의 ‘굴피’는 굴참나무 껍질의 준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다음 보물을 찾아 출발!
암곡지명 유 래	* 3구간(여섯 번째 쉼터)-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주위 나무랑 꽃들과 많은 얘기 나누셨나요? 여러분들이 탐방 중인 암곡은 깊은 골짜기 안쪽이라 어두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암실, 암곡으로 불렸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밝아지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암곡이란 산을 세워놓은 듯 캄캄한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밝아진다’ 또는 ‘뒹아진다’는 역설적 의미입니다. 암곡을 오려면 보문단지에서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를 거쳐 꼬불꼬불 길은

	<p>달려와야 합니다. 굽이가 어찌나 긴 고개인지 그래서 이 고개의 이름은 장령입니다. 1970년대 관광 도로로 닦은 길인데 장령을 넘어오면 경주시민의 식수가 되어주는 덕동호입니다. 기와를 굽던 와요지가 있었기에 제골. 기와골. 기와굴로 불리다가 지금은 와동. 마을 지형이 떡을 찌는 시루 모습과 닮았다 하여 시루 골이라 하다가 시랫골로 변형된 시랫골. 마을 서쪽에 전각이 있고 오른쪽에 계정이라 새겨져 있어 계정마을. 덕동댐이 생기면서 수물 지구에서 이주하여 새로이 마을을 형성한 대성마을. 옛날 왕이 피난 중 왕세자가 탄생하였다 하여 왕산, 왕생이라 불리는 왕산마을. 암곡은 이렇게 5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동호 수물 지역에 고선사지가 있었고 마을 제일 안쪽에 무장사지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라통일 전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았고 이때 마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초기에는 명곡이라 하다가 조선 말엽에 암곡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방하는 암곡 탐방로는 신라 진덕여왕 때 황룡사에서 스님이 되어 의상대사와 당나라 유학길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는 깨달음을 안고 신라로 돌아와 불교를 대중화시키신 큰 스님은 누구 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효대사께서 분황사를 출발하여 고선사에 들러 혜공스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오어사로 넘어가실 때 걸었던 길입니다. 또 보부상들이 연일 현 (포항) 포구를 찾을 때 가장 빠른 길로 택했던 보부상 길. 또는 천주교 성지순례길 이라고 합니다.</p>
<p>삶</p>	<p>그 옛날 원효대사님이 이 길을 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숲속 친구들이 다니는 길을 손님, 친구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셨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걷고 있나요? 우리가 주인이고 숲속친구들이 손님이 된 현실에 낮에는 큰길을 내어주고 밤길을 주로 걷는 생태계의 자존심 왕좌. 보란 듯이 길 한가운데 배설물을 두어 영역을 표시하는 대범함. 우리나라 유일한 고양이과 야생동물로 불분명한 반점이 많으며 이마 양쪽에 흰 줄이 뚜렷하고 입 근육이 발달하여 물어뜯는 힘이 매우 강한 삶은 단독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p>
<p>담 비</p>	<p>날렵하기를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하는 담비는 나무타기를 잘하고, 잡식성이며 무리지어 살기를 하고 사냥을 할 때는 협동심을 발휘</p>

	<p>하여 호랑이한테도 덤빈다는 담비는 족제빗과로 긴 꼬리에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털을 가졌기에 사치와 부의 상징으로 사냥꾼들에게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겼죠.</p>
<p>수 달</p>	<p>삶과 담비가 땅과 나무의 강자라면 물속의 강자는 수염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물 밖으로 살짝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는 치밀함의 소유자 수달은 물과 물을 넘나들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똥은 돌 위에 살짝 놓아 둔대요. 단독생활을 좋아하며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을 하고 갈대로 만든 둥지나 바위틈, 굴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입구는 항상 물이 있는 쪽이랍니다.</p> <p>여러분, 이 아이들을 자연에서 보신 적 있나요? 밀렵과 수질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 담비. 수달은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어 빨간 명찰을 달게 된 멸종위기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아이들. 다행히 이곳 암곡에서 배설물 흔적이 발견되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될까요?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손님이 되어 귀한 흔적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p>
<p>참개구리</p>	<p>* 4구간(큰 바위)-환경 지표 종(겨울)</p> <p>오시는 동안 귀한 흔적을 찾으셨나요? 겨울이 되면 계곡은 장거리 봅슬레이 경기장으로 변한답니다. 차가운 얼음 속에는 줄줄줄 맑은 물이 흐르고 부족한 에너지를 겨울잠으로 해결하는 동물들 중에 환경 지표종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도 함께 잠을 잡니다. 참개구리는 논개구리라고도 하는데 황토색이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개구리였으며 1,000개 정도의 알을 뭉쳐서 다른 물체에 부착하지 않고 물속에서 부화하지요.</p>
<p>북방산 개구리</p>	<p>참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알을 떠다니게 두어 물속에서 부화하는 점프력이 좋은 북방산개구리는 진한 갈색에 주둥이가 뾰족하며 눈 뒤에만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p>
<p>계곡산 개구리</p>	<p>북방산개구리보다 조금 작은 계곡산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둥이가 둥글고 흑갈색에, 물흐름이 빠른 돌에 알을 붙여 물살이 센 계곡에서도 살아남는 유전자를 가진 개구리입니다. 세 종류를 우리나라 산개구리라고 하는데 몸에 좋다고 잡아먹고</p>

	<p>실험용으로 실험대로,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어 숲, 담비, 수달처럼 멸종 위기종으로 빨간불이 켜진 아이들입니다. 물과 물을 넘나들며 환경이 건강함을 알려주는 환경 감지기가 사라진다면 우리 또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p>
<p>숲의 천이</p>	<p>이 울창한 숲에 나무만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숲이란 무수한 식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숲은 산소 탱크요, 천연에어컨, 녹색 댐, 청소기, 천연아파트, 사람의 고향입니다. 인간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 최후의 승자가 되어 차지합니다. 이것을 숲의 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해살이풀이 자라고 다음엔 여러해살이풀이 자라고 그다음엔 가시가 많은 키 작은 나무에서 키 큰 나무인 소나무가 자라다 최후의 승자 까치박달, 서어나무가 온대림 숲의 대표주자가 되죠. 이것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p>
<p>서어나무</p>	<p>극상림의 대표주자 서어나무는 어원은 알 수 없지만, 서쪽에 있는 나무(서목)로 우리말로 서나무라고 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보디빌더 몸처럼 멋있는 근육과 매끈한 피부에 회색 칠을 하고 아주 멋진 몸을 자랑 하죠. 보통 나무들 나이트는 동그랗게 생겼지만, 서어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양분을 많이 받은 부위와 적게 받은 부위 차이가 나겠죠? 열매는 손가락 길이만한 대공에 이삭처럼 밑으로 길게 늘어지고 긴 손톱같이 생긴 포엽이 수십 개가 붙어있고 쌀알 크기의 씨앗이 포엽 밑에 숨어있습니다.</p> <p>서어나무가 숲의 최고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장수하늘소 때문입니다. 장수하늘소는 1968년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해에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수하늘소 종은 9종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데 장수하늘소만 유일하게 아시아에 분포해 과거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종으로서 생물 지리학적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하늘소 성충은 신갈나무 줄기의 흑같이 나온 부분의 수액을 빨아먹고 살지만 유충은 죽은 서어나무를 갉아 먹고 산다고 하네요. 아직 서식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멋있는 남자나무 서어나무 군락지가 있고 신갈나무가 있는 암곡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p>

<p>국립공원의 정의</p>	<p>* 5구간-무장사지 입구 넓은 공터</p> <p>624m 높이의 무장봉은 많은 것을 품고 있네요.</p> <p>계곡에는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속에 작은 풀꽃부터 멸종 위기 종.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특산종. 중매쟁이 작은 곤충들 까지 생태계가 살아있는 이곳 암곡이 국립공원 인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구동성으로 “참 좋아요! 또 와야겠습니다.”라고 하시며 함박웃음을 짓고 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을까요?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지역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 관리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도모를 하는 곳’을 말하죠. 이런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고 즐기려면 우리들이 먼저 보호하고 관리하여야겠죠?</p> <p>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그린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여 자연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고 누구나 다 실천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하실 수 있죠?</p>
<p>무장사지 유래, 삼층석탑, 사적비</p>	<p>* 마무리-무장사지 유래, 사적비, 삼층석탑</p> <p>암곡 탐방지원센터에서 10번의 물길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무장사지입니다. 옛길은 왕산마을을 출발하여 12개울을 더러는 신발을 벗고 건넜다고 합니다. 무장사지는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 특성상 서향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좌우 협곡을 끼고 있고 능선 말단부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이용하여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맨 아래쪽에는 삼층석탑, 가운데는 금당, 윗부분이자 금당의 동쪽에는 미타전을 건립하였습니다. 무장사지에 대한 이야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종무열왕이 더 이상 백성들 피를 흘리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투구와 병기를 골짜기에 감추었다 해서 투구 무(鑿). 숨길 장(藏). 무장사. 2. 신라 38대 원성왕의 부친으로 명덕대왕으로 추봉된 대야간 효양이 그의 숙부인 파진찬을 추모하여 창건하였다는 기록과

	<p>3. 39대 소성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왕비 계화 왕후가 ‘아미타불에게 지성으로 귀의하면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재산과 재물로 미타전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p> <p>고려시대 까지 절은 남아 있었으나 미타전은 허물어졌고, 조선 영조 때 경주부윤 홍양호가 무장사에 관리를 보내었을 때는 암자와 같은 건물과 스님이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며 또 1871년 무장사를 찾았던 김정희가 비편을 새로 발견한 뒤 옮겼다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 19세기 초에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무장사 아미타여래조상 사적비의 보물 제125호 이수와 귀부가 남아 있고 비석을 놓는 자리에는 십이지신상이 네 면에 양각되어 특이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깨어진 이수에는 승천하지 않은 용이 여의주를 잡고 있어 태종무열왕릉비 이후 이수가 남아 있는 사례가 없어 이수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입니다.</p> <p>보물 제126호인 무장사지 삼층석탑은 상층기단에 우주와 탕주를 두지 않고 각 면에 두 개씩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 독특한 석탑양식으로 1963년 복원된 것입니다. 주변에는 미타전으로 추정되는 석등의 옥개석과 10여개의 초석이 남아 있습니다.</p> <p>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가침 선 3.8선의 판문점에서 남북 수장이 만나 기념식수를 하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시각 이미 14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구와 무기를 숨기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라는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곳 무장사지에서 더욱 통일과 평화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세계 평화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p>
<p>마무리</p>	<p>이곳까지 오면서 변산아씨가 봄을 열어주었고, 후투티와 호반새의 간절한 바람으로 여름을 보냈고, 무장봉 역새로 가을을 담고, 봄슬레이 경기장 밑에서 잠을 자는 산개구리들로부터 겨울을 지내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지구 암곡의 느낌은 어땠나요? 남은 일정도 즐겁고 안전한 탐방이 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암곡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탐방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p>

왕의 길, 나의 길.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신문왕의 행차길 위의 우리역사 알아보기, 자연보호의 중요성 알아보기
운영장소	수렛재, 세수방, 불령봉포, 용연폭포
소요시간	3시간 30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만남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p> <p>오늘 신문왕 행차 길을 여러분과 함께할 첫 번째,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토함산지구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사찰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해설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찰 문화재 중심의 해설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탐방 서비스 다양화 차원에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현장 해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고, 역사 문화와 동식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신문왕 행차 길을 대상으로 해설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p> <p>오늘 여러분들이 탐방하실 지역은 경주국립공원 중에서도 토함산 지구에 해당하며, 저희와 함께 걷게 될 구간은 모차골에서 용연폭포까지 3.9km이고, 총 6개 지점에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해설에 앞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스트레칭~)</p> <p>안전에 유의하시고 산행 도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출발해볼까요?</p>
	<p>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바로 토함산이죠? 토함산을 왜 토함산이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알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토함산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자면 신라 제4대 탈해 이사금의 또 다른 이름인 토해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도 있고 항상 안개와 구름을</p>

<p>1지점- 왕의 길, 나의 길</p>	<p>머금고 삼키고 토하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토함산에는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등 많은 사찰이 있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토했다가 머금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걷게 될 이 길은 신문왕과 관련이 있는데요. 신문왕은 삼국통일 직후 문무왕의 뒤를 이어 681년 신라 제 3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국가 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의 난을 종결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문왕 이후 통일 신라는 국가의 전성기와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p> <p>이 길은 그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이 잡든 대왕암을 가기 위하여 지나갔다고 하여 신문왕 행차길이라고 불리는데, 신문왕의 행차와 불교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많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과거 신라의 역사, 신화를 새롭게 만나고 자연이 주는 고마움과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1300년 전 신문왕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오르내렸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신문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왕의 길을 거닐면서 앞으로의 나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색에 잠겨 자연을 느끼면서 2지점에 도착하는 동안 길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도 마음에 담아 주세요. 그럼 다시 출발해 볼까요?</p>
<p>2지점- 인연 맺기</p>	<p>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이 멀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생각에 잠겨 그 길이가 짧게 느껴진 분도 있고, 길~게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같은 길을 걸어오는 데도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의 물길을 지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열두 개의 물길을 지나왔답니다. 그렇다면 그 물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앞사람이 가는 데로? 아니면 물이 싫어서 다른 길로? 혹은 물을 그대로 밟고?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죠. 이 길을 걸으면서 헤쳐 왔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길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잘 헤쳐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온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있었나요?</p>

<p>2지점- 인연 맺기</p>	<p>어떤 거였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나무예요. 아주 울창하고 크죠?</p> <p>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네. 이 나무는 산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아주 예전부터 오랜 세월 우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죠. 예전에는 해마다 봄이면 누에를 쳤죠. 알에서 나온 누에는 뽕잎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1개의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최소 1,200m 명주실은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었답니다. 누에치기는 4~6월 3개월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뽕잎을 따러 가야했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남녀노소 모두 뽕잎을 따러 가기 때문에 짝꿍했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뽕잎도 따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위서동이전에 누에를 치고 비단옷을 짜서 해 입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삼한 시대 이전부터 양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삼국사기에도 신라 제1대 박혁거세 17년에는 임금이 직접 6부 마을을 돌면서 누에치기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p> <p>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맛있는 간식거리고, 뽕잎을 먹은 누에는 그 자체가 약입니다. 나무껍질은 단단하고 질겨 잘 썩지 않아 밤나무와 함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패를 만들기도 했고요, 뽕나무가 썩으면 귀하디 귀한 버섯도 나서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뽕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면, 저에게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이에요. 저는 우리 남편과 백년해로하고 싶은데요~ 부부 금슬, 백년해로하면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빠지지 않는 대명사가 있죠. 바로 원앙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혼수로 원앙을 수놓은 원앙금침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대만에는 아이의 턱받이에도 이렇게 원앙을 수 놓았더라구요.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나무와 함께 경주국립공원의 깃대종이기도 합니다. 수컷은 원 암컷은 양 그래서 원앙이라고 한답니다. 예로부터 부부 금슬이 좋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래동화에서 두꺼비가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튼튼하고 복을 많이 받길</p>
-----------------------	--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두꺼비는 이제 주위에서 잘 볼 수가 없지만 다행히 국립공원에는 많이 살고 있죠. 두꺼비는 피부가 울퉁불퉁 돌기가 있으며 팔다리가 짧고 근육과 물갈퀴가 더 발달하여 행동이 둔하답니다. 생김새가 예쁘지 않으며 늪지에서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데 피부에 독이 있습니다. 두꺼비나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죠. 바로 뱀입니다. 뱀 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싫어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에서 뱀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니까 뱀을 다 잡았더니 이듬해 농작물의 소출이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바로 쥐 때문이지요. 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뱀 1마리가 통상적으로 쥐를 100마리 정도 잡아먹는데요. 그런 뱀이 사라지니 쥐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생김새만 보고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따뜻한 눈길로 뱀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뱀은 바로 우리가 보통 꽃뱀으로 알고 있는 유혈목이입니다. 꽃뱀, 이름만 들어 보아도 어떻게 생겼을까 짐작이 되죠. 우선 화려합니다. 숲속에서도 계곡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9~10월에 짝짓기하고 이듬해 7~8월 초에 10~20개의 알을 낳아요. 보통 유혈목이는 독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혈목이도 독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혈목이의 독은 유혈목이가 두꺼비를 잡아먹고 잡아먹은 두꺼비 독을 자신의 독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혹시 산행을 하시다가 뱀에 물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뱀을 잡아 독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국을 살펴보면 독이 없는 뱀은 말발굽 모양의 물린 자국을 보이지만, 독사는 말발굽 모양의 물린 자국 앞쪽에 두 개의 뚜렷한 이빨자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뱀에 물린 경우 독의 확산을 막으려면 물린 부위에서 5~10cm 정도 심장 쪽에 가까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끈이나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p>이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짝 조이게 되면 오히려 상처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뱀에게 물린 주변의 장신구는 모두 제거하도록 합니다. 물린 부위는 미지근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 내고, 얼음찜질이나 알코올은 뱀의 독을 더욱더 쉽게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먹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p> <p>뱀에게 물린 위치를 심장보다 아래쪽에 두면 심장으로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 대신 물린 부위가 더 부어오를 수도 있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면 부기는 덜하지만 독이 빨리 퍼질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물린 부위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함께 가지죠~</p> <p>짜 정하기~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짝을 지어서...</p>
<p>3지점- 수렛재</p>	<p>이제 세 번째 해설지점인 수렛재에 도착하셨습니다.</p> <p>오늘 여러분이 탐방하는 이 길의 이름은? 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이 잡든 대왕암을 가기 위해 지나갔다고 해서 신문왕 행차길 즉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에 걸맞게 이 길의 주요 지명들은 행차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이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타고 갔겠죠? 바로 수레입니다. 수레가 넘어갔다고 하여 수렛재라고 한답니다.</p> <p>그리고 맨 처음에 오늘 탐방하실 길은 모차골에서 용연폭포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러면 왜 모차골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바로 마차가 지나갔다고 하여 모차골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마차가 지나갔으면 마차골이지 왜 모차골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은 한글에서 없어진 字母 중에 ‘아래아’가 있는데요.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 ‘ㅏ’ 발음을 ‘ㅓ’로 소리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차골’도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렛재를 넘어가면 지금까지 평탄했던 길이 경사가 급해지는데요. 경사가 급해지면 수레를 끌던 말이 넘어 질 수도 있겠죠? ‘말이 넘어졌다’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말이 구불러 떨어졌다’고 해서 수렛재를 넘어가는 곳을 ‘말구부리’라고도 합니다. 한국말이 정감이 가지 않나요?</p> <p>여기까지 오시면서 길 위에서 어떤 흔적을 보셨나요? 네. 인간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흔적을 남기지만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남기는</p>

흔적은 발자국과 배설물입니다. 이 길은 하룻밤 사이에도 많은 야생 동물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주로 길 가운데에 흔적을 남기는 야생 동물은 누구일까요? 멧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듯한데요. 덩치 큰 멧돼지가 호랑이 없는 골에 왕이 된 줄 알지만 사실 겁이 많아 일반적으로 큰길에 나와 영역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동물은 한국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동물인 담비입니다. 최상위 포식자 하면 호랑이나 표범 이런 동물을 상상하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사업(害獸驅除事業) 명목으로 닥치는 대로 잡아가 현재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이 되었답니다. 그럼 몸길이 50~60cm, 몸무게가 2~3kg, 덩치가 작은 담비는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가 될까요? 외모가 무섭지도 않고 귀엽게 생긴 노랑 목도리 담비의 동작은 매우 민첩합니다. 발바닥 한가운데에는 미끄러움 방지 역할을 하는 역센 털이 있어서 땅도 잘 달리고 나무도 잘 타기 때문에 천적을 잘 피할 수 있어서 호랑이가 사라진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이름의 기원도 여럿이 모이면 호랑이한테도 덤빈다고 해서 ‘덤비’에서 나왔다고 하니 대단하죠?

담비 한 무리가 연간 고라니 9마리와 비슷한 수의 멧돼지를 잡아먹는데 이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행동반경도 다른 동물에 비해 10~20배 넓습니다. 게다가 담비는 자기가 먹은 열매 씨앗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되니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아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전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털이 부드럽고 광택과 보온성이 좋다고 무작위로 잡아버려 현재는 보기 어려운 멸종위기종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토함산지구에는 담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하죠? 네~ 나는 놈 있다!! 방금까지 육지의 길을 걷는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육상의 동물들을 내려다보며 넓은 하늘길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숲속의 사냥꾼이자 최상위 포식자인 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는 망원경 렌즈 같은 눈과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작은 포유류와 조류 같은 먹잇감을 잡아먹습니다. 산 정상에 키 큰 나무 위에서 먹잇감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게 참매의 특기입니다. 짧고 넓은 날개와 제법 긴 꼬리를 가진 참매는 나무 사이에서도 자유자재로 날 수가 있어서 꿩 사냥에 널리 애용한 한국 텃새입니다. 반면에 작지만 맹금류에 속하는 새매는 낮은 산이나 숲속 나뭇가

	<p>지에 등지를 틀고 작은 새, 쥐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습니다. 성격이 예민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남의 등지에 알만 낳고 품지도 키우지도 않는 일명 ‘탁란’을 잘하는 삿갓 삿갓 삿갓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삿갓이 쉽게 탁란할 수 있는 것은 맹금류 새매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작은 새들이 삿갓을 새매인 줄 알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군요.</p> <p>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한 포식자로서 참매와 새매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엄격한 규제와 보호를 받고 있는 맹금류로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역시 결국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먹잇감은 줄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다행히 경주 국립공원에서 참매와 새매의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현재 우리가 걷고 있지만 과거에도 누군가가 걸었던 길이고 미래에도 누군가 걸어갈 길 일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길이자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p>
<p>4지점- 세수방</p>	<p>여러분이 말구부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지나가면 땀범벅이 되겠죠? 이 때 땀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은 바로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수종릉을 참배하러 오갈 때 손을 씻고 쉬어갔다고 하는 ‘세수방’입니다. 지금은 물이 너무 적어 왜 세수방이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는 과거에 비해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참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또한 조선 제23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묘에 쓸 제수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숲을 굽던 터가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어요. 이는 참나무들이 많아서 참숯 재료를 충당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쪽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산에 불을 지피,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농사를 짓는 화전농업(火田農業)을 하는 화전민들이 살았던 흔적인 돌로 쌓은 축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때때로 자연체험 놀이도 진행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체험</p>	<p>휴식 및 자연체험놀이</p> <p>체험1. 가방을 털어라 두 팀으로 나눈 후 각 팀별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바닥에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늘어진 물건을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 길이가 긴 쪽이 이겼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길이가 짧은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보통 산행을 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하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포인트 제도와 배낭 무게 줄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국립공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p> <p>체험2. 자연물을 이용한 나만의 갤러리 자연물을 이용한 이야기를 담은 액자 만들기입니다. 나뭇가지로 면을 연결해서 액자를 만들고, 그 안에 나만의 이야기를 자연물로 표현합니다. 여러 개의 액자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작품으로 표현 되도록 합니다. 완성된 후 각자 작품에 관한 설명을 하고, 함께 공유합니다.</p> <p>체험3. 명상 도심에서 벗어나 숲속 자연의 소리와 함께 심신을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5지점- 불명봉표</p>	<p>여기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거진 숲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낙엽과 열매를 살펴보면 잣이나 솔방울 같은 침엽수와 도토리, 오리나무 같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래된 숲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는 혼성림이기 때문이고 보기 드문 독특한 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단계별 힌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주로 나뭇가지 위에서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2단계 서식처가 나무에 난 구멍이나 나뭇가지를 엮어 동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올빼미, 부엉이가 천적이고 땅 위에 최상위 포식자인 담비,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p>

3단계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기다란 꼬리처럼 아래로 늘어뜨린 꽃줄기이고 이외 새싹, 나뭇잎, 씨앗, 견과류, 과일을 먹습니다.

4단계 행동이 재빠른 사람을 보고 '이것' 같다고 하죠? 바로 하늘다람쥐입니다. 앞 뒤다리 사이의 피부(비막,활강막)를 넓게 펼쳐서 하늘을 나는 독특한 다람쥐,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날다람쥐라고도 했지만 한 뼘 정도 크기의 하늘다람쥐와

그보다 세배 정도 크기의 날다람쥐(자이언트날 다람쥐)와는 엄연히 다른 종류입니다.

낙하 수준이지만 그 거리는 최대 100m라니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늘다람쥐는 한반도내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되고 2012년 멸종위기 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상식하나. 절먹이동물 중 완전한 날개로 비행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 없다? 박쥐뿐입니다.

그렇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뭘까요? 예전보다 숲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인위적인 가지치기하며 주변의 식생 제거하거나 고사목 제거하는 등 인공림으로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벌레가 살기 좋고 그 벌레를 잡아먹는 딱따구리가 구멍 내기 좋으며 그 구멍은 누군가의 둥지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먹잇감이 풍부하더라도 고사목이 사라지면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겠죠.

저기 하얗게 줄이 쳐진 곳이 보이나요? 이곳은 지역민의 생산적인 소득을 위해 외부인 송이 채취 금지구역입니다. 산에는 정해진 주인이 있다? 없다? 옛날부터 대한제국까지는 산림소유권이 분명치 않았습니니다. 왕실에서 관리하던 금산(출입금지된 산) 봉산(벌목금지된 산) 태봉산(왕실의 태를 묻어 출입금지된 산) 등 제외하고 나라의 허락 없이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경주국립공원 지도에서 보면 토함산지구 동태봉산이 있습니다. 봉산은 특별한 목적으로 보호 또는 구제를 했었는데 세종 때 봉산 가까이 주거를 금하게 하고 3년마다 파견 근무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등 지금의 녹색순찰대 활동기록이 있습니다. 또 영조 때 봉산지역의 산허리 위로는 벌목과 화기 금지하게 하고 베지 못하게 한 나무가 대부분 소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베는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그루 베는 자는 곤장 100대, 산지기 80대 그 관리인 40대, 열 그루 이상 베는 자는 곤장 100대는 기본이고 전 가족을 변방으로 쫓아 보내고 산지기는 군인으로 관리인은 파면하였다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 전해집니다. 현재에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중처벌될 만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연공원법 27조1항 위반 시 3년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지금처럼 나라에서 관리·감독을 하였지만 출입 금지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석이 여기 있습니다. ‘연경묘 향탄산인 계하 불령봉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경 묘소에 제향할 때 필요한 향탄, 숲을 공급하기 위한 산으로 임금의 허락 하에 벌목을 금지하는 봉표를 세웠다. 왼쪽 옆에는 신묘년 시월은 조선 순조 1831년에 해당하는 건립연도와 관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경묘는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묘호입니다. 효명세자하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세자, 조선의 마지막 희망,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그 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순조는 어린나이 11살에 갑자기 왕이 되어서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과 주변 세력에 휘둘리게 되어 제대로 된 정치 한번 못하게 됩니다. 이때 타고난 재능과 성품을 갖춘 아들 효명세자는 순조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대리청정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아들 효명세자는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민생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외척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왕권회복을 위해 독창적인 정치를 하였는데 그것이 예약입니다. 궁중 잔치라 하여 요란스러운 것 같지만 한나라 왕과 왕비의 탄신일, 왕위즉위기념일에 궁중연회를 크게 열어 자식 된 도리, 즉 효를 내세우고 부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였습니다. 성리학에서 예약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 군주가 아니겠는가 하여 직접 창작, 무대연출, 감독까지 관장하며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인 모를 병으로 대리청정 3년 3개월 만에 22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들 잃은 순조는 ‘슬프고

	<p>슬프도다... 60일이 지나서도 너는 아직까지 잠들어 깨지 않고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천하의 슬픔 가운데 자식 없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 하며 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이곳은 신라시대 신문왕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었고 조선시대 순조는 아들을 생각하며 이 길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누굴 생각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부지~) 다시 남은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p>
<p>6지점- 용연폭포</p>	<p>이제 '왕의 길, 나의 길' 마지막 구간입니다.</p> <p>이 산은 숲이 우거져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다 하여 달을 머금은 산, 함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인은 오래전부터 숲을 신성시 여겨 왔습니다. 신라왕의 탄생 설화가 있는 남산의 천경림과 월성의 시림, 신이 노닌다는 낭산의 신유림 그리고 이곳입니다.</p> <p>이곳에서 불법을 수행하던 곳으로 인도에서 온 광유스님이 임정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이후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인도 기원정사의 숲과 같다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는 원효대사께서 기림사라고 고쳐 불리게 됩니다.</p> <p>여러분이 생각하는 숲은 어떤 곳인가요? 쉼터, 힐링, 성장, 완성. 산길 따라 물길 따라가는 길은 결국 문무대왕릉으로 이어집니다. 신라30대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노략질하는 왜구를 막아내고자 진국사를 짓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평소에 유언대로 불법식으로 화장한 뒤 동해에 장사지내니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었습니다. 신문왕은 부왕의 뜻을 받들어 절을 완성하게 되고 호국용을 위한 절로써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 하여 절 이름을 고쳐 감은사라 하였고 그 용이 나타난 곳을 기념하여 이견대를 지어 동해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p> <p>이제 곧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폭포 하면 물을 좋아하는 용과 관련 있는 전설이 꼭 있죠. 가까운 주왕산 용추폭포, 지리산 구룡폭포, 설악산 용소폭포, 비룡폭포 등 국립공원이자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경주국립공원에 있는 용연폭포는 『삼국유사』권2 기이2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2년(682) 해국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으로부터 옥대와 대나무를 얻은 후 기림사 서쪽 냇가에서 쉬어 가는데 소식을 기다리던 태자가 달려와 옥대를 보고 말할길 옥대의 장식은 모두 진짜 용이라고</p>

	<p>하였지요. 신문왕이 옥대의 한 조각을 떼어 계곡물에 놓으니 바로 살아있는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곳은 폭포와 함께 큰 못이 되었고 그곳을 '용연'이라 하였습니다.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 그때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상상할 수 있는 절경을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p> <p>이렇게 청정하고 수질이 맑고 깨끗하다 보니 당연히 귀한 친구가 살고 있겠죠. 그 옛날 새끼용은 승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걸까요? 바로 독중개입니다. 여름에도 수온 20도 이하의 하천 상류 중에서 물살이 센 곳에 주로 서식하는데 한국 고유종인 냉수성 민물 고기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이어서 폭염경보가 뜨면 바위 밑으로 더 깊이 숨어 버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태환경의 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용연폭포 일대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물 매운탕 좋아하시나요? 하천 하류에서 흔히 보는 민물고기이지만 언젠가는 독중개처럼 보호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답니다.</p> <p>이처럼 맑고 깨끗한 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식생을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벼랑 끝에 짙은 틈을 틔운 야생화가 보일 겁니다. 봄이면 새순이 돋아 가장 아름다운 봄의 야생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에도 더 푸른 잎에 빛나는 고란초입니다. 떠다니는 수증기를 받을 수 있는 강가 절벽이나 갈라진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깎아지른 벼랑 끝에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p>
<p>마무리</p>	<p>왕의길 마지막으로 용연폭포는 떨어지는 물줄기가 모여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우리마음까지 정화시켜 주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산에 있는 계곡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겠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가까이 있어 느끼지 못했던 주변 환경까지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p> <p>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보이지 않는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내가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우리나라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주국립공원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시내권

1. 대릉원 (발굴-허가 받은 도굴)
2. 오름 따라 흐르는 역사 이야기
3. 운치 있는 왕릉에서의 힐링
4. 동궁과 월지를 통해 신라 옛보기
5. 신라 왕릉 투어
6. 벚꽃 엔딩
7. 경주의 별, 첨성대
8. 신라의 별을 따라서
9. 천년의 숲으로 떠나는 경주국립공원 여행



대릉원 (발굴-허가받은 도굴)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우리 문화재의 수난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본다.
해설주제	잃어버린 문화재를 왜 가져와야 하는가?
해설소재	천마총, 옥포총
운영장소	대릉원 후문 일대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고등학생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나누기	그림자료	대릉원 후문	0.5
	약속	탐방 시 주의사항			0.2
주제별 해설	대릉원	왜 대릉원인가?			0.3
주제 심화	능(릉),총 구분하기	고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2.5
	옥포총	옥포총이란?			2.5
	우리 고분의 수난	발굴 - 허가받은 도굴			2
정리	문화재 반환	잃어버린 문화재를 왜 되찾아야 하는가?			1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인사 나누기			1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사	우리나라 22개의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인 이곳 경주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000 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온이 차지만 야외활동하기엔 무리가 없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혹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 대릉원인가?	신라를 두고 흔히들 천년의 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9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6분의 임금이 등장 하구요, 그중 13번째 임금이 미추왕인데 “미추왕이 죽어 대릉에 장사지냈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해 미추왕의 무덤이 있는 이곳이 대릉원이 됩니다. 여기 후문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을 노동, 노서 고분군이라 합니다. 원래는 같은 구역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가운데 도로가 생기면서 행정구역 명칭상 도로 건너편은 노동동, 노서동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릉, 총 구분하기	일제 강점기 때 고분 중 봉분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분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를 붙여 식별하게 되는데 1호에서 155호분 까지. 마지막 155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총입니다.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가 출토되어 천마총이라 부릅니다. 천마총, 황남대총, 검총 이렇듯 어떤 무덤에는 총, 어떤 무덤에는 릉이란 글자를 붙여 주는데 고분을 발굴하게 되면 그 고분의 주인공, 즉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 고분의 특징이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대표되는 유물의 이름을 붙이고 끝에 총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해 00왕의 무덤이라고 하면 굳이 발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에는 능(릉)이라 붙여줍니다. 무열왕릉, 선덕여왕릉처럼요. 무덤 속 주인공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옥포총이란?	노동, 노서 고분군에는 발굴 전에는 약간의 봉분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발굴 후에는 복토 즉 흙덮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조차 없어 고분의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옥포총이라는 무덤인데, 총으로 끝났네요? 그럼 옥포가 뭘까요? 옥포총이 있었던 곳에는 당시 경주 관아에서 관기로 있다가 은퇴한 박옥포라는 70세의 늙은 기생이 운영하는 주막이 있었고 그 집을 옥포집이라 불렀습니다. 당시(1924년) 경주 암곡상 2명이 공동으로 쌀이나 여러 가지 곡식을

	<p>사고파는 미곡상을 운영하기 위해 박옥포로부터 옥포집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쌀 창고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때 땅속에서 철 파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 고분이라 추정되니 발굴 협조를 신청합니다. 땅속 유물에 눈이 먼 일본은 당연히 금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발굴을 했는데 내세울 만한 유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발굴은 했으니 고분의 이름은 붙여야겠고 그래서 옥포집이 있었던 자리이니 그냥 옥포총이라 하자! 관기 박옥포의 이름이 그대로 무덤 이름으로 붙여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p>
<p>우리 고분의 수난</p>	<p>신라 고분뿐만 아니라, 가야·백제 고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고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도굴이나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경찰이 지나가는데 꼬마아이들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그 구슬이 옥구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알려준 곳에 큰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서 금관을 비롯한 금제 허리띠 등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관총이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고분 속에는 황금 보물이 가득 들어 있을 거라 예상하고 마구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굴에 대한 이유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술적 발굴’이라고! 허가받은 도굴인 거죠. 우리 정서에 비추면, 물론 합법적 절차에 의한! 그리고 구제 성격의 발굴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허가된 발굴에 의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대 금관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p>
<p>문화재 반환</p>	<p>우리는 일본에게 끊임없이 반성과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미국 예일대학교에게 잉카문명 마추픽추의 유물을, 칠레는 대영박물관에게 마오이석상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환을 거부하는 공통적 이유가 <이건 특정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 즉, 전 인류의 것이다>라는 제국주의적 주장, 더불어 하나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다 돌려줘야 하는 도미노 현상, 그러다 보면 박물관 소장품은 줄어들고 관광수익도 줄어드는 현실적 계산 등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600년 동안 자신들을 통치했던 덴마크에 25년 동안 협상하고 26년 수행 기간을 거쳐 책, 고문서 등 거의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약 18만여점!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이자 국격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콘텐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왜 되찾아야 할까요?”</p>

	<p>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차가운 날씨 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

오릉 따라 흐르는 역사 이야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박지영)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신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소나무 숲에서 역사 놀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과 신라의 역사를 함께 즐긴다.
해설주제	오릉의 역사를 알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해설소재	박혁거세, 알영부인, 송덕전, 주령구 등.
운영장소	오릉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초등학생 수학여행 단체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마이크	오릉 주차장	1	
주제별 해설	유래	오릉의 유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능, 총, 묘, 분 구분	사진	오릉	2	
		박혁거세 신화				1
		송덕전				1
주제 심화	특징	알영부인 신화		알영정	1	
		주령구 놀이	주령구	오릉 주차장	2	
마무리	마무리	우리 역사 관심 가지기			1	
	인사	평가지 작성 재방문 권유	평가지		1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여행으로 온 00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설레네요. 경주는 옛날 어느 나라의 수도였나요? 신라! 신라 천 년의 도시인 경주의 시조를 찾아 다 같이 떠나봅시다. 오릉은 어떤 곳인지, 오릉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자가 주제입니다.</p>
오릉의 유래	<p>신라의 시조가 되는 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왕의 무덤이 다섯 개라 하여 오릉이라고 하는데요, 오릉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왕 네 분(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과 혁거세의 왕후인 알영 왕비까지 다섯 분의 능이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를 보면 혁거세왕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7일 만에 땅으로 떨어졌고 시신은 이상하게도 다섯 토막이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신을 한곳에 모아 장례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신이 떨어진 장소마다 무덤을 만들어 ‘오릉(五陵)’이라 부르며, 뱀이 방해한 무덤이라고 ‘사릉(蛇陵)’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혁거세이죠. 각각의 무덤이 어느 왕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박혁거세의 무덤은 이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오릉 사진) 이곳을 1대, 2대, 3대, 5대, 알영 왕비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p>
능, 총, 묘, 고분	<p>여기서 잠깐! 무덤은 똑같이 생긴 무덤일지라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p> <p>능: 임금의 무덤 또는 왕비의 무덤. (경애왕릉, 삼릉)</p> <p>총: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규모가 큰 무덤. 지배층의 무덤으로 생각되며 유물이나 그 무덤의 특징을 이름으로 사용. (천마총, 황남대총)</p> <p>묘: 임금과 왕비가 아닌 자의 무덤. (김유신장군묘)</p> <p>고분: 유물도 없고 주인도 모르는 옛 무덤. (1호분, 2호분 등)</p> <p>이제 이름만 들어도 어떠한 무덤인지, 발굴한 무덤인지 알 수 있겠죠?</p>

<p>박혁거세 탄생설화</p>	<p>바로 앞에 보이는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름은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오릉은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있는 나정에서 500여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여 이곳을 박혁거세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인만큼 그의 탄생은 신비하고 특이합니다.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설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p> <p>어느 날 6부 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여섯 마을을 이끌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누굴 모실까 고민하던 중 금오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정 우물에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물가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커다란 알을 앞에 두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말은 놀라서 하늘로 날아 가버리고 알만 남아 있었는데 그 속에 잘 생긴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박(朴)이라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신라 첫 번째 왕으로 모셔져 나라 이름을 사로국(기원전 57년)이라 지었습니다. 이때는 왕이라 부르지 않고 거서간이라 불러 박혁거세 거서간이라 불러졌습니다.</p>
<p>송덕전</p>	<p>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오릉(五陵)의 남쪽에 있습니다. 조선 세종 11년(1429)에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다시 짓고 수리하였습니다. 경내에는 조선 영조 35년(1759)에 세운 박혁거세와 송덕전의 내력을 적은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종 3년(1723)에 이르러 송덕전이라 불렸으며 제사를 모시는 참봉 3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와서 박씨 문중에서 주관하여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진 곳을 다시 짓고 보수를 하며 후손들이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그 당시를 회상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었더라면? 흔적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역사 속으로 묻혔겠죠?</p>
<p>알영부인 탄생설화</p>	<p>오릉 안에는 알영정이란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 알영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나던 날 한 할머니가 알영이란 우물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머리는</p>

	<p>닭이요, 몸은 용을 닮은 계룡 한 마리가 내려와 옆구리로 예쁜 여자 아기를 낳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할머니가 달려가서 아기를 받아보니 예쁜 여자 아기인데 이상하게도 입은 닭 부리같이 뾰족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얼른 앞천 냇가로 가서 맑은 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뾰족한 부리가 떨어졌는데 총명하고 예쁘게 자란 알영은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p>
<p>왕게임 주령구 놀이</p>	<p>신라의 왕들처럼 우리도 그 당시 왕이 된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왕들은 뒤통뒤통 걸었을까요? 근엄하게 한발 한발 내딛으며 선생님 뒤로 따라와 볼까요? 이제 맑은 공기가 뽀뽀 나오는 소나무 숲에서 재미난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주령구를 이용한 놀이인데요, 주령구는 동궁과 월지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든 14면의 주사위입니다. 주령구를 던져서 나오는 면에 적힌 벌칙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라 왕실에서 놀이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글이 적혀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p> <p>- 열네 가지 벌칙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잔일거-술 석 잔 한 번에 마시기(폭탄주) 2. 자창자음-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3. 음진대소-술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기 4. 중인타비-여러 사람 코 때리기 5. 금성작무-소리 없이 춤추기(무반주 댄스) 6. 유범공과-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있기 7. 농면공과-얼굴 간지러도 꾀잡아기 8. 곡비즉진-팔을 구부리고 술 마시기 9. 추물막방-더러운 물건을 버리지 않기 10. 월경일곡-월경 한 곡조 부르기 11. 공영시과-시 한 수 읊기 12. 임의청가-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노래시킴 13. 자창괴래만-스스로 괴래만을 부르기 14. 양잔즉방-술 두 잔이면 쏟아버리기

	<p>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각 면에 별칙을 직접 적어 볼까요? 어떤 별칙을 하면 좋을지 팀으로 나눠서 적어봅시다. 대신 별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적혀있으면 더욱 좋겠죠? 두 팀을 섞어서 한 원을 만들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돌려봅시다.</p>
<p>마무리</p>	<p>자연과 신라의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소나무 숲에서 잔디를 밟으며 바람 소리를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오름은 신라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 관련 설화와 남아있는 문화재가 역사를 구성하는 자료입니다. 송덕전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으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소멸되었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지 탐구하는 자세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좋은 관심 방법입니다.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우리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설문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운치 있는 왕릉에서의 힐링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선도산 자락을 돌아보며, 여러 왕릉과 고분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해설주제	태종무열왕릉에서 배우는 역사
해설소재	주변 왕릉과 고분군의 모습
운영장소	경주국립공원 서악지구 태종무열왕릉 주차장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가족 단위(적정인원 10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서악지구 태종무열왕릉 주차장	1
	약속	탐방 주의사항	구급키트	입구	1
주제별 해설	선도산	선도산의 이름 유래	-	입구	1
	태종무열 왕릉비	태종무열왕릉비 귀부와 이수		태종무열왕릉비	2
주제 심화	태종무열 왕릉	태종무열왕릉 김춘추/태종/무열		태종무열왕릉	2
	서악고분 군	왕릉과 고분군 주변의 왕릉 고분군		서악고분군	2
정리	마무리	마무리 및 정리	평가지		1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p>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잘 어우러져 있는 서악지구의 무열왕릉 코스를 해설 할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p>
선도산	<p>선도산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첫째, 선도산은 경주의 서쪽에 위치하여 신라 사람들은 이곳을 서악이라 하였으며, 서방정토로 여겼다고 합니다. 서방정토란 극락 세상을 말합니다.</p> <p>둘째, 선도산의 한자를 풀이하면 신선 ‘선’에 복숭아 ‘도’자를 써서 신선 나라에 있는 복숭아 또는 삼천년에 한 번 여는 불로장생의 열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선도산 불로장생과 극락 세상의 뜻 때문인지 여러 왕들의 왕릉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서라벌의 5악(동: 토함산, 서: 선도산, 남: 남산(금오산), 북: 소금강산, 중: 낭산)의 하나(서악)로써 신라 사람들의 서방정토로써 ‘진산’으로 신성시된 산입니다.</p>
태종무열왕릉비	<p>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한 장소에는 그에 관련된 역사적 흔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비가 있습니다. 이런 신성시 된 산에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진 왕의 비석과 왕릉이 있는 것 처럼요! 누굴까요?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태종무열왕이 누굴까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태종무열왕의 왕릉비입니다. 왕릉비는 어떤 모습과 형태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거북이 모양의 비석 받침대와 비석의 덮개들이며, 국보(제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돌과 비석의 덮개만 남아 있는 게 국보라니?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현재는 일반 비석들은 흔하지만, 태종무열왕릉비 이전의 비석은 매우 드물답니다. 남아 있는 비석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문화유산 적 가치는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석 받침대와 덮개들은 이 무덤이 무열왕의 무덤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경주에는 많은 무덤이 있지만 실제로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드물답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료나 설화를 통해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열왕릉은 바로 이 비석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p>

	<p>자~ 지금부터 태종무열왕릉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습니다. 귀부는 거북이 모양을 한 비석 받침대, 이수는 몸돌 위에 있던 장식용 덮개들을 위미합니다. 능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귀부인 거북이가 목을 높이 쳐들고 발을 기운차게 뻗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큼지 막한 육각형을 새긴 후, 등 중앙에 몸돌을 꽂을 수 있는 네모난 홈이 있고 그 주위로 연꽃조각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p> <p>그 위에 올려진 이수는 6마리의 용이 좌우로 각각 세 마리씩 서로 영켜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태종무열대왕지비’ 라는 글자가 좌우대칭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 명필가로 유명했던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이 아버지를 위해 직접 새긴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돌에 조각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신라의 석조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귀부와 이수는 당시 신라조각을 대표하는 국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그렇다면 김인문의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p> <p>바로 주차장에서 나오실 때 보셨던 바로 그 무덤이 김인문의 무덤입니다. 신라에는 많은 왕릉이 있지만 누구의 왕릉인지 단정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데, 왕릉 앞쪽에 태종무열왕릉비가 있어 태종무열왕의 능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기의 다른 무덤들처럼 이 무덤도 굴식돌방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레는 114m입니다.</p>
<p>김춘추</p>	<p>김춘추는 50세에 왕위에 올랐고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왕으로 유명합니다. 진골 출신에다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진골로 강등당한 상황에서 춘추의 왕위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김춘추는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때를 기다려 가야계 귀족인 김유신과 손을 잡고 점차 세력을 키워갔으며 특히 선덕여왕 때 일어났던 비담의 난을 김유신과 함께 진압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게 되었고, 지혜로운 머리와 뛰어난 언변으로 목숨을 걸고 고구려와 당나라를 찾아가 외교를 펼쳤고, 김유신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신라</p>

	<p>군을 이끌었으며, 이렇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신라는 점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654년, 드디어 김춘추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나라와 외교로 나당연합을 맺은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도중 통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으며, 그 후 아들인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게 됩니다.</p>
<p>태 종</p>	<p>무열왕은 죽은 뒤 신라왕 중에는 유일하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원래 묘호는 황제국만 쓰는 것으로 당나라 태종과 같은 묘호라 하여 문제 삼았으나 삼한일통의 대업을 높이 쌓아 태종이란 묘호를 받아 마땅하다 하니 당나라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무열왕이후 더 이상 묘호를 쓰지 않았습니다.</p>
<p>무 열</p>	<p>김춘추는 죽은 후 공덕을 찬양하여 시호를 받습니다. 바로 무열이라는 시호입니다. 시호는 왕과 왕비를 비롯해 학덕이 높은 분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무인 ‘무’에 매울 ‘열’자를 써서 싸움터에서의 용감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는 뜻을 받게 됩니다. ‘무열’이라는 시호에서 알 수 있듯 삼국통일을 위한 김춘추의 노력들은 그의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호가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충무공이죠. 충무공 또한 시호입니다.</p>
<p>왕릉과 고분군</p>	<p>오른쪽을 보시면 새골못이라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 뒤로는 도봉서당과 진흥왕릉, 진지왕릉 등 다양한 왕릉들과 주변의 구절초 군락도 있으니, 즐거운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보이는 거대한 4기의 서악고분군이 보입니다. 1기의 고분군의 둘레는 약 100m가 넘으며, 시기는 태종무열왕릉의 이전 시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종무열왕릉 위에 위치하고 있어, 태종무열왕의 조상 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덤의 양식은 굴식돌방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마무리</p>	<p>여러분 이렇게 서악지구의 태종무열왕릉 코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곳 서악지구는 선조들의 기침 소리 묻어나는 왕릉, 석탑, 돌부처, 글 읽던 선비들의 생동감이 살아있는</p>

	<p>서악서원 등 시끌벅적한 일상을 떠나 경주국립공원에서 가장 조용한 이곳에서 즐거운 힐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정말 극락 세상에 오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소중한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p>
--	---

동궁과 월지를 통해 신라 옛보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성연주)

□ 프로그램 개요서

운영목표	동궁과 월지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신라의 생활상을 엿본다.
해설주제	동궁과 월지 속에 신라인의 모습을 살펴보기
해설소재	동궁과 월지
운영장소	동궁과 월지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중, 고등학생 10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인 사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주의사항 안내	사진 자료	경주 시내권	0.5
주제별 해설	동궁과 월지 소개	동궁과 월지의 명칭			1
주제심화	동궁과 월지의 역사	신라의 동궁 월지의 특징			2
	월지의 유물	다양한 생활유물 유물과 신라의 교류			5
정리	신라인의 세계관	동궁과 월지 속 신라인의 모습	-		1
마무리	인사	마무리 및 끝인사			0.5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사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경주에도 국립공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입니다. 경주 시내의 중심. 경주의 밤, 그리고 야경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죠. 바로 이 곳 ‘동궁과 월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을 둘러보면서 오래전 동궁과 월지의 모습을 그려보며 신라 왕궁 안의 생활을 상상해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동궁과 월지의 역사	<p>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1000년 전 신라의 수도이고 그곳에서도 심장과 같은 왕이 살던 궁궐 안이었어요. 임금이 머물던 월성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궁이라 부르고 이곳은 훗날 왕이 될 왕자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동궁 옆으로 있는 연못이 바로 ‘월지’ 인데요. 달을 담은 연못이라는 뜻의 인공연못으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굴착기 같은 기계도 없던 신라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지금 옆에 보이는 잔디 사이로 돌로 된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한 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돌로 된 동그라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석조 유구라는 주춧돌로 건물이 있던 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동궁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돌로 된 동그라미 위로 기둥이 솟아 있고 건물이 있었겠죠? 월지와 함께 웅장하게 서 있었을 동궁과 월지의 옛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p> <p>앞에 보이는 모형은 동궁과 월지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모형입니다. 아쉽게도 신라시대의 동궁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주변으로 발굴된 동궁의 건물조각이나 석조유구의 위치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지금도 동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조사 중에 있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건물이고 학자들의 의견충돌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월지와 함께 복원된 늠름한 동궁을 볼 수 있을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얼마나 비슷할지, 또는 다를지 기대가 되네요. ‘동경잡기’라는 옛 문헌에 의하면 안압지의 서쪽에 큰 임해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p>

	<p>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해전은 ‘달을 임’, ‘바다 해’ 즉 바다에 닿아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설들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월지가 바다라는 것인데요. 신라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바다를 두고 싶어 해서 정원에 연못을 두고 바다라고 생각하곤 했는데요. ‘월지’도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느 곳에 서도 연못이 한눈에 조망되지 않게 만들어 졌습니다. 요즘도 연못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들이 인기가 많죠? 신라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리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p>
<p>신라의 세계관</p>	<p>지금 잠시 고개를 돌려 옆의 월지를 내려다보시면 연못의 조경요소들로 인해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월지의 모습을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지 않나요? 네, 바로 한반도 주변 해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과 일본 그리고 제주도까지 월지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개방적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신라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문무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궁과 월지 안에는 삼국의 양식을 두루두루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축조기술이 훌륭했던 고구려의 양식도 월지에 가장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 문화예술이 뛰어났던 백제의 조경과 건축양식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색깔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p>
<p>다양한 생활 유물들</p>	<p>약 40년 전인 1975년에 월지 안의 모든 물을 빼내어 발굴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수많은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못 아래 뿔 속에 들어 있던 유물들은 진흙이 진공상태를 유지해 주어서 1000년 이상이 지난 유물이지만 아주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놀랍고 반가운 일이었어요. 경주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대부분 무덤에서 발굴된 무덤유물이지만 이곳 월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고위층이 궁중에서 사용하던 생활 유물이어서 신라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도 아주 가까운 물건 숟가락입니다. 숟가락뿐만 아니라 숟가락과 매우 비슷한 국자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지처럼 생긴 등잔도 아주 많이</p>

	<p>발굴되었는데요. 등잔에 기름을 담아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던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가스레인지 역할을 했었을 풍로도 발굴 되었습니다. 안쪽에 불을 붙이고 위로 난 두 개의 구멍으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느껴지지만, 무려 1000년 전의 일이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p> <p>여기에 또 다른 유물을 볼까요? 매울 신이라는 글자가 적힌 항아리입니다.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항아리에 먹으로 적힌 글씨가 아주 선명합니다. 아마 매운 음식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보관했겠죠? 아주 친근한 느낌을 주는 유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목간도 발굴이 되었는데요. 종이가 귀하게 여겨지던 때 나무 조각에 먹으로 글을 써놓을 것을 목간이라 하는데 병해년 4월에 담근 가지미젓갈이라고 적혀있는 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는 먹도 신기하지만 젓갈을 담그고 병에 날짜를 매달아 기록하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재미난 유물들이죠?</p> <p>뿐만 아니라 월지 주변으로 있던 건물들의 일부 조각인 난간이나 그 시대의 건축양식을 알 수 있는 기와나 바닥돌인 전돌, 다양한 건물장식들도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어 화려했던 동궁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동궁에는 진귀한 동물과 식물들을 길렀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동물의 뼈도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은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노루와 사슴의 뼈 그리고 개의 뼈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동물원처럼 동물을 키우며 관찰했던 신라인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국가였습니다. 진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곳 동궁과 월지에서도 불교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불상과 더불어 벽처럼 평평한 곳에 매달아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 세심하게 조각한 불상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아마도 동궁 안에도 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어요. 참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p>
<p>마무리</p>	<p>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독특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한 초록색 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p>

아주 예쁜 컵인데요. 신라 시대 때에는 투명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 컵은 신라가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물리적으로 실크로드와는 가장 멀었지만 삼국 중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유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신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경주에 천 년 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찾아 온 손님들을 길에서 마주친다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투명한 유리컵을 페르시아 상인들이 깨뜨리지 않고 들고 오면 신라인들은 컵을 금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곳 동궁과 월지에서 일부이긴 하나, 여러 문화가 녹아들 수 있었던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보면서 신라인들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신라 시대로 왔다고 생각하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왕릉 투어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신라의 역사 되짚어보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 깨닫기
운영장소	오릉, 태종무열왕릉, 괘릉, 대릉원
소요시간	3시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인 사	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여행으로 온 00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설레네요. 경주는 옛날 어느 나라의 수도였나요? 신라! 신라의 시작을 찾아 다 같이 떠나봅시다.
오릉의 유래	신라의 시작이 되는 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왕의 무덤이 5개라 오릉으로, 오릉에 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조금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으로 신라 왕 4분과 혁거세의 왕후인 알영 왕비까지 5분의 능이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를 보면 혁거세 왕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7일 만에 땅으로 떨어졌고 시신은 이상하게도 다섯 토막이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신을 한곳에 모아 장례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신이 떨어진 장소마다 무덤을 만들어 ‘오릉(五陵)’이라 부르며, 뱀이 방해한 무덤이라고 ‘사릉(蛇陵)’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혁거세이죠. 각각의 무덤이 어느 왕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박혁거세의 무덤은 이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릉 사진) 이곳을 1대, 2대, 3대, 5대, 알영 왕비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p>박혁거세 탄생설화</p>	<p>박혁거세 탄생 설화가 있는 나정에서 500여 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여 이곳을 박혁거세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인 만큼 그의 탄생은 신비하고 특이합니다.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설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6부 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여섯 마을을 이끌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누굴 모실까 고민하던 중 금오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정 우물에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물가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커다란 알을 앞에 두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말은 놀라서 하늘로 날아 가버리고 알만 남아 있었는데 그 속에 잘생긴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박(朴)이라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신라 첫 번째 왕으로 모셔져 나라 이름을 사로국(기원전 57년)이라 지었습니다. 이때는 왕이라 부르지 않고 거서간이라 불러 박혁거세 거서간이라 불렀습니다.</p>
<p>알영부인 탄생설화</p>	<p>오릉 안에는 알영정이란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 알영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나던 날 한 할머니가 알영이란 우물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머리는 닭이요, 몸은 용을 닮은 계룡 한 마리가 내려와 옆구리로 예쁜 여자 아기를 낳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할머니가 달려가서 아기를 받아보니 예쁜 여자 아기인데 이상하게도 입은 닭 부리같이 뾰족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애기를 안고 얼른 알천 냇가로 가서 맑은 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뾰족한 부리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총명하고 예쁘게 자란 알영은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p>
<p>문화재를 보는 시선</p>	<p>현재의 오릉은 신라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 관련 설화와 남아있는 문화재가 역사를 구성하는 자료입니다. 승덕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으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소멸되었지만</p>

	<p>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지 탐구하는 자세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좋은 관심 방법입니다.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p> <p>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어떤 재미난 왕릉이 있는지 알아보시다.</p>
<p>김춘추</p>	<p>신라에 남아있는 많은 무덤들 중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장소에서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진 왕은 누굴까요?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태종무열왕이 누구일까요?</p> <p>김춘추는 50세에 왕위에 올랐고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진골 출신에다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진골로 강등당한 상황에서 춘추의 왕위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김춘추는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때를 기다려 가야계 귀족인 김유신과 손을 잡고 점차 세력을 키워갔으며, 특히 선덕여왕 때 일어났던 비담의 난을 김유신과 함께 진압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게 되었고, 지혜로운 머리와 뛰어난 언변으로 목숨을 걸고 고구려와 당나라를 찾아가 외교를 펼쳤고, 김유신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신라군을 이끌었으며, 이렇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신라는 점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54년, 드디어 김춘추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나라와 외교로 나당연합을 맺은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도중 통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으며, 그 후 아들인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게 됩니다.</p>
<p>태종무열왕릉비</p>	<p>태종무열왕의 왕릉 비는 거북이 모양의 비석 받침대와 비석의 덮개들이며, 국보(제25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 받침대와 덮개들은 이 무덤이 무열왕의 무덤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습니다. 귀부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비석 받침대, 이수는 몸돌 위에 있던 장식용 덮개들을 의미합니다.</p>

	<p>귀부인 거북이가 목을 높이 쳐들고 발을 기운차게 뻗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큼지막한 육각형을 새긴 후, 등 중앙에 몸돌을 꽂을 수 있는 네모난 홈이 있고 그 주위로 연꽃 조각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이수는 6마리의 용이 좌우로 각각 세 마리씩 서로 엉켜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태종무열대왕지비’라는 글자가 좌우대칭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돌에 조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신라의 석조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귀부와 이수는 당시 신라조각을 대표하는 국보 중 하나이며 비신은 없어졌으나 다행히 이수에 남아있는 글자 덕분에 이곳이 태종무열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신라 이후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릉으로 이동하겠습니다.</p>
<p>패릉소개</p>	<p>패릉은 물이 괴어 널을 걸어 묻었다는 전설에 따라 한자로 걸 패(掛)를 쓰며 신라 38대 원성왕을 모신 곳으로, 경주 시내에서 울산 방면으로 약 12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p> <p>능의 둘레에 있는 호석에는 십이지신상이 돌을새김 되어 있으며, 그 주위로 돌난간이 에워싸고, 봉분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는 화표석, 문인석, 무인석과 돌사자를 마주 보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아 당나라의 능묘 제도를 본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둘레돌, 십이지신상, 난간, 석물 등 신라 왕릉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p>
<p>통일신라 이후 왕릉의 변화과정</p>	<p>통일신라시대부터 왕릉의 변화를 보면 신라31대 신문왕릉에서 봉분 주위의 호석이 과거와는 달리 높고 탄탄하게 구축되어 이 호석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대한 삼각받침석을 두르고 십이지신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봉분 앞에는 상석이라 하여 장방형 석재로 탄탄한 제단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과거의 왕릉보다는 훨씬 격조를 높인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 후 신라 33대 성덕왕릉에는 그대로 전승되고 십이지신상과 봉분의 난간석과 돌사자 그리고 문무인상이 더해졌으며 봉분 앞의 상석 또한 훨씬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35대 경덕왕릉에는 십이지신상과 봉분의 난간석으로 기본적인 왕릉양식만 남아 있습니다. 신라 38대 원성왕릉에 이르러 봉분의 십이지신상과 난간석 그리고 석상의 돌사자와 문무인상</p>

	<p>뿐만 아니라 화표석 한 쌍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왕릉양식은 신라 42대 흥덕왕릉에서도 나타납니다.</p> <p>왕릉의 구조 특징은 중국의 당나라의 능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은 매우 독창적 발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패릉의 사자 꼬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으로 감아올린 것, 왼쪽으로 감아올린 것, 양갈래로 말아 올린 것 등 꼬리의 표현이 다양하고 재미있게 표현되며 머리 스타일 또한 네 마리 각각 다른 헤어스타일 양식으로 되어 있어 신라인의 다양한 예술적 기교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p> <p>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성왕릉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완벽한 능묘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p> <p>고려 왕릉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격조를 보이고 있는 공민왕릉이나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조선 왕릉을 보면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조물의 양상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봉분에 병풍석과 십이지신상을 두르고 호석과 돌레 난간을 배치하며 봉분 앞에 석단을 놓고 문무인상을 배치하는 커다란 틀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의 왕릉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우리나라 왕릉의 모본, 패릉</p>	<p>통일신라시대에 완성된 석가탑의 양식이 오늘날까지 한국 석탑 양식의 근간을 이루어 왔고 성덕대왕신종 역시 오늘날까지 한국 종의 모체가 되었듯이 패릉 또한 통일신라 왕릉을 대표하는 무덤으로 그 이후 면면히 한국 역대 전통 왕릉의 모본이 되어 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릉원으로 가볼까요?</p>
<p>왜 대릉원인가?</p>	<p>여기는 대릉원입니다. 신라를 두고 흔히들 천년의 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9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6분의 임금이 등장하구요, 그중 13번째 임금이 미추왕인데 ‘미추왕이 죽어 대릉에 장사지냈다.’ 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해 미추왕의 무덤이 있는 이곳이 대릉원이 됩니다. 여기 후문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을 노동, 노서 고분군이라 합니다. 원래는 같은 구역이었으나 일본강점기 때 가운데 도로가 생기면서 행정구역 명칭상 도로 건너편이 노동동, 노서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p>
<p>릉, 충 구분하기</p>	<p>일제 강점기 때 고분 중 봉분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분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를 붙여 식별하게 되는데 1호에서 155호분까지. 마지막 155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충입니다.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가 출토되어 천마충이라 부릅니다. 천마충 황남대총</p>

	<p>검충 이렇듯 어떤 무덤에는 충, 어떤 무덤에는 ‘능’이란 글자를 붙여주는데 고분을 발굴하게 되면 그 고분의 주인공,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 고분의 특징이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대표되는 유물의 이름을 붙이고 끝에 충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해 00왕의 무덤이라고 하면 굳이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에는 능(릉)이라 붙여줍니다. 무열왕릉, 선덕여왕릉 처럼 말이죠. 무덤 속 주인공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옥포총?</p>	<p>노동, 노서 고분군에는 발굴 전에는 약간의 봉분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발굴 후에는 복토 즉 흙덮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조차 없어 고분의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옥포총이라는 무덤인데 총으로 끝났네요? 그럼 옥포가 뭘까요? 옥포총이 있었던 곳에는 당시 경주 관아에서 관기로 있다가 은퇴한 박옥포라는 70세의 늙은 기생이 운영하는 주막이 있었고 그 집을 옥포집이라 불렀습니다. 당시(1924) 경주 암곡상 2명이 미곡상을 운영하기 위해 박옥포로부터 옥포집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쌀 창고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때 땅속에서 철 파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고분이라 추정되니 발굴 협조를 신청합니다. 땅속 유물에 눈이 먼 일본은 당연히 금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발굴을 했는데 내세울 만한 유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발굴은 했으니 고분의 이름은 붙여야겠고 그래서 옥포집이 있었던 자리이니 그냥 옥포총이라 하자! 관기 박옥포의 이름이 그대로 무덤 이름으로 붙여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p>
<p>우리고분의 수난</p>	<p>신라 고분뿐만 아니라 가야 백제 고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고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도굴이나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경찰이 지나가는데 꼬마아이들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그 구슬이 옥구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알려준 곳에 큰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서 금관을 비롯한 금제 허리띠 등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관총이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고분 속에는 황금 보물이 가득 들어 있을 거라 예상하고 마구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굴에 대한 이유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술적 발굴’이라고! 허가받은 도굴인 거죠 우리 정서에</p>

	<p>비추면. 물론 합법적 절차에 의한! 그리고 구제 성격의 발굴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허가된 발굴에 의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대 금관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관들이 일제 강점기에 발굴되는 바람에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조선 총독부 소속 연구원이었던 고이즈미라는 일본인이 평양박물관장으로 승진하면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 축하하는 뒤풀이 과정에서 고이즈미가 평양기생에게 서봉총에서 나온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장신구를 착용시켜 사진을 찍고 노는 술자리 유희에 동원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수난도 있습니다.</p>
<p>문화재 반환</p>	<p>우리는 일본에게 끊임없이 반성을 요구하고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게 잉카문명 마추픽추의 유물을, 칠레는 대영박물관에게 모아이 석상을 반환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환을 거부하는 공통적 이유가 되게 웃깁니다. ‘이건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 즉, 전 인류의 것이다.’라는 제국주의적 주장, 더불어 하나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도미노 현상, 그러다보면 박물관 소장품은 줄어들고 관광수익도 줄어드는 현실적 계산 등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600년 동안 자신들을 통치했던 덴마크에 25년 동안 협상하고 26년 수행 기간을 거쳐 책, 고문서등 거의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문화재는 약 18만여 점!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이자 국격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콘텐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p>
<p>마무리</p>	<p>지금까지 신라의 시작인 오릉! 비석으로 인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태종무열왕릉! 통일신라 이후 가장 대표적인 무덤 구조인 원성왕릉 등 신라 왕릉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화재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문화재를 왜 되찾아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p>

벚꽃 엔딩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우리나라 벚꽃에 관한 관심 유도
해설주제	벚꽃에 대해 알아보기
해설소재	벚꽃
운영장소	김유신장군묘 가는 길
운영시기	4월 초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벚꽃 소개	김유신 장군묘 가는 길에 보이는 벚꽃 소개	기가폰	김유신장군묘 가는 길	1
	경주의 벚꽃 명소 소개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벚꽃 주요 명소 소개			1
주제별 해설	벚꽃의 역사	일본의 벚꽃 사랑 벚꽃의 원산지 뒤바뀐 벚꽃의 운명			2
주제 심화	우리나라 왕벚나무	벚꽃의 원산지 세 곳			2
	일본의 집념	벚꽃에 대한 일본의 집념			2
	우리가 알아야할 우리 꽃	우리나라 꽃 벚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			1
마무리	벚꽃 엔딩	벚꽃의 해피엔딩			1

해설주제	상세내용
<p>벚꽃소개</p>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지금 계신 곳은 바로 경주 벚꽃의 명소 중 하나인 김유신장군묘 가는 길에 있는 벚꽃 터널입니다. 이 길을 따라 쪽 걸어 우리는 김유신 장군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벚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 드릴게요.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자, 여기 보이시는 벚꽃의 나무 모양을 보시면 독특한 문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로로 쪽 그어진 선들이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피목이라고 합니다. 이 피목의 구멍들로도 벚꽃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대개 나무들은 잎이나 뿌리를 통해 호흡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피목이 있는 벚나무는 이렇게 나무 수피로도 호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꽃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잎줄기 쪽을 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일명 꿀샘이라고 부른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밀선이라고 하는데요. 개미가 이 밀선을 살살 건드리면 꿀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신밧드가 ‘열려라~참깨’라는 주문을 외우기만 했을 뿐인데 금은보화를 얻었듯 개미들이 살살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꿀이 나오다니요.. 여기에는 벚꽃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밀선이 없다면 벚꽃이 수정되기도 전에 개미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많아져 생존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를 쓰는 거죠. 개미는 밀선에서 꿀을 얻는 대신 나무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벚꽃에 해로운 병충들을 잡아주기도 한답니다. 그야말로 벚꽃과 개미의 긍정적 MOU인 셈이죠. 경주에는 이곳 말고도 불국사 겹벚꽃과 보문단지 쪽에 있는 보문정에 가시면 아름다운 벚나무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p>
<p>벚꽃의 역사</p>	<p>벚꽃만 놓고 본다면 감탄을 자아낼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하지만 미모가 아름다울수록 사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미모만큼 벚꽃에게도 지우지 못할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요. 벚꽃은 일본어로 사쿠라라고 하지요. 일본은 국화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화를 벚꽃으로 알 만큼 사랑받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의 벚꽃 사랑은 우표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원예잡지나 학회지에까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 전역을 조사하였지만 벚꽃의</p>

	<p>자생지나 원산지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12년 일본 교토대학의 교수가 일본에 사는 프랑스인 신부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표본을 살펴보다 일본의 왕벚나무와 거의 일치하는 표본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p>
<p>우리나라와 일본의 반응</p>	<p>한편, 왕벚나무가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을 밝힌 최초의 기록은 1908년 4월 14일 당시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성당 프랑스 타케 신부가 한라산 북쪽 관음사 일대에서 채집한 표본을 베를린 대학교 케네 박사가 왕벚나무로 동정함에 따라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표본이 자생 왕벚나무의 표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이후 교토대학의 고이즈미겐이치 교수가 1932년 4월 24일 제주영림서 협조를 얻어서 직접 한라산의 해발고도 약 600m 되는 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를 확인한 후 자생지가 한라산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1962년 4월 15일에서야 왕벚나무 세 그루를 자생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주도에 두 곳 전남 해남에 한 곳으로 2015년에는 제주도에서 왕벚나무 어미나무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 각각 나뉘어 졌는데요.</p> <p>사실 광복 이후 일본의 잔재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일부 벚나무를 없애 버린 것이죠. 특히 진해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해군 요항 부’가 설치되고 도시 미화를 위해 벚나무가 심어졌었는데 그 벚나무가 모조리 없어졌다가 왕벚나무가 제주도 자생종임이 확인된 후 다시 심어지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베어졌다 다시 심어졌다...벚꽃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이 참 일본사람들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본은 연구의 연구를 거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벚나무는 본래 왕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섬벚나무 등 참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벚나무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나무들이 모두 교잡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왕벚나무가 산벚나무와 교잡이 되기도 하고 섬벚나무가 산벚나무와 교잡이 되는 등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변이종 또한 무한합니다. 바로 일본은 거기에 주목을 한 것이죠. 원산지는 한국일 수 있으나 무수한 세월이 흘러 교잡에 교잡이 된 벚나무의</p>

	<p>새로운 종은 한국의 벚나무와 같을 수 없는 새로운 종의 벚나무라는 것입니다. 고로 한국의 벚나무와 일본의 벚나무는 다르다는 것이 일본 식물학계의 하나의 주장입니다.</p>
<p>벚꽃 엔딩</p>	<p>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논리가 옳게 느껴지시나요? 팩트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찝찝한 기분은 무엇이죠? 분명 이겼는데 진 그런 기분입니다. 원래 논증이란 사실에 입각하기 마련이지만 실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모태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걸 안 이상 우리 또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벚꽃이 우리나라 꽃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벚꽃의 해피엔딩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벚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유신장군묘에 도착을 했네요. 이제 신라의 화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p>

경주의 별, 첨성대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표	역사 속 첨성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고 청소년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
해설주제	경주의 별, 첨성대의 구조와 역할
해설소재	첨성대
운영장소	경주 시내
운영시기	1월~12월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인사 및 소개	경주국립공원 소개 경주의 랜드마크	사진자료	경주 시내	0.5
주제별 해설	첨성대 들여다보기	첨성대의 생김새와 구조 첨성대에 대한 추측들			8
마무리	정리 및 인사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1.5

해설주제	상세내용
경주국립공원 소개	<p>안녕하세요, 저는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아름다운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p> <p>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만큼 문화재와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경주는 한자로 역사 사(史), 발자취 적(跡)으로 역사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국립공원이라는 뜻에서 국내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 입니다.</p>
경주의 랜드마크	<p>경주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무엇이 있죠?</p> <p>경주는 천 년 전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인만큼 오랜 시간 전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나 역사자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주라는 도시와 함께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경주하면 딱 떠오르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모습으로 경주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경주의 랜드마크, 첨성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p>
첨성대의 생김새와 구조	<p>먼저 첨성대의 생김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물병 같기도 하고 우물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첨성대의 외관은 곡선을 이루고 있고, 가장 밑에 있는 기단부는 네모난 모양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신라인들의 우주관을 상징한다고 하죠. 첨성대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저 빼곡한 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벽돌과 비슷한 모양의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첨성대는 총 362개가량인데 1년 65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층을 한번 세어볼까요? 가운데 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몇 층이죠? 네, 12단이죠. 이 12단은 12달을 떠오르게 하고, 창 아래로도 12단이 있는데, 그것은 24절기를 생각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창 부분의 3단을 더하면 총 몇 단이죠? 그렇죠, 27단이죠.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632년부터 647년까지 재위한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천문대입니다. 첨성대 속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정말 그러한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이라기에는 참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p> <p>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는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p>

	<p>첨성대는 이 자리에 세워 진지 1000년 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과 같이 크게 변형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p> <p>내부를 관통하는 평행한 한 쌍의 기다란 돌이 첨성대 중간 즈음 높이에 교차로 엮어져 있어서 구조물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첨성대의 내부를 보면 창문이 위치한 높이까지 흙과 돌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첨성대 안의 여러 요소가 자연재해나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를 지켜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첨성대에 대한 추측들</p>	<p>첨성대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p> <p>가운데 나 있는 네모난 창문까지 올라간 후 창문의 높이까지 채워져 있는 흙을 밟고 사다리 2개를 더 올라가면 첨성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신라 시대 당시 별을 관측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 첨성대가 별을 관측하는 건물이라고 추정합니다.</p> <p>지금 첨성대가 위치한 곳은 월성지구입니다. 신라의 왕이 지내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천문대가 산 높은 곳 즉, 도심과 떨어진 곳에 있지만, 네온사인이나 인공적인 빛 공해가 없었던 신라 시대에는 평평한 곳에서 하늘을 관측하는 일이 가능했고 왕에게 빠르게 보고하기 위해서 왕궁 근처에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던 신라인들에게 날씨는 아주 중요했을 것이고 첨성대에 올라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왕의 권력이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p> <p>첨성대에 관련된 역사기록들로는 역사기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첨성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선덕여왕 대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첨성대의 크기를 측량했고, 첨성대의 가운데로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최초의 천문대라고 기록해놓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첨성대에 대해 사람이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사강목이라는 문헌을 포함해 크게 4가지의 문헌에 첨성대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모든 기록이</p>

	<p>첨성대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인 조선 시대의 문헌들이어서 정작 신라 시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조선 시대의 기록 또한 역사 속의 분명히 남아있는 ‘기록’ 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p>
<p>문화재 보존의 중요성</p>	<p>천년의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우뚝 서 있었던 첨성대. 오늘 우리는 첨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별을 봤을지 추측해 보고, 첨성대를 통해 기후를 예측해서 알게 된 날씨가 신라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첨성대를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땠나요? 평소에는 첨성대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크게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오늘을 계기로 첨성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 경주의 랜드마크 이기도 한 첨성대를 천년을 넘어서 2000년, 3000년, 먼 미래에까지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첨성대와 같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관심으로 소중한 문화재들을 지키는 멋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p>

신라의 별을 따라서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경주의 유적을 둘러보며 신라의 역사와 더불어 지혜로운 신라인 속에서 별을 찾는다.
운영장소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 최부자 댁, 월정교
소요시간	3시간 30분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동궁과 월지	<p>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오늘 000, 000, 000 저희 셋이 한팀이 되어 ‘신라의 별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별? 과연 어떤 별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답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고 우선 오늘 만나 볼 3개의 별 중 첫 번째 별을 만나게 될 이곳은 바로 동궁과 월지입니다.</p> <p>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천년 전 신라의 수도이고 그곳에서도 심장과 같은 왕이 살던 궁궐 안이었어요. 임금이 머물던 월성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궁이라 부르고 이 곳은 훗날 왕이 될 왕자가 머무는 곳 이었습니다. 동궁 옆으로 있는 연못이 바로 ‘월지’ 인데요. 달을 담은 연못이라는 뜻의 인공연못으로 만들어 진 연못입니다. 굴착기 같은 기계가 없던 신라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큰 연못을 만들었을까요?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지금 옆에 보이는 잔디 사이로 돌로 된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돌로 된 동그라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석조 유구’라고 하는 주춧돌로 건물이 있던 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동궁의 일부였을 것이라 추정</p>

하고 있습니다. 돌로 된 동그라미 위로 기둥이 솟아 있고 건물이 있었겠죠? 월지와 함께 웅장하게 서 있었을 동궁과 월지의 옛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형은 동궁과 월지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모형입니다. 아쉽게도 신라 시대의 동궁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주변으로 발굴된 동궁의 건물조각이나 석조 유구의 위치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지금도 동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조사 중이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건물이고 학자들의 의견충돌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월지와 함께 복원된 늠름한 동궁을 볼 수 있을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동궁에서 가장 큰 임해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해전은 ‘달을 임’, ‘바다 해’ 즉, 바다에 닿아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다? 이 주변 어디에 바다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바다가 월지입니다. 신라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바다를 두고 싶어 해서 정원에 연못을 두고 바다라고 생각하곤 했는데요. ‘월지’도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느 곳에 서도 연못이 한눈에 조망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잠시 고개를 돌려 옆의 월지를 내려다보시면 연못의 조경 요소들로 반대편 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월지의 모습을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지 않나요? 네 바로 한반도 주변 해안의 모습인데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제주도까지 월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개방적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신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문무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궁과 월지 안에는 삼국의 양식을 두루두루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축조기술이 훌륭했던 고구려의 양식도 월지에 가장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 문화예술이 뛰어났던 백제의 조경과 건축양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

동궁과 월지의 다른 이름은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안압지’입니다. 이 이름은 조선 시대 때 붙여진 이름으로

‘기러기 안’, ‘오리 압’ 기러기와 오리만 놓고 있는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까지도 안압지로 불려졌지만 신라 시대 때에 지어진 만큼 ‘동궁과 월지’가 맞는 표현이겠죠?

약 40년 전인 1975년대에 월지 안의 모든 물을 빼내어 발굴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양의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못 아래 뿔 속에 들어 있던 유물들은 진흙이 진공상태를 유지해 주어서 천년 이상이 지난 유물이지만 아주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대부분 무덤에서 발굴된 무덤유물이지만 이곳 월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궁중에서 사용하던 생활유물이어서 신라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우리의 생활에서도 아주 가까운 물건!
바로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뿐 만 아니라 숟가락과 매우 비슷한 국자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지처럼 생긴 등잔도 아주 많이 발굴되었는데요. 등잔에 기름을 담아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던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가스레인지 역할을 했었을 풍로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안쪽에 불을 붙이고 위로 난 두 개의 구멍으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물을 볼까요?
‘매울 신’이라는 글자가 적힌 향아리입니다.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향아리에 먹으로 적힌 글씨가 아주 선명합니다. 아마 매운 음식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보관했겠죠?

목간도 발굴이 되었는데요. 종이가 귀하게 여겨지던 때 나무 조각에 먹으로 글을 써놓을 것을 목간이라 하는데 병해년 4월에 담긴 가자미 젓갈이라고 적혀있는 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는 먹도 신기하지만 젓갈을 담그고 병에 날짜를 매달아 기록하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동궁에는 진귀한 동물과 식물들을 길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동물의 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노루와 사슴의 뼈 그리고 개의 뼈도 발굴이

	<p>되었습니다. 지금의 동물원처럼 동물을 키우며 관찰했던 신라인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국가였습니다. 진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곳 동궁과 월지에 서도 불교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불상과 더불어 벽처럼 평평한 곳에 매달아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 세심하게 조각한 불상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아마도 동궁 안에도 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의미있는 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투명한 초록색 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예쁜 컵인데요. 신라 시대 때에는 투명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 컵은 신라가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물리적으로 실크로드와는 가장 멀었지만 삼국 중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유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신라이기도 합니다.</p> <p>이런 투명한 유리컵을 페르시아 상인들이 깨뜨리지 않고 들고 오면 신라인은 금과 컵을 바꾸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라인들을 생각하면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만 떠 있을 때에도 아름답지만 함께 은하수를 이루었을 때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워지는 별처럼 신라인들도 간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함께했을 때의 힘을 알고 삼국통일까지 이룩해냈는데요. 이곳 동궁과 월지에서 만났던 첫 번째 별은 바로 신라인의 세계관이었습니다.</p>
<p>해 자</p>	<p>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저와 함께 두 번째 별을 만나 보실까요. 그럼 두 번째 별을 따라서 가시죠.</p> <p>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길의 왼쪽으로 언덕이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파사왕 22년인 101년에 신라의 궁궐인 월성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월성’이라는 이름에는 ‘달 월(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월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죠. 반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월성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좀 전에 보셨던 동궁과 월지가 있고, 서쪽으로는 왕비와 공주 즉 여성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남쪽으로는 지금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있죠. 박물관 건설을 위한 공사 중 궁궐터가 발견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첨성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신라 시대에는 궁궐</p>

	<p>기관들이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첨성대가 우뚝 서 있었겠죠? 신라 시대 때의 궁궐을 중심으로 뻗어나가 있던 동궁과 궁 안의 기관들, 분주히 오가던 신라인들을 상상해 보실까요? 천 년 전의 신라인이 되어 계속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공사가 한창이죠. 해자가 있던 곳입니다. ‘해자’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물길이에요. 월성의 주변으로도 해자가 존재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 해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쪽 동궁과 월지 쪽으로 해서 인공 해자를 만들었었죠. 그러한 해자를 조선 시대 때는 조경의 목적으로 호수로 이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복원 공사는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사진자료) 완성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돌들은 월성을 복원하여 지어 올릴 때 뜻깊게 사용되길 원하는 경주시민들이 기증한 소중한 돌들입니다.</p>
<p>첨성대</p>	<p>(별 빛이 내린다 샤랄라라랄라~)</p> <p>별을 관측했던,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알려진 첨성대입니다. 자, 별빛이 쏟아져 내렸던 신라의 밤을 상상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사진자료)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없는 깨끗한 밤하늘이었겠죠. 반짝반짝 별이 샤랄라 쏟아지는 밤을 떠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p> <p>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첨성대를 살펴보도록 해요.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여기 경주에는? 네 맞습니다. 첨성대입니다. 경주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높이 9.17m로 크지 않지만,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천 년 전 신라 시대 때부터 랜드마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p> <p>먼저 첨성대의 생김새부터 볼까요? 첨성대의 외관은 곡선을 이루고 있고, 가장 밑에 있는 기단부는 네모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신라인들의 우주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부의 우물 정(井)자석 네 귀퉁이는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중간에 난 창문은 정확히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춘분과 추분 때에 햇빛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비쳤으며, 하지와 동지에는 아랫부분에서 햇빛이 사라져서 계절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p>

첨성대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건물입니다. 이 돌들은 총 362개 인데 1년 음력 날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층을 한번 세어볼까요? 가운데 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몇 층이죠?

네, 12단이죠. 이 12단은 12달을 떠오르게 하고, 창 아래로도 12단이 있는데, 그것은 24절기를 생각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창 부분의 3단을 더하면 총 몇 단이죠? 그렇죠, 27단이죠.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632년부터 647년까지 재위한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숫자에 관한 것은 추측일 뿐 정말 그러한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첨성대 속은 창문부터 바닥까지 모두 흙과 돌을 잘 다져 넣었습니다. 때문에 아랫부분이 묵직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가운데 나 있는 네모난 창문까지 올라가서 사다리 2개를 더 올라가면 첨성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고, 거기서 별을 관측 했다고 추정합니다.

첨성대의 다른 이름은 점(占)성대 입니다. 바로 점을 쳤었다는 의미 이죠. 역사적인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 수많은 설들이 있지만, 첨성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점을 치는 곳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라의 큰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성대의 생김새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왕은 하늘과 통하는 존재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하늘을 해석하는 일은 왕의 임무이며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라인들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또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 해서 농사를 잘 짓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별에 대한 제사를 본피유촌(本彼遊村)에서, 해와 달에 대한 제사를 문열림(文熱林)에서, 그리고 오행성에 대한 제사를 영묘사(靈廟寺) 남쪽에서 지냈다고 되어있어, 첨성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천문과 관련된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천문관측을 할 수 있는 천문대 역할을 했다는 설입니다. 삼국유사(권제1, 26장 뒤쪽, 기이 2 선덕

왕지기삼사)에는 단순히 '선덕여왕 때 돌을 모아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언급이 전부 이고, 심지어 삼국사기에는 첨성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첨성대를 천문대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첨성대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도 높지 않은데 어떻게 별 관측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별을 관측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낮에 별을 볼 수 없는 건 해가 보이는 시간대에는 너무 밝기 때문에 떠 있는 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두워져서 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천문대도 높은 산에 위치해있는 거랍니다. 결국 도시의 빛,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천문대는 도시가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니 별 관측에 있어서는 높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첨성대가 완성된 후 신라의 천문관측 기록 수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정밀해졌다고 합니다. 천문대가 완성되기 전인 541년에서 641년 사이 신라의 천문관측기록은 3건에 불과했고, 그러다가 첨성대가 만들어진 641년부터 740년간 38건으로 급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신라의 천문관측 기록은 고구려와 백제를 훌쩍 뛰어넘었고, 삼국시대를 통틀어 고구려와 백제의 천문관측 기록은 각각 21건과 24건인데 비해 신라는 100건이고, 이 중 76건이 첨성대 건축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유성이 떨어진 위치들입니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이후 신라가 남긴 유성관측 기록은 모두 5건으로 반월성에 돌, 황룡사와 반월성 사이에 하나, 삼랑사 북쪽에 하나, 그리고 황룡사 남쪽에 하나인데, 이 자리들은 모두 첨성대를 중심으로 반경 1km의 원형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유성 모두를 관측하려면 유성들이 떨어진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첨성대가 바로 그 영역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별을 관측했다 단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천문대라는 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p>우리는 신라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첨성대의 꼭대기로 올라가 별을 관측했었을 것이라 상상 할 수 있어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그들에게는 희망에 가득 찬 꿈, 그리고 미래,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신라인들은 ‘별’처럼 반짝이는 ‘별’ 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p> <p>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별을 만나러 이동해 볼까요?</p>
<p>계 립</p>	<p>안녕하세요.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라의 왕자가 살던 동궁과 월지에서, 두 번째는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렇다면 과연 세 번째 별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신라의 별을 따라 세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p> <p>이곳은 계림이란 곳입니다. 옛 신라인들이 신들의 숲이라 부르던 곳이죠. 그만큼 신성시 여겨지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연에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림의 자연을 응시하고 마음 속 으로 계림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 봅니다. 그때 계림 속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햇빛이 잎사귀에 부딪혀 반짝이는 모습들을 보면 자연이 허락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림이 신성시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분의 탄생설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p> <p>삼국유사에 탈해왕 4년 8월 4일 밤에 호공이 반월성 서쪽 마을을 지나가는데, 시림에서 금궐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가득 차고 흰 닭 한 마리가 울고 있어 탈해왕에게 고하셨습니다. 왕이 즉시 이 숲으로 가 궐을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있어 ‘알지’ 라 이름 하였고, 금궐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p>계림이라는 명칭은 숲에서 닭이 울었다는 데서 연유되었으며, 후에 국명으로도 쓰였다. 신라의 신성한 숲이라 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숲 만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즐비한 곳임을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또한 입구에서부터 다름을 알 수 있지요. 자, 지금까지 시각에 의존해서 해설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오감을 사용해볼까 합니다.</p> <p>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봅니다. 한분은 눈을 감고 다른 분에게 의지해서 걸어갈 건데요. 눈 감지 않으신 분은 눈 감으신 분</p>

	<p>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세요. 장애물이 나오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빼고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눈 감은 분은 자신의 감각을 믿고 걸어가 보세요. 시작해 봅시다.</p> <p>(계림의 중간 지점)</p> <p>자 눈을 뜨시고 하늘을 올려봅니다.</p> <p>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p> <p>어때요? 처음에 들어와서 봤던 숲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지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다시 걸어 볼게요.</p> <p>(계림 마지막 지점)</p> <p>다시 눈을 뜨시고 다 같이 하늘을 올려봅니다.</p> <p>파란 하늘과 흔들리는 가지에 마음을 담아 잠시 바라봅니다. 사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온다면 풍성한 잎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겨울은 또한 겨울 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것도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피로가 풀리셨다면 신들의 숲을 나가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p>
<p>월정교</p>	<p>이곳을 월정교입니다. 2018년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정교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궁궐 남쪽 문천위에 일정교, 월정교 두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우던 불국사와 석굴암, 성덕대왕신종 등 많은 불교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술력 뿐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1982년에 발견된 경주 유적조사를 통해 당시 누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여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발견된 건축 재료 중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여 역사적 의의가 뜻깊다 하겠습니다.</p> <p>그렇다면 월정교란 어떤 다리일까요?</p> <p>교각을 통해 규모를 추측하여 기초를 세웠고 발견된 목재와 출토된 기와를 통해 통일신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교각은 총 4개이며 전체 길이 60여 미터에 해당하는 지붕이 올려진 나무다리를 보면 신라인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규모에 끝나지 않습니다. 선형의 교각은 신라 시대 교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끝을 뾰족하게 하여 물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것입</p>

	<p>니다.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각을 쌓는 사이사이 흠이 발견되었는데 은장(돌이나 나무 등의 건축물 부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통일신라 건축재료)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은장은 돌과 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 유속이 강할 때에도 교각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p> <p>누교는 일반 누교와 다르게 석재가 아닌 목재로 만들었는데 만일 다리가 석재로 만들어졌었다면 전체 많은 부재중에 아치형 주재가 나와야 하는데 한점도 발견 안 된 것을 보아 역시 목재를 활용한 누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목교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기와를 얹어져야 방수역할을 하는데 발굴조사에서 기와가 확인되어 그것을 근거로 복원한 것입니다.</p> <p>왜 월정교를 지었을까요?</p> <p>월정교를 건너가면 남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당시 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신라의 성스러운 산이 바로 남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남산에는 많은 불교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p> <p>월정교는 단순히 다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는 남산으로 가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닐까요? 현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로 가고자 하는 경덕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p>
<p>최부자집</p>	<p>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p> <p>잠시 앉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에 부자가 세대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최부자집은 12대에 걸쳐 만석지기를 이어온 것은 여섯 가지 가훈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p> <p>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의 벼슬을 하지마라. 만석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흥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 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시집은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최 부자의 마지막 후손이신 최준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신 백산 안희제 선생을 도와 백산상회를 만들어 독립자금을 독립군들에게 조달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순사들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살길이다 하여 모든 재산을 대학설립에</p>

기증하면서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참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라의 탄생지부터 전성기였던 통일신라를 거쳐 광복의
시점까지 걸어왔는데요.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분들은 바로 ‘우리의 스타’ 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미래의 후손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우리 또한 그들의 과거에 스타로 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며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을 따라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천년의 숲으로 떠나는 경주국립공원 여행

(생태관광)

□ 프로그램 개요

해설주제	신라 천 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노천박물관 남산을 오르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역사 이야기에 들어본다.
운영장소	경주국립공원 남산, 화랑지구
소요시간	당일형

□ 프로그램 세부 시나리오

해설주제	상세내용
첫 만남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맡은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생태관광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p>
이야기가 있는 남산트레킹	<p>혹시 서 계시는 이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곳은 바로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하나인 경주국립공원의 남산입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곳인데요, 바로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곳 남산은 노천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 사계절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입니다. ‘남산’이라는 명칭은 신라시대 임금님이 살던 궁궐인 반월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금오봉과 고위봉의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산입니다. 남산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민간신앙과 불교문화가 잘 어우러져 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p> <p>특히 지난 2000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산은 이처럼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p>

이지만, 역사문화자원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남산을 오르면서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남산을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간단한 안전체조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삼릉까지 올라가면서 이 식물을 보게 될 거예요.(짚레꽃 사진) 한번 찾아봅시다. 5~6월 삼릉은 하얀색, 노란색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짚레나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조그마한 것이 나무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요. 소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를 ‘교목(喬木)’이라고 하고 이렇게 짚레나무처럼 키가 작은 것을 ‘관목(灌木)’이라고 부릅니다. 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가가서 짚레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경고라도 하듯 장미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짚레꽃 향기도 한 번씩 맡아 보세요. 살짝 오이향이 나지 않나요? 이른 봄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새로 나는 줄기를 꺾어 먹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짚레나무의 빨간 열매는 박새와 같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참! 짚레나무의 씨앗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시나요? 열매 색깔이 빨개서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도 잘 알아 볼 수 있대요. 새들은 빨간 열매의 맛있는 과육만 먹기 때문에 새똥에는 짚레나무 씨앗이 남아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을 따라 짚레나무 씨앗이 함께 날아다니는 거죠. 새는 날아가면서 배설을 합니다. 새 배설물과 함께 어딘가에 떨어진 짚레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틔워서 큰 짚레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짚레나무는 힘 하나들이지 않고 씨앗을 이동시킨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삼릉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무덤 때문에 이 곳을 삼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곳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세요. 굵어진 소나무도 보이고 곧게 자란 소나무도 보이죠. 이렇게 삼릉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옛 선비들의 그림이나 글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잡귀들이 못 들어

오게 대문 앞에 벚짚으로 만든 금줄을 달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와 잎을 걸어두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을 만큼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밑에 떨어져 있는 잎을 하나씩 주워보세요. 뽕족한 바늘잎이 몇 개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바늘잎 2개가 한 묶음이 된 것은 소나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줄기가 붉다고 적송(赤松), 육지에서 자란다고 육송(陸松)이라 부르기도 하죠. 바닷가 근처에도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소나무는 껍질이 붉은색이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껍질이 검은색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 솔나무(黑松)라고 하여 곰솔이라 부르는데 바닷가에서 주로 자란다고 하여 해송(海松)이라고도 불러요. 곰솔도 소나무처럼 바늘잎이 2개인데 손으로 만져보면 소나무보다는 좀 더 억세다고 합니다. 소나무와 곰솔 이외에도 바늘잎나무 종류가 많은데요. 오늘 바늘잎 개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나무 종류 몇 가지를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늘잎 5개가 모여 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고소한 잣이 열리는 잣나무인데요. 잎이 5개 달린 소나무라고 하여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합니다. 나무 껍질은 회갈색이고 소나무나 곰솔보다 잎이 약간 더 긴데 중남부지역에 많은 소나무에 비해 중부이북지역에 많이 자라요. 그리고 길가나 산기슭에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줄기에 잎이 듬성듬성 나는 나무가 있을 겁니다. 험벗은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도입해 온 리기다소나무인데 이 나무는 짧은 바늘잎 3개가 모여 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늘잎을 가진 나무들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숲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어때요? 상큼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나요?

도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의 푸르른 숲에 들어서면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듯하고 조금만 걷고 있어도 풋풋한 향을 맡을 수 있을텐데, 이 풋풋한 향의 정체가 바로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주위의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물질인데 인위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숲의 정기(精氣)’라고도 합니다. 활엽수보다는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에서 많이 방출되는데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을 산림욕이라고 합니다.
요즘 산림욕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해수욕, 일광욕과 함께 건강삼욕(三 浴)이라 불리는 산림욕은 다른 말로 녹색샤워 (green shower)라고도 해요. 산림욕은 보통 오전 6시부터 낮 12시를 전후해서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특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신경안정 및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게임 한번 해볼까요?

서로 등과 등을 맞대고 가위, 바위, 보를 해보세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들어 올려 하늘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자, 하늘에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하늘을 보니까 삐죽삐죽 침 같은 바늘잎과 동글동글하게 생긴 솔방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진 사람들은 땅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누런 솔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

소나무 잎은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 4계절 내내 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나무는 잎이 난 뒤 2년 후에 떨어진답니다.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새잎이 돋으면 지난해에 낫던 솔잎은 낙엽처럼 누렇게 되어 떨어지지만 새 솔잎이 그 푸르름을 간직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헌 잎이 떨어질 때 쯤 새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 소나무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른 식물들이 있나요?

누런 솔잎들만 보이죠? 솔잎은 다른 나뭇잎과는 달리 잘 썩지 않아요. 솔잎 속에 잔뜩 들어 있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잎을 썩지 않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멀리서 다른 식물의 열매가 이삭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솔잎이 떨어져 쌓이면 햇빛을 받지 못해 죽게 된답니다.

남산 소개

신라시대에는 경주를 서라벌, 또는 새 벌이라고 불렀는데 복되고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경주의 남산은 옛 서라벌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곳

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지이며 성지로 여겨졌던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새 벌은 산이 없는 평지였는데, 어느 날 동네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가 두 신(神)이 새 벌로 찾아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산 봐라!!”라고 외쳤어요. “산과 같은 사람 봐라!” 라고 해야 할 것을 너무 놀라 “산!! 봐라” 라고 한 것이죠. 밭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놀란 두 신은 밭을 멈추었고 산으로 변하게 되어 다시는 밭을 옮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신(男神)은 바위와 붉은 흙으로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모아 쪽 뺨은 지금의 남산이 되었고, 여신(女神)은 남산 서쪽에 아담하고 부드러운 망 산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며 정답게 솟아 있습니다.

남산은 금오봉과 고위봉 두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오봉은 높이가 468m, 고위봉은 494m로 최고봉입니다. 두 봉우리 아래 4~50여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로 만든 불상이 119체, 석탑 96기, 절터도 147개소가 남아 있으며 골짜기 마다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서 노천 박물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머리 없는 불상)

여러분 불상을 보고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나요? (얼굴이 없어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삼릉골에서 머리와, 손, 대좌가 잘린 모습입니다. 원래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답사 온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불상이 앞쪽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사, 옷 주름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불상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매듭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굴암의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석굴암의 부처님 옷은 살결이 비치는 듯이 돌을 조각하여 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각기술이 발달 할수록 불상을 표현 할 때 옷이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석불좌상의 옷은 오른쪽 한쪽만 걸쳐진 것을 편단우견이라고 합니다. 남산에는 불상이 많이 있는데 얼굴부분이 없는 불상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람에 의해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지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승유역불정책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상이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약한 머리 부분이 잘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에는 아랫부분에 흠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상부와 수평이 되도록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바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부처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조그마한 사탕 하나라도 올려놓는데 아마도 그 만큼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비는 마음을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교에 상관없이 옛 조상들께 소원을 이야기 하듯이 한 가지 소원을 빌어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삼릉계 마애관음불

우뚝 솟은 바위 위에 무엇인가 새겨 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궁금증을 가지고 불상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시는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구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님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과 눈이 부족할 정도라네요. 그래서 손이 천개 눈이 천개 달린 관세음보살도 있습니다. 이곳의 관세음보살은 미소를 담은 입술에 붉은 색이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 관세음보살은 바위 앞면을 조금 다듬고 돈을새김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이 새겨져 있으며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식도 하고 손에는 감로수를

담은 정병도 들고 있습니다. 저녁 황혼 무렵에 오면 황금빛으로 물든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와조각이나 건축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아마도 지금처럼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가파릅니다. 한줄로 서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선각육존불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기 큰 바위 면에 새겨진 여섯 분의 부처님을 볼까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모습인데 부처님과 보살을 선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선각이라는 것은 선으로 쪼아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으로 조각한 부처님이 여섯 분이 계신다 해서 선각육존불 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바위에는 서방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을 새겨놓았으며 아미타 좌우에는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향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생들에게 한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보살이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비추어주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입니다.

오른쪽 바위에는 석가모니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인도 고대왕국인 카빌라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성문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늙고 병들어 있는 사람의 생애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불교가 전파 되고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큰 성인으로 숭상 받게 됩니다.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란 법당이 있어요. 큰 영웅이란 뜻인데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대부분 석가모니 좌우에는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새겨 놓았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이고, 또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모아서 편찬한 보살로도 불리어 진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며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말으면서 언제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각육존불에 새겨져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각각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왼쪽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불과 오른쪽 바위에 새겨진 석가모니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앉아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서있는 반면에 왼쪽 바위면의 아미타불은 서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앉아 있어요. 아미타불이 서있는 이유는 다른 곳과 달리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666호)

여기 또 한분의 멋진 불상이 있습니다. 참 잘 생겼죠?

삼릉계곡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불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를 하려는 의도에서 그랬겠지만 불상의 얼굴에 시멘트를 발라 놓아 흉측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불상은 흉측해 보였지만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불상의 얼굴을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을 보면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매우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옷을 보면 오른쪽으로 어깨를 드러낸 옷 모습인데 우견편단이라고 합니다. 불상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손모양은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놓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무릎위에 놓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슴이 발달하여 당당하며 자세가 안정감이 있는 불상으로 평가 받는데 이 앉아 있는 대좌에 새겨진 연꽃의 조각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8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전각이 지어졌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자연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노천불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의 지형으로 보아 아래 계곡 쪽에 금당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불상 앞쪽에 있는 바위 위에 놓여있던 탑은 자기 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탑이 놓였던 자리는 금방 눈으로 확인이 가능 하시죠?

다행히 탑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된 것이 아름답고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 문화재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킴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내리막길이라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숲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어떤가요? 숲에서는 고사목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 동물도 세상을 떠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 생명이 깃드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이죠. 이를 ‘천이’라 하는데 순환을 통해 생명을 잇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마지막은 후회도, 남김도 없이 ‘아름답게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숲이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숲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환경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태어난 자리에서 삶이 시작됨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버드나무는 자신을 타고 오르는 칩덩굴보다 더 높이 잎을 키워내고, 어린 소나무는 어미의 그림자를 피해 줄기를 꺾으며 빛을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개척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숲이 주는 메시지 하나. ‘태어난 곳을 받아들여라’

메시지 둘. ‘관계와 연대 속에 성장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콩은 뿌리혹박테리아로부터 필수 영양소인 질소를 얻고,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영양소의 일부를 뿌리혹박테리아에게 제공합니다. 식물 대부분이 자신의 발아래 놓인 누군가를 돕고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웃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한 공생연구가의 말처럼 우리도 서로가 있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죠?

또 한가지 나무는 해가 지면 팽팽하게 끌어올린 물줄기를 내리고 푹푹하게 세운 잎의 긴장을 편안히 늦춘답니다. 여기서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숲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 마라’ 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몸집을 유지합니다. 한 때 자신을 키웠지만 이제는 짐이 되는 잎과 가지에는 더 이상 영양을 공급하기 않기 때문이죠. 무수한 잎과

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나무가 성장하듯 우리의 삶도 버림과 상실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숲이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하시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만족 숲 체험

숲 속 보물찾기

지금부터 숲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보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가벼운 트레킹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엄청 많은 풀과 나무들을 보셨을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주변의 나무나 풀들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숲 속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있고 가지고 있는 잎이나 열매의 모양도 모두 다르답니다. 각자의 모양을 간직한 숲 속의 보물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 던지기 올림픽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지금 우리 주위에 제일 많이 보이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소나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꼽히기도 하죠. 땅에 떨어진 동그란 모양의 열매가 바로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사이에서 날개비늘이 달린 솔방울 씨앗이 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곳 삼릉에는 소나무가 많아 땅에서 굴러다니는 솔방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솔방울은 날씨가 습하거나 비가 온 이후에는 열매를 오므리고,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는 열매가 활짝 벌어진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솔방울을 가습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솔방울을 물에 잠시 담구어 두었다가. 솔방울이 오므라들면 꺼내어 건조한 곳에 두면 활짝 벌어지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을 공기 중에 퍼트려준답니다. 신기하고 모양도 예쁜 솔방울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려하는데요. 우선 땅에 떨어져있는 솔방울을 3개씩 주워서 다시 모여주세요. 예쁜 솔방울을 주워 오셨나요?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누어서 앞에 자연물로 만들어진 골대에 한 명씩 솔방울을 넣어 마지막에 골대 안에 솔방울이 많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p>힐링 기체조</p> <p>도심을 벗어나서 소나무가 울창한 숲에 오셨는데요. 숨을 깊게 한번 들이셔 볼까요? 코에 향긋한 숲의 향이 느껴지시나요?</p> <p>향긋한 향의 정체는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는 살균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뿜어내는데, 보통 일조량이 가장 많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합니다. 피톤치드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심폐기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마구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숨을 깊게 쉬어서 몸에 가득가득 담아가지길 바랍니다. 심호흡과 더불어 찌뿌듯한 몸을 풀기위한 기체조 동작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호흡과 동작에 집중해서 차분히 따라해 보세요.</p> <p>스트레스 타파 다도체험</p> <p>기체조를 통해서 개운하게 찌뿌듯한 몸을 풀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갈증도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p> <p>지금까지 같이 나누어본 일상의 스트레스들을 차를 마시면서 오늘 여기 삼릉 소나무 숲에 모두 털어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차는 국화차입니다. 두통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 조선시대 왕세자들도 즐겨마셨는데요. 향긋한 국화향을 천천히 음미하고, 귀로는 숲 속의 소리를 들으며 차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p>
<p>화랑지구 생태역사 체험</p>	<p>화랑지구 소개</p> <p>경주국립공원은 총 8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지금 우리가 있는 화랑지구는 1971년 서악지구, 단석산 지구, 소금강 지구와 함께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화랑지구는 김유신장군묘가 속해 있는 곳으로 삼국을 통일한 화랑의 얼이 살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김유신장군의 일대기</p> <p>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의 김유신장군</p>

묘입니다.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으로, 15세에 신라의 화랑이 되어 2년 뒤, 외적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중악의 석굴로 들어가 수련했습니다. 이 때 ‘난승’ 이라는 노인을 만나 삼국통일에 쓸 비법을 전수받았으며, 전쟁터에 나가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 부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수련을 하던 중에 별 두 개가 김유신의 칼에 내려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는 칼 솜씨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외교를 담당했다면, 김유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아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인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후 큰 공을 인정받아 ‘태대각간’ 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김유신은 673년 7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문무왕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채색비단 1천 필과 벼 2천 석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했으며 그는 금산원 (지금의 경주시 송화산으로 추정)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42대 흥덕왕 때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존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김유신장군묘 앞에는 조선시대 세워진 ‘신라태대각간 김유신묘’ 와 근대에 세운 ‘개국공순충장렬 흥무대왕릉’ 이라는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둘러싼 돌에 왕의 무덤을 지켜주는 십이지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이지상의 동물들도 살펴보고 삼국통일의 큰 공을 세운 김유신장군을 기리는 마음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는 삼국 중에서 몇 번째로 세워진 나라일까요? 신라는 삼국 중 세 번째 가장 늦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6세기 중엽 이후, 안으로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기르고, 밖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펴 당과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후 다시 나당 전쟁을 통해 이 땅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온전히 삼국을 통일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첫째, 삼국통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한 정부 밑에 모여 단일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삼국이 각각 독립된 채로 그대로 발전하였다면 우리 민족은 셋으로

갈린 채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세 민족으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 삼국의 통일로 우리 민족 문화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은 각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통일 후 신라는 이들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하나의 뚜렷한 성격을 가지는 우리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당 세력을 힘으로 물리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룩하고 있던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지배하려 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라는 이러한 야심을 힘으로 물리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구려의 넓은 옛 땅을 잃어버린 채 이루어진 통일이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된 단일 국가가 생겨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국가를 예전의 삼국 시대의 신라와 구분하여 '통일신라'라 부릅니다. 또한 통일신라는 정치면에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왕권을 강화하였고, 문화면에서는 삼국 통일 후 경제적 발달을 기반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통합된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당의 문화도 받아들여 더욱 세련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화랑의 세속오계

김유신이 속해있던 화랑은 신라시대 청소년 수련 단체입니다. 진흥왕 때 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신라가 화랑도 제정을 서두른 것은 군대를 보충할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져있는데, 화랑은 용모가 단정하고 믿음직하며 사교성이 풍부한 진골 귀족 가운데서 낭도의 추대를 받아 뽑혔습니다. 그들은 효와 충을 배우고 일상생활의 규범, 전통, 각종의식에 관한 교육을 배우며 산천을 돌아다니고 무술을 연마하는 군사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신라 제 24대 진흥왕 때 귀족 출신의 젊은이 중에 지혜롭고 총명하며 주변 모범이 되는 자를 뽑아 단장시켜 이들을 화랑이라 불렀습니다. 꽃 화(花) · 사내 랑(廊), 지금의 꽃미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왕 대 김흠돌의 난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국선으로 부활된 뒤 신라 말까지 계승되었으며,

<<삼국사기>>에 인용된 화랑세기의 서문에는 화랑을 가리켜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에서 생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신을 비롯해 화랑도의 시작과 화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신라시대 화랑이 지켜야했던 계율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화랑이 지켜야했던 5가지 계율은 화랑오계라고도 하는데,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 귀산과 추항에게 가르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화랑들에 의해 이 계율이 잘 지켜졌고 그래서 화랑도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1.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되 충성을 다 하라.

진덕여왕 때 비담과 염종이 난을 일으킨다. 때마침 하늘에서 별뚝별이 떨어져 전세가 불리해지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연을 띄워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출을 한다. 그리고는 ‘떨어졌던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으니 왕이 승리할 것’ 이라고 소문을 내어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성공한다.

2. 사친이효: 부모를 섬기되 효를 다 하라.

술집 기생 천관을 만나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술집에 가지 말라고 타이르자 천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늦도록 먹고 정신이 들어보니 천관의 집 앞임을 알고 김유신은 타고 온 말의 목을 베고는 다시는 천관을 찾지 않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다.

3.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

말 타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짐승이든 사람이든 목숨은 귀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축이 없는 화살을 이용하였다.

4. 임전무퇴: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라.

김유신장군은 15살에 화랑이 되어 79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으니 임전무퇴라는 말이 무색하다.

여기! 또 다른 화랑의 이야기가 있다. 관창!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치열한 전투에 좀처럼 신라군이 승기를 잡지 못하자 ‘모범을 보이라’는 아버지 품일 장군의 명에 따라 관창이 적진에 뛰어 든다.

백제의 계백 장군이 투구를 벗겨보니 너무 어린 소년이라 용기가 가사타며 그냥 돌려보낸다. 이에 관창은 백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아 오지 못해 분하다며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고 계백 장군은 이번에는 관창의 머리를 벤 뒤 말안장에 매어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 어린 화랑의 죽음을 본 신라군의 사기가 높아지고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 때 관창의 나이가 16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놓으라하면 “예, 제 목숨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나설 친구가 있을까요?

5. 교우이신: 벼를 사귀되 믿음 다 하라.

백제와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백제가 다시 침범 해 온다는 급보를 받고 다시 출정하는 길에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게 되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출정하는 여러 낭도를 생각해 물만 마신 후 길을 떠났다. 화랑 사다함의 이야기도 있다. 대가야를 정벌하는데 일등 공로자인 사다함은 친구 무관랑이 병으로 사망하자 몹시 슬프게 울다가 끝내 친구를 따라 7일만에 죽는다. 그의 나이 17세. 같이 죽기로 친구와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킨 사다함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김유신과 세속오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계율은 몇 개일까요?

‘살생유택’ 외래식물 제거작전

지금 여러분 앞에 한 식물이 있는데요.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을 알고계십니까? 이 식물의 이름은 돼지풀입니다. 돼지처럼 번식력이 좋아서 돼지풀이라 하는 외래종인데 해외군수용품에 딸려서 들어온 식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돼지풀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들이 있는데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야생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관리가 없으면 야생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경우는 귀화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외래생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침입외래종은 ‘의도적’으로 도입된 이후 ‘관리가 부족하여 자연생태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황소개구리나 왕 우렁이, 블루길 등은 식용이나 농가소득용으로 들여오게 되었고, 붉은귀 거북은 방생이나 애완용으로 유입

되었습니다. 외래식물은 대표적으로 돼지풀, 미국자리공, 환삼덩굴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물들의 특징은 번식력이 뛰어나며, 성장과 개화가 빠르고 확산과 적응영역이 넓다는 점입니다. (예로 돼지 풀과 미국자리공을 들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설명판을 참조) 그렇기 때문에 외래식물이 분포하는 공간은 지속적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에서 신라의 화랑으로 되살아나 우리의 자연, 국립공원 안에서 무자비하게 번식하고 있는 ‘외래종 제거 대작전’을 해보겠습니다. 화랑의 세속오계 중 ‘살생유택’을 떠올리며 우리의 숲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돼지풀의 생김새를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외래종만 제거할 수 있겠죠? (사진자료준비) 돼지풀은 풀속에 섞여 있을 때 쭉의 모양과 비슷하여 헛갈리기 쉬운데요. 줄기나 잎 뒷면을 보았을 때 잔털이 있으면 돼지풀입니다. 잔털이 있으면 쭉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뽑아야합니다. 확인을 하고 뽑을 때에는 뿌리 채로 뽑아야 하므로 힘을 주어 뽑도록 합니다. 시작 전 장갑과 비닐봉지를 하나씩 받으시고 40분뒤 바로 아래 흥무공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환경서약 - 임신서기석 만들기

직접 외래종제거를 해보니 어떠셨나요?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온 자리에 외래종이 제거되어 더 건강한 숲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의 활동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활동으로 임신서기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만들어 졌으며 신라의 두 청년이 나라에 충성하고, 학문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비석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고를 이용하여 임신서기석을 만듭니다. 석고가루에 물을 붓고 게어준 뒤 석고틀에 부어 굳을 때까지 잠시 동안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석고가 완전히 굳어지면 조심히 석고틀에서 떼내어 줍니다. 바로 이 모양이 임신서기석의 모양입니다. 신라시대의 청년들은 학문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했지만 우리는 환경에 대한 나의 서약을 해보려합니다.

	<p>오늘 우리의 손으로 직접 외래종을 제거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서약을 직접 만든 임신서기석 뒷면에 적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분리수거 바르게 하기,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늘 가지고 다니기 등 사소하지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봅시다.</p>
<p>마무리</p>	<p>이렇게 우리는 경주국립공원의 남산지구와 화랑지구를 보았는데요. 삼국통일에 힘쓴 김유신 장군과 신라의 화랑도와 그들의 정신 세속오계까지. 오늘 우리는 다함께 경주국립공원 속 울창한 숲과 풍부한 자연 속에서 했던 자연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래종에 대해 바로 알고 직접 제거해봄으로써 국립공원을 가꾸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서약을 신라의 화랑의 정신을 떠올리며 임신서기석에 새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생생히 남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이번 생태관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오래도록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경주국립공원을 사랑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p>

대표 프로그램

1. 남산의 꽃, 나무, 동물 이야기
2.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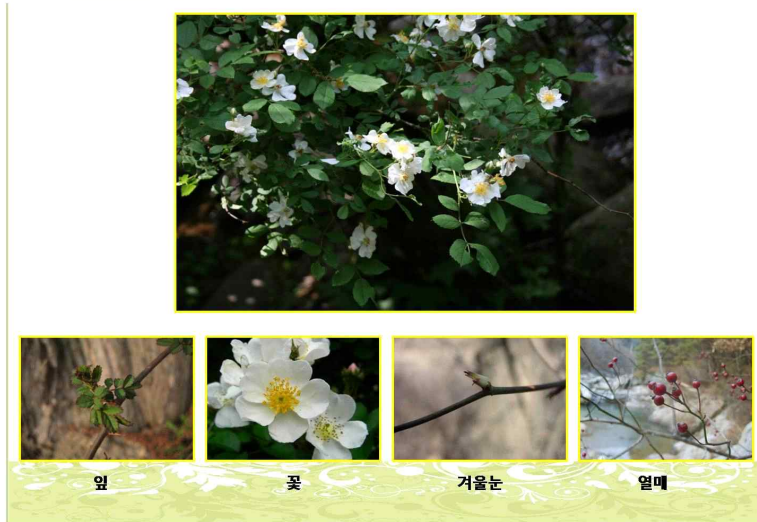
남산의 꽃, 나무, 동물 이야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제 2016-131호)

해설주제	상세내용
첫인사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p> <p>저는 오늘 여러분과 남산 삼릉에서 바둑 바위까지 간단한 산행을 하며 자연해설과 역사문화해설을 할 000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오늘 굉장히 설레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 할까 생각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선물을 주는 기분으로 남산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산 탐방 해설을 듣고 나서, ‘경주 남산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다시 와보고 싶은걸’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p>
호기심 유발	<p>숲에 오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도토리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제부터 남산의 숲 생태계를 자세히 관찰하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귀여운 동물과 만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경주에 오셨으니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들어야겠죠? 산에 무슨 역사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곳곳에 숨겨진 신라의 정신과 숨결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p>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p>혹시 서 계시는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p> <p>이곳은 옛날 신라시대 임금님이 살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어 남산이라 이름 붙인 곳으로 금오봉과 고위봉의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산인데요. 남산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민간신앙과 불교문화가 잘 어우러져 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어 노천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남산 안내도 앞)</p> <p>그래서 우리나라는 1968년에 찬란한 불교문화가 서려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에 안은 토함산을 비롯한 경주 각지의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 8개 지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덧붙여, 경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22개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p>

이에요. 현재 이곳 남산을 비롯하여 경주의 5개 지역이 ‘경주 역사유적 지구’로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이란 유네스코에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유적지나 건축물, 조각, 그림, 고고학적 장소를 손실이나 파괴의 위험으로부터 복구 및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유산입니다. 지금부터 남산에 있는 자연과 문화재를 찾아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릉까지 올라가면서 이 식물을 보게 될 거예요. (짚레꽃 사진) 한번 찾아봅시다.

짚레나무



짚 레

5~6월 삼릉은 하얀색, 노란색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짚레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조그마한 것이 나무야?”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요. 소나무처럼 키 큰 나무를 ‘교목(喬木)’이라고 하고 이렇게 짚레나무처럼 키 작은 것을 ‘관목(灌木)’이라고 부릅니다. 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가가서 짚레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경고라도 하듯 장미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짚레꽃 향기도 한 번씩 맡아 보세요. 살짝 오이 향이 나지 않나요? 이른 봄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새로 나는 줄기를 꺾어 먹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짚레나무의 빨간 열매는 박새와 같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p>참! 짙레꽃의 씨앗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세요? 열매 색깔이 빨개서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도 잘 알아볼 수 있대요. 새들은 빨간 열매의 맛있는 과육만 먹기 때문에 새똥에는 짙레꽃 씨앗이 남아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을 따라 짙레꽃 씨앗이 함께 날아다니는 거죠. 새는 날아가면서 배설을 합니다. 새 배설물과 함께 어딘가에 떨어진 짙레꽃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틔워서 큰 짙레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짙레나무는 힘 하나들이지 않고 씨앗을 이동시킨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p>
<p>소나무</p>	<p>여러분, 여기가 바로 삼릉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무덤 때문에 이곳을 삼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세요. 굵어진 소나무도 보이고 곧게 자란 소나무도 보이죠. 이렇게 삼릉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옛 선비들의 그림이나 글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잡귀들이 못 들어오게 대문 앞에 벚짚으로 만든 금줄을 달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와 잎을 걸어 두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을 만큼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나무랍니다.</p> <p>여러분, 밑에 떨어져 있는 잎을 하나씩 주워보세요. 뽕족한 바늘잎이 몇 개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바늘잎 2개가 한 묶음이 된 것은 소나무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줄기가 붉다고 적송(赤松), 육지에서 자란다고 육송(陸松)이라 부르기도 하죠. 바닷가 근처에도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소나무는 껍질이 붉은색이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껍질이 검은색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 솔나무(黑松)라고 하여 곱솔이라 부르는데 바닷가에서 주로 자란다고 하여 해송(海松) 이라고도 불러요. 곱솔도 소나무처럼 바늘잎이 2개인데 손으로 만져보면 소나무보다는 좀 더 역세다고 합니다.</p> <p>소나무와 곱솔 이외에도 바늘잎나무 종류가 많은데요. 오늘 바늘잎 개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나무 종류 몇 가지를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늘잎 5개가 모여 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고소한 잣이 열리는 잣나무인데요. 잎이 5개 달린 소나무라고</p>

하여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합니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소나무나 곰솔보다 잎이 약간 더 긴데 중남부지역에 많은 소나무에 비해 중부 이북 지역에 많이 자라요. 그리고 길가나 산기슭에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줄기에 잎이 듬성듬성 나는 나무가 있을 겁니다. 험벗은 산을 푸르게 조성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도입해 온 리기다소나무인데 이 나무는 짧은 바늘잎 3개가 모여 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늘잎을 가진 나무들 구분할 수 있겠죠?




**소나무와
산림욕**

여러분, 숲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어때요? 상큼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나요? 도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의 푸르른 숲에 들어서면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듯하고 조금만 걷고 있어도 푹푹한 향을 맡을 수 있으실 텐데, 이 푹푹한 향의 정체가 바로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주위의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자기방어 물질인데 인위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숲의 정기(精氣)’라고도 합니다. 활엽수보다는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에서 많이 방출되는데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을 산림욕이라고 합니다.

요즘 산림욕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해수욕, 일광욕과 함께 건강 삼욕(三浴)이라 불리는 산림욕은 다른 말로 녹색 샤워 (green shower)라고도 해요. 산림욕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정오를 전후해서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특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신경 안정 및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p>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게임 한번 해볼까요? 서로 등과 등을 맞대고 가위, 바위, 보를 해보세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들어 올려 하늘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자, 하늘에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하늘을 보니까 삐죽삐죽 침 같은 바늘잎과 동글동글하게 생긴 솔방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p> <p>자, 그럼 이제 진 사람들은 땅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p> <p>누런 솔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 소나무 잎은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 4계절 내내 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나무는 잎이 난 뒤 2년 후에 떨어진답니다.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새잎이 돋으면 지난해에 낳던 솔잎은 낙엽처럼 누렇게 되어 떨어지지만 새 솔잎이 그 푸름을 간직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흰 잎이 떨어질 때쯤 새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 소나무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른 식물들이 있나요? 누런 솔잎들만 보이죠? 솔잎은 다른 나뭇잎과는 달리 잘 썩지 않아요. 솔잎 속에 잔뜩 들어 있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잎을 썩지 않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멀리서 다른 식물의 열매가 이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솔잎이 떨어져 쌓이면 햇빛을 받지 못해 죽게 된답니다.</p>
<p>남 산</p>	<p>신라 시대에는 경주를 서라벌, 또는 ‘새벌’이라고 불렀는데 복되고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경주의 남산은 옛 서라벌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p>
<p>남산에 얽힌 유래</p>	<p>이곳 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지이며 성지로 여겨졌던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새벌은 산이 없는 평지였는데, 어느 날 동네 처녀가 빨래하고 있다가 남신과 여신 두 신(神)이 새벌로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산 봐라!!”라고 외쳤어요. “산과 같은 사람 봐라!” 라고 해야 할 것을 너무 놀라 “산!! 봐라”라고 한 것이죠. 밭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놀란 두 신은 밭을 멈추었고 산으로 변하게 되어 다시는 밭을 옮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신(男神)은 바위와 붉은 흙으로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모아 죽 뺀 지금의 남산이 되었고, 여신(女神)은 남산 서쪽에 아담하고 부드러운 망산이 되어 서로를 마주 보며 정답게 솟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신과 여신은 서로 바라만 볼 뿐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p>

	<p>남산은 금오봉과 고위봉 두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오봉은 높이가 468m, 고위봉은 494m로 최고봉입니다. 두 봉우리 아래 4~50여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로 만든 불상이 130기, 석탑 99기, 절터도 150개소, 왕릉 13기가 있으며 골짜기마다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서 노천 박물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p>
<p>역사적 의의</p>	<p>신라인들은 남산의 바위 곳곳에다 수많은 마애불과 탑을 만들고 절을 세웠습니다. 또한 남산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BC57)가 남산기슭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났으니 나라의 시작을 알린 곳이며 포석정은 신라 역사의 마지막을 알린 장소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나정 발굴 현장〉</p> <p>그러므로 남산은 신라의 시작과 끝을 알린 신성한 산이자 신라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며 숭배했던 성스러운 산이기도 했으며, 계곡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문화재가 있어 온종일 걸어 다녀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p>
<p>‘배리’의 유래</p>	<p>이곳은 3기의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삼릉이라고 불립니다. 삼릉을 설명해 놓은 안내판을 보면 삼릉 앞에 ‘배리’란 말이 붙는데 ‘배리’는 삼릉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에요. 신라 시대에는 부모의 제삿날에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와서 불공을 드려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산 자락에 살고 있던 유렴이라는 재상이 부모님 제삿날에 아는 스님을 통해 훌륭한 스님 한 분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상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려는 과시욕도 있고 해서 가장 훌륭한 스님께 부모님의 제사를 부탁드려 큰 효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렴은 부모님께 큰 효도를 행할</p>

	<p>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스님이 유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행색이 초라하고 불결하여 유림은 그 스님을 푸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가만히 소꿉자락에서 뭉가를 꺼냈어요. 그때였습니다.</p> <p>갑자기 사자로 평 하고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를 타고 노승은 산으로 올라가 바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림은 ‘신통하고 덕이 높은 스님이었는데 내가 겉모습만 보고 무례하게 행동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유림이 스님이 사라진 곳을 향해 밤새 절을 하였다고 하여 절하는 동네라는 뜻의 배리(拜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냉 골</p>	<p>입구에 오면 노송들이 우거져 있어 좋은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계곡은 금오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름에도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고 찬 바람이 불어 냉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산 4~50개나 되는 골짜기 중에서도 유적지와 유물이 가장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계곡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삼릉에 묻힌 왕들</p>	<p>신라는 992년을 통치하는 동안 56분의 왕이 계셨는데, 그중 제8대 아달라왕,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의 왕릉이 이곳에 있습니다. 삼릉의 주인공이 신라의 박 씨 성을 가진 세분의 왕이라 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고 신라 초기의 아달라왕과 신덕왕, 경명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무덤이 한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라 초기에는 이와 같은 대형무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조선 영조 6년 경술년(1730)에 경주부윤으로 있던 김시형이 박씨 문종과 타협하여 잃어버린 왕릉을 찾는 작업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8대 아달라왕은 백제가 침입하여 백성들을 잡아가지 직접 군사를 일으켜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백제가 화친을 요청해서 포로들을 석방한 정말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53대 신덕왕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싸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덕왕의 아들인 제54대 경명왕은 후백제의 견훤이 대야성을 침입할 당시에 고려 태조 왕건과 손을 잡고 대야성 공격을 막아 내었습니다. 모두 신라를 위해 싸웠지만 천년 왕조를 유지했던 신라는 그 후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삼릉</p>	<p>지금은 늪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삼릉 또한 세월의 무게 앞에서 흠이 허물어지고 토끼나 여우 등의 짐승들이 굴을 파는 등 훼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p> <p>특히, 가운데 왕릉은 53대 신덕왕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953년과 1963년에 도굴을 당해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굴식돌방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굴식돌방무덤이란 판 모양의 돌을 이용하여 널(관)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 방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봉토를 씌운 무덤을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무덤 내부에 신라 왕릉에서는 처음으로 오방색(우 청색, 좌 백색, 남 붉은색, 북 검은색, 중앙황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p> <p>과연 문화재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을 못 했구나! 앞으로는 이런 전철은 밟지 말고 잘 보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남산을 너무 잘 오신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옆으로 50m 정도만 이동하시면 신라 제55대 경애왕릉도 이곳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탐방로</p>	<p>자! 이제부터 목재 데크가 깔린 탐방로를 따라 걸어 올라갈 텐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여 탐방로의 훼손을 막는 동시에, 나무들의 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의 상행안전을 위하여 잠깐 몸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운동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진달래의 전설</p>	<p>여러분, 이곳을 한번 보세요. 봄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p> <p>이른 봄 여기 삼릉 주변에는 진달래꽃이 하늘하늘 피어오릅니다. 봄의 전령사 진달래는 산성토양에서 생존력이 강해 경쟁자 없이 세력을 확장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이 내놓는 방어 물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전 험벗었던 산성토양인 산에는 키 큰 소나무 숲 아래 키 작은 진달래들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중국 촉나라 망제(望帝)인 두우(杜宇)가 위나라와의 싸움에 패한 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죽자 두견새가 되어 밤새 울어 피를 토한 것이 진달래의 꽃잎에 떨어져 붉은색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진달래로 담근</p>

	<p>술을 두견주(杜鵑酒)라고 부르는 것도 이 전설에서 비롯된 거랍니다.</p>
<p>진달래와 철쭉과의 구별법</p>	<p>여러분은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할 줄 아시나요? 진달래와 철쭉 모두 진달래과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p> <p>우선 3~4월경 꽃만 덩그러니 핀다면 진달래고 잎과 꽃이 같이 있다면 철쭉인데요. 진달래는 꽃이 질 때쯤 잎이 나고 철쭉은 잎과 꽃이 같이 나기 때문에 철쭉의 꽃보다는 진달래꽃을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또, 진달래 잎은 마름모꼴의 끝이 다소 뾰족한 형태지만 철쭉은 둥근 계란형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꽃이 진 뒤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답니다.</p> <div data-bbox="470 884 1284 1467"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진달래와 철쭉 진달래와 철쭉을 비교해 보아요.</p>  </div>
<p>철쭉</p>	<p>철쭉이란 이름은 꽃이 아름다워 나그네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척촉(擲燭)’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연분홍색 꽃이 핀다고 해서 ‘연달래’로 부르기도 합니다.</p> <p>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참꽃’이라 부르는데 철쭉에는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지요.</p>
	<p>여러분, 이곳에서는 잠시 허리를 굽혀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산행을 하시다 보면 앞만 보고 아래쪽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래쪽에 있는 덩굴식물 하나를 보고 갈게요. 전국의 산과 들, 나무 밑에 흔히 자라는 청미래덩굴은 가을철에</p>

빨갭게 익는 열매가 매력적이고 윤기가 나는 둥근 잎과 가시와 덩굴손이 달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청미래덩굴을 망개(나무)라고 부르는데, 떡을 찢을 때 이 잎으로 싸서 만든 떡을 망개떡이라고 부른답니다. 청미래덩굴 잎에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부패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어 비교적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미래덩굴

청미래
덩굴



망개떡

열매와 꽃

덩굴식물은 덩굴손, 뿌리, 줄기를 이용해 바위나 큰 나무를 감거나 붙어 자랍니다. 햇빛을 향해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덮어 강한 빛과 바람으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덩굴성 콩과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에 고정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숲의 나무들은 서로 도우며 어울려 살아간답니다.

때죽나무
이름의 유래

여기 보이는 나무는 때죽나무예요. 이름이 특이하죠?
 때죽나무란 이름의 유래에는 나무껍질이 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안 씻으면 이렇게 될까요?
 때죽나무는 아마도 엄청난 게으름뱅이인가 봅니다. 유래에 관한 다른 얘기로는 때죽나무의 열매와 잎에 사포닌류의 마취성분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어 이것들을 잘게 빻아 고인 물이나 웅덩이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때로 기절 시켜 잡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유래에 관한 다른 얘기로는 때죽나무의 열매와 잎에 사포닌류의 마취

성분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어 이것들을 잘게 빻아 고인 물이나 웅덩이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때로 기절 시켜 잡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때죽나무 안쪽으로 들어와 위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꼭 밤하늘의 별들처럼 총총히 무리 지어 있지 않나요?

때죽나무는 5월경 흰 종 모양의 꽃이 피는데 서양에서는 ‘종 모양의 흰 눈’이란 뜻의 Snowbell, 혹은 ‘눈송이 꽃’이란 뜻의 snow-flake flower 라고도 부른답니다.

때죽나무













때죽나무의 꽃과 열매

때죽나무 꽃의 아름다움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여기 계곡 쪽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거리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가 없어서 대략 5리(里)마다 오리나무를 심어 이정표로 삼았다고 해서 오리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사방팔방 오리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은 아쉽게도 오리나무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사촌쯤 되는 물오리나무나 사방오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것은 예전에 나무가 없어 험벗은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리나무 종류는 다 자라면 20m까지 크는데 꽃은 잎이 나기 전인 이른 봄에 피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꽃가루가 쉽게 잘 날리는 수꽃 이삭이 가지 끝에 축 늘어져 달리는데 그 둘레에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붉은색 암꽃이 같이 핀답니다. 잎은 꽃이 질 무렵에 길쭉한 타원형으로 납니다.

<p>물오리나무와 사방오리나무 의 비교</p>	<p style="text-align: center;">오리나무 물오리나무와 사방오리나무의 비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사방오리나무</th>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물오리나무</th>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사방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물오리나무								
									
									
									
<p>봄을 알리는 생강나무</p>	<p>보통 도시에서 봄의 전령사로는 개나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산에서는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나무가 생강나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가 바로 이른 봄 샛노란 꽃이 피는 생강나무 인데요. 가지나 어린잎을 따서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생강나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3월경 동그란 꽃망울이 벌어지면서 꼭 우산 모양처럼 작은 꽃들을 뭉쳐 달고 나뭇가지에 울망줄망 납작하게 붙어납니다.</p> <p>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생강보다도 생강나무가 먼저 자라고 있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강나무 잎을 말려 생강 대신 향신료로 쓰기도 하였고,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중북 이북 지방에서는 동백나무 대신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산동백 혹은 동박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는 문학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이 배경인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도 사실은 생강나무꽃 말하는 것이고 정선아리랑에도 ‘동박’이라고 표현한 생강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 장 철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우라지 지 장구 아저씨 배 좀 건네주게 짜리골 울 동박이 다 떨어진다</p>								

생강나무와 산수유는 이른 봄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데 꽃 모양도 비슷하고 같은 노란색이라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강나무는 작은 꽃송이를 달고 있는 꽃자루가 짧아서 꽃이 가지 끝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지만, 산수유는 꽃자루가 길고 생강나무보다 꽃송이가 작아서 성글어 보이지요. 또한 나무줄기의 껍질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으면 산수유예요.

생강나무와
산수유의
구분 방법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산에서 보이는 건 생강나무고 마을 가까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건 대부분 산수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살나무

하나의 나무줄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마치 작살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작살나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골짜기에서 자랍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8월이면 자잘한 분홍색 꽃이 피는데 워낙 크기가 작아서 좀처럼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밀원용으로 심기도 한답니다.

10월이 되면 보랏빛 구슬의 열매가 알알이 맺히는 작살나무는 마치 작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보입니다

<p>작살나무 열매와 꽃</p>	<p style="text-align: center;">작살나무</p>  <p style="text-align: center;">열매 꽃</p>
<p>붉나무</p>	<p>‘단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풍나무죠? 하지만 단풍나무만이 가을에 붉게 물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나무도 가을이면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드는데, 특히 잎이 붉게 물든다고 해서 ‘붉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p>
<p>붉나무와 울나무 종류의 구별 방법</p>	<p>붉나무는 울나무나 개울나무와도 많이 닮았는데요. 이것은 식물분류학적으로 같은 속(屬)이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지금 제가 이 셋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울나무는 잎자루가 녹색인데 개울나무는 잎자루가 붉은 색이에요. 울나무 종류는 만지면 옷 독이 오를 수 있으니 알아두심이 좋을 것 같고요. 붉나무는 잎과 가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잎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구별이 가능하답니다.</p> <p>자, 이제 어디서든 붉나무와 울나무, 개울나무를 구별할 수 있겠죠?</p>
<p>오배자나무</p>	<p>붉나무는 간혹 오배자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배자(五倍子)라는 것은 진딧물 종류인 오배자면충이 붉나무의 잎이나 가지에 기생하여 만든 벌레혹을 말하는데 붉나무에 잘 생기기 때문에 오배자나무라고 한답니다.</p> <p>붉나무 잎을 한번 세어보세요. 작은 잎은 7~13개 정도 되는데 8~9월이 되면 꽃이 핀답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작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익으면 짠맛과 신맛이 나는 흰 가루로 덮이는데요. 이것을 소금이 귀한 산속에서는 소금 대신</p>

쓰거나 또,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쓰기도 했다고 하니 붉나무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나무이자 실생활에도 유용한 나무였겠죠?

그런데 여름내 푸르른 잎들을 간직하고 있던 잎들은 왜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걸까요?

단풍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나무



단풍이 드는 이유



단풍이 드는 이유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빛을 흡수하는 색소인 70여 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봄과 여름에는 많은 양의 엽록소에 가려져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고 빛이 적어지면서 공기 또한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잎에 수분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활동을 멈추게 됨으로써 붉은색을 띠는 카로틴과 노란색을 띠는 크산토펜 그리고 안토시아닌(붉은 색소)과 같은 색소가 엽록소(초록 색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빨강과 노란 색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산에서 첫 번째 불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어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불상을 보고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나요? (얼굴이 없어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삼릉골에서 머리와, 손, 대좌가 잘린 모습입니다. 원래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답사 온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불상이 앞쪽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사, 옷 주름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어

<p style="text-align: center;">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머리 없는 불상)</p>	<p>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불상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매듭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굴암의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석굴암의 부처님 옷은 살결이 비치는데 돌을 조각하여 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각 기술이 발달 할수록 불상을 표현 할 때 옷이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석불좌상의 옷은 오른쪽 한쪽만 걸쳐진 것을 편단우견이라고 합니다. 남산에는 불상이 많이 있는데 얼굴부분이 없는 불상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람에 의해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지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송유역불정책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상이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약한 머리 부분이 잘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에는 아랫부분에 흠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상부와 수평이 되도록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바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부처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조그마한 사탕 하나라도 올려놓는데 아마도 그 만큼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비는 마음을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교에 상관없이 옛 조상들께 소원을 이야기 하듯이 한 가지 소원을 빌어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마애불의 특징</p>	<p>앞서 배리 마을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에서 스님이 사자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옛날 신라 때 사람들은 바위를 숭상하고 바위에도 부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리 이야기 같은 설화도 생겨나고 새겨놓은 불상을 보면 바위에서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형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p> <p>남산에는 마애불이 많이 있는데요. 마애불은 갈 마(摩), 벼랑 애(崖)자를 써서 절벽 바위에 새겨 놓은 불상을 말합니다. 이런 마애불의</p>

특징 중 하나는 훼손이 적다는 것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여래좌상 같은 경우에도 큰 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목이나 손처럼 가늘고 약한 부분이 있어 손상 될 수도 있었지만, 마에불은 바위에 거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불상보다는 훼손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마에관음보살상>

우뚝 솟은 바위 위에 무엇인가 새겨 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궁금증을 가지고 불상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오른손은 설법인을 표시하여 가슴에 대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化佛)이 조각되어 관세음보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삼릉계
마에관음불**

여기서 ‘나무’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시는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구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님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과 눈이 부족할 정도라네요. 그래서 손이 천개 눈이 천개 달린 천수 천안관세음보살도 있습니다. 이곳의 관세음보살은 미소를 담은 입술에 붉은색이 남아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집니다.

부처님을 비바람이 치는 노천에 세운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위 벼랑에 불상을 새기고 산기슭에서 올라다보며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를 때 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감격을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 함은 아니었을까요?

광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뒤쪽의 비스듬한 바위를 광배 삼아 보살상을 조각했기에 방금 하늘에서 하강한듯한 모습입니다. 저녁 황혼 무렵에 오면 황금빛으로 물든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내려가는 길은 가파릅니다. 한 줄로 서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p>팔배나무</p>	<p>여러분, 여기 식물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지금 잠시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 모양을 한번 상상해보세요.</p> <p>이 나무는 팔과 연관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요. 5~6월에 배꽃을 닮은 흰 꽃이 피고 난 다음 가을에 팔처럼 생긴 작은 열매가 열려 팔배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11월경이 되면 열매들이 팔처럼 아주 붉게 익어 팔을 연상시키는데 빨간 열매는 새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p> <div data-bbox="438 593 1197 1142"> <p>팔배나무</p> </div>
<p>고사목</p>	<p>나무는 살아있을 때 숲속의 생물에게 집이 되어주고 먹이를 제공하지만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제공하여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기까지 합니다.</p> <p>고사목은 곤충의 아파트이므로 국립공원에서는 죽은 나무 하나도 매우 소중합니다. 죽은 나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비와 바람에 꺾질이 부드러워지고, 버섯의 중요한 식사가 되고 고사목에는 개미나 많은 곤충이 몸을 숨기거나 알을 낳고 이 벌레를 먹기 위해 새들도 자주 죽은 나무를 찾는데 이는 자연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순환하고 있습니다.</p>
<p>숲이 주는 메시지</p>	<p>여러분 어떤가요? 숲에서는 고사목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 동물도 세상을 떠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 생명이 깃드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이죠. 이를 ‘천이’라 하는데 순환을 통해 생명을 잇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마지막은 후회도, 남김도 없이 ‘아름답게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숲이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p> <p>이것 외에도 숲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p>

	<p>나무는 환경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태어난 자리에서 삶이 시작됨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버드나무는 자신을 타고 오르는 칩덩굴보다 더 높이 잎을 키워내고, 어린 소나무는 어미의 그림자를 피해 줄기를 꺾으며 빛을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개척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숲이 주는 메시지 하나. ‘태어난 곳을 받아들여라’</p> <p>메시지 둘. ‘관계와 연대 속에 성장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콩은 뿌리혹박테리아로부터 필수 영양소인 질소를 얻고,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영양소의 일부를 뿌리혹박테리아에게 제공합니다. 식물 대부분이 자신의 발아래 놓인 누군가를 돕고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웃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한 공생연구가의 말처럼 우리도 서로가 있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죠?</p> <p>또 한 가지 나무는 해가 지면 팽팽하게 끌어올린 물줄기를 내리고 콧콧하게 세운 잎의 긴장을 편안히 늦춘답니다. 여기서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아닐까요?</p> <p>마지막으로 숲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 마라’ 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몸집을 유지합니다. 한때 자신을 키웠지만 이제는 짐이 되는 잎과 가지에는 더 이상 영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수한 잎과 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나무가 성장하듯 우리의 삶도 버림과 상실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p> <p>숲이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해 두셨나요?</p>
<p>버섯과 자연생태계 순환</p>	<p>저~기 버섯이 있네요.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식물처럼 꽃을 피우거나 사람이나 동물처럼 무언가를 먹고 힘을 얻지는 않아요. 그러면 버섯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p> <p>버섯은 직접 영양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버섯은 사실 식물로 치면 꽃에 해당하는 것인데 꽃에서 꽃씨가 날리듯이 버섯에서도 포자를 날려서 번식하는 거죠.</p>
<p>버섯의 유의점</p>	<p>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섯은 어떤 것이 있나요?</p> <p>(송이, 느타리, 표고버섯 등) 산이나 들에 다니면 보면 땅 위나</p>

썩어가는 나무 근처에 버섯이 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몸에 좋다고 해서 약용으로 버섯을 채취하거나 산행 중 발견한 버섯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버섯과 식용버섯



왜냐하면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약 1500여 종이 있는데 그중 독버섯은 50여 종, 이 중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버섯은 20여 종에 불과하지만 식용하는 버섯은 극히 일부이고 또 독버섯과도 비슷하게 생긴 버섯이 많아 만약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게 되면 복통, 구토, 환각 증상을 유발하고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향간에 알려진 독버섯을 구별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이면 산이나 들판에서 딴 버섯은 안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버섯을 비롯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야생동물의 먹이나 자연생태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니 그냥 보는 것 정도로 만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비의 세계

아름다운 날개가 인상적인 나비는 전체 곤충의 1/4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롱 불을 켜는 등잔대나 옷을 넣는 장롱의 경첩, 손잡이 등에 나비 문양을 이용할 정도로 나비를 친숙하게 여겼고 나비라는 이름도

	<p>나불~나불~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 버터플라이(Butterfly)라고 불리게 된 것도 노랑나비를 영국인들에 의해 노~란 버터(butter)를 닮은 것이 날아 (fly)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발상이 참 재밌죠?</p> <div data-bbox="539 412 1257 931" style="text-align: center;"> <p>나비의 종류</p>  </div>
<p>나비와 나방</p>	<p>나비와 비슷하게 생긴 게 나방인데요. 실제로 나비는 전체 나방수의 1/1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나방일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것이 나비, 밤에 활동하고 것이 나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박각시 종류나 깃털이 창나방, 뿔나비나방, 애기나방같이 낮에 활동하는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나방은 흔히 독나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방 중에서도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누에나방이에요. 요즘은 여러 기능성 좋은 섬유들이 많지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로 짠 옷은 촉촉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예로부터 고급 옷감으로 쓰였고 또 심심풀이 간식으로 인기가 높았던 번데기도 누에나방의 번데기랍니다.</p>
<p>다람쥐</p>	<p>앗, 다람쥐다! 숲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일 거예요. 혹시 도토리를 가지고 땅속 굴로 들어가 버린 다람쥐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p> <p>낮에만 활동하는 주행성동물이며 도토리나 밤을 즐겨 먹고 잎사귀가 넓은 참나무 숲이나 바위가 많은 돌담 같은 곳에 삽니다. 눈은 크고 검은색이며 볼에 주머니가 달려있어 잔뜩 먹을 것을 넣어 운반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p>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데 땅속 깊이 긴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다람쥐는 땅속 집에 잠을 자는 방은 물론이고 먹이 저장 창고까지 따로 두어 볼 주머니를 이용해 입 안 가득히 도토리나 같은 열매를 넣어서 창고 안에 저장해 놓고 두고두고 먹는답니다.

꼬리는 다람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 사이를 이동하거나 나무 위를 올라갈 때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두 번째는 다른 다람쥐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꼬리를 올려 신호를 전달하며 세 번째는 잠을 잘 때 몸 전체를 꼬리로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속 동물



청설모



다람쥐



청설모

청설모는 다람쥐의 가족이에요. 다람쥐와 청설모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1층에는 다람쥐가 살고 2층에는 청설모가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지요.

청설모는 잣나무가 생산해내는 잣과 밤나무가 생산해내는 밤을 먹고 사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푹푹 살아간답니다. 이유인즉 청설모에게는 옷이 두 벌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여름에는 반팔로 된 얇은 옷을 입다가 겨울이 되면 긴 팔과 두터운 외투를 입듯 청설모는 여름에는 회갈색의 옷을 입고 있다가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새까만 색의 털옷을 입는답니다.

<p>청설모와 다람쥐의 대화</p>	<p>청설모: 난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날 외래종으로 알고 미워하는데 나도 대한민국 토종이라고. 그리고 내가 친구인 다람쥐 널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p> <p>다람쥐; 말이 좋아 친구지! 내가 널 잡아먹진 않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와서 뺏어 먹잖아 키가 20cm 정도인 나보다 년 5cm나 더 커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p> <p>청설모: 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람쥐 너처럼 겨울잠도 안자고 집도 높은 나무 위에 제어 힘과 담력을 키우고 있지.</p> <p>다람쥐: 청설모 네가 힘을 키울 때 난 예뻐지기 위해 겨울잠도 자고 방 두 개짜리 집을 만들어서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침실로 쓰지 그래서 너보다 청결하고 예쁘지.</p> <p>청설모: 다람쥐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재해 줄 수 있는 하늘날다람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p> <p>다람쥐: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여길 떠났어.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지?</p> <p>청설모: 그래 예전보다 환경이 많이 오염됐지. 맞아 자연이 예전 같지 않아. 여우와 담비를 피해 놀던 때가 좋았어. 우리 다람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p>
<p>다람쥐와 청설모의 건망증</p>	<p>다람쥐와 청설모에게는 건망증이 있어요.</p> <p>특히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는 심한 건망증이 있습니다.</p> <p>겨울이 되기 전 다람쥐는 어느 때보다도 바빠요.</p> <p>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을 것을 저장창고에 넣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p> <p>다람쥐는 바쁘게 먹이를 찾아 입에 넣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여러 곳에 땅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 놓죠.</p> <p>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람쥐만의 방법으로 흙으로 도토리를 숨기고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봄이 되어 도토리를 찾으려</p>

	<p>하지만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려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땅속에서 씨앗이 나와 참나무가 되는 것이지요.</p>
<p>유의 사항 안내</p>	<p>숲속에서 다람쥐나 청설모를 만나면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 덕분에 다들 한 번씩 만져 보고 싶어 하는데 산에 사는 다람쥐나 청설모를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이들에게는 한탄 바이러스가 있어서 만질 경우 유행성출혈열을 일으켜 고열이 나다가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 난답니다. 이제 숨겨진 부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이 몇 분인지 맞춰봅시다.</p>
<p>선각육존불</p>	<p>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기 큰 바위 면에 새겨진 여섯 분의 부처님을 볼까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모습인데 부처님과 보살을 선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선각이라는 것은 선으로 쪼아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으로 조각한 부처님이 여섯 분이 계신다 해서 선각육존불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바위에는 서방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을 새겨놓았으며 아미타 좌우에는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향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생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보살이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비추어주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입니다.</p> <p>오른쪽 바위에는 석가모니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인도 고대왕국인 카빌라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성문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늙고 병들어 있는 사람의 생애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불교가 전파되고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큰 성인으로 숭상받게 됩니다.</p> <p>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란 법당이 있어요. 큰 영웅이란 뜻인데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대부분 석가모니 좌우에는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새겨 놓았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이고, 또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모아서 편찬한 보살로도 불리어 진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p>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며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으면서 언제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릉계 선각육존불>

선각육존불에 새겨져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각각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왼쪽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불과 오른쪽 바위에 새겨진 석가모니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앉아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서 있는 반면에 왼쪽 바위면의 아미타불은 서 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앉아 있어요. 아미타불이 서있는 이유는 다른 곳과 달리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빗물을 옆으로 돌렸던 배수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지붕의 기둥을 세웠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각육존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각육존불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신라의 뛰어난 불교 미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각으로 조각된 불상은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여기 녹색으로 파릇파릇 돋아난 이끼가 보이시나요?
 이끼는 물속에서 땅 위로 올라와 적응한 최초의 식물로 산이나 강가의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답니다. 또, 이끼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햇빛을 싫어하는데 아마도 수분의 증발이 심해지면 말라죽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p>하지만 아스팔트와 바위틈, 시멘트벽에서도 자라는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평소에는 메말라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빗물을 듬뿍 받아 파릇파릇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끼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발달이 덜 되어서 잎과 줄기의 구분이 없고 물관이 발달하지 않아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끼는 몸 전체가 잎과 같은 역할을 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는데 땅속에 흰 실 같이 생긴 것은 헛뿌리라고 해서 이끼를 땅에 붙이는 구실만 한답니다.</p> <p>혹시 여러분은 이끼의 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끼는 꽃을 피우지 않는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로 번식하는 일반적인 식물들과는 달리 이끼는 포자로 번식하는데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떠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닿으면 포자가 발아하여 자란답니다.</p> <p>이끼는 수분을 머금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등 숲과 자연에도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사람에게도 그 쓰임새가 다양해서 매우 유익하답니다. 예를 들면 무기질이 풍부하여 비료로 이용되고 있고 솜보다 흡수력이 좋아 1차 대전 중 캐나다 군대는 붕대에 넣어 쓰기도 했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끼를 잘 말려서 습진이 생긴 부위에 붙이거나 젖은 이끼를 화상 부위에 붙여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염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식물로 이용하고 광물이 풍부한 토질에서 자라는 이끼를 이용해 매장된 광물을 예측할 수도 있답니다.</p> <p>또 이끼는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 주고,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은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p> <p>새들에게도 이끼는 더없이 중요한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둥지의 재료가 되어 아기 새에게 폭신한 침대가 되기도 합니다.</p>
<p>삼릉계 선각여래좌상</p>	<p>여기 있는 불상도 마찬가지로 선각으로 조각된 불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바위는 약10m되는 바위에 부처님을 새겨 놓았습니다. 불상과 대좌는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긴 가로 균열을 이용하여 나누어져 보이도록 조각해 놓았습니다. 남산에 있는 다른 불상들과 다르게 삼릉계 마에 선각여래좌상은 유일하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p>


	<p>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각기법이 정교하지 못한 못난이 불상이지만 신라시대 불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술이 두텁고 표정이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어서 다른 불상에서 나타나는 세련되고 단정한 얼굴 모습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불상입니다.</p> <p>또한 이곳의 불상을 잘 살펴보면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손 모양은 왼손과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첫째 손가락을 마주 보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오른 팔목에 오른 손바닥을 밖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불상의 손 모양 즉 수인을 설법인(說法印)이라고 부릅니다.</p> <p>불상의 옆에는 부부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닮은 바위가 있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바위라고 하죠. 이곳 바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경주의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산의 자연환경도 한 번 둘러보세요. 이곳은 남산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p>
<p>바위에서 흙이 되는 과정</p>	<p>바위 위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소나무나 회양목, 노간주나무는 바위 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랍니다. 소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회양목은 4~5월 바위 가운데 틈새에 보면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노간주나무는 햇빛 잘 드는 바위 상부에 보면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p> <p>바위는 풍화작용 등으로 암석이 잘게 부서져 흙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큰 나무의 뿌리는 암석의 절리나 성층면을 따라 들어가면서 틈을 넓히기도 합니다. 딱딱하고 건조한 바위에 처음엔 이끼와 같은 식물이 생겨나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거기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며 나무뿌리는 바위틈새를 비집고 점점 굵어집니다. 가냘프게 보이는 어린 식물의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를 쪼개고 갈라지게 하여 결국 흙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p>
<p>참나무</p>	<p>‘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 간다~’ 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노래를 불렀냐면 바로</p>

다람쥐, 반달가슴곰, 청설모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나무가 열리는 나무를 보여 드리고자 해요. 진짜 나무라고 해서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참나무는 사실 6종류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예요. 갑자기 들으시니까 헷갈리시죠?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각기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조선 시대 때의 일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들 피신해 있을 때 먹을거리가 굉장히 귀했답니다. 임금님께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막막했던 수라간 사람들은 고민하던 차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임금님께 올렸는데 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항상 수라상에 도토리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묵이 바로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인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온 나무라 해서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옛날에는 요즘같이 좋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벗짚으로 만든 짚신을 많이 신었는데요. 특히 붓짐장수들은 먼 거리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짚신을 하나 더 챙겨서 다녔지만, 붓짐장수의 짚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바닥이 망가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신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참나무 잎으로 바닥에 덧대어 신으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참나무가 바로 신갈나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

앞서 얘기한 참나무 중에 잎이 가장 크고 넓적하게 생긴 것이 떡갈나무예요. 지금과 같은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떡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날이 더운 여름에는 떡이 쉽게 상하는데 이 떡갈나무 잎에다 떡을 싸서 다녔더니 덜 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구 결과 떡갈나무 잎에는 정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떡을 찌 때 바닥에 깔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굴참나무는 나무껍질에 코르크층이 발달해서 손으로 눌러보면 다른 참나무 종류와는 달리 약간의 폭신평신했음이 느껴지는데, 굴(고랑)이 패는 참나무라고 해서 굴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유럽에서는 굴참나무의 폭신했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만들기도 하고 굴참나무는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특징을 이용해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쓰기도 했답니다.

	<p>또, 갈참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 가을의 참나무란 뜻에서 유래되었고 졸참나무는 잎이 참나무 중에서 제일 작아 졸병 참나무란 뜻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p>
<p>참나무 6형제</p>	
<p>도토리</p>	<p>도토리는 엉덩이에 도톨도톨한 각정이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도토리 키 재기’ 라는 말 들어 보셨죠? 크기가 고만고만하고 1~2cm로 작아서 도토리 키 재기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도토리는 매년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익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는 매년 열리지 않고 2년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해 가을에 익으니 1년에 한 번씩 열리지요.</p>
<p>참나무와 소나무</p>	<p>참나무들은 소나무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서 자라지 못해요. 소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잘 자랄 수 있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다른 식물들이 주변에 싹 트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내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작용을 타감작용(他感作用; Allelopathy)이라고 하는데요. 참나무들과 같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넓은잎나무가 주변에 있다면 처음에는 소나무가 햇빛을 받아 잘 크지만, 천천히 넓은 잎으로 햇빛을 다 흡수해 버려서 끝내 소나무는 참나무에 가려 죽게 되며 소나무 숲이 참나무 숲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게 된답니다. 가끔 참나무 숲에 가면 누렇게 죽어 가는 소나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p>

<p>숲의 천이</p>	<p>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p> <p>숲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해 가는데 이것을 숲의 천이(遷移)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해살이풀인 강아지풀, 민들레들이 들어와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이어서 여러해살이풀, 가시가 많은 작은 키 나무에서 키 큰 나무인 소나무가 들어옵니다.</p> <p>소나무는 이때 사람이나 다른 식물들이 숲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톤치드라는 살균식물을 내뿜어요. 소나무 밑에서 참나무들이 기를 펴지 못하게 되지만 참나무들이 점차 키를 키워 언젠가는 소나무를 누르고 이 숲의 대표나무가 됩니다. 그러다 치열한 경쟁을 멈추고 숲이 차츰 안정된 상태가 되면 서어나무나 까치박달나무 등이 자라나 숲을 이루는데 이를 극상림(極上林)이라고 합니다.</p>
<p>삼릉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666호)</p>	<p>여기 또 한분의 멋진 불상이 있습니다. 참 잘 생겼죠?</p> <p>삼릉계곡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불상입니다.</p> <p>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를 하려는 의도에서 그랬겠지만 불상의 얼굴에 시멘트를 발라 놓아 흉측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p> <p>비록 불상은 흉측해 보였지만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불상의 얼굴을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을 보면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매우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부처님의 옷을 보면 오른쪽으로 어깨를 드러낸 옷 모습인데 우견편단이라고 합니다.</p>



<삼릉계 석불좌상 보수 전후>



	<p>불상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손모양은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놓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무릎위에 놓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슴이 발달하여 당당하며 자세가 안정감이 있는 불상으로 평가 받는데 이 앉아 있는 대좌에 새겨진 연꽃의 조각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8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전각이 지어졌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자연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노천불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의 지형으로 보아 아래 계곡 쪽에 금당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불상 앞쪽에 있는 바위 위에 놓여있던 탑은 자기 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탑이 놓였던 자리는 금방 눈으로 확인이 가능 하시죠? 다행히 탑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된 것이 아름답고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 문화재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킴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내리막길이라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p>
<p>삼릉계 마애석가 여래좌상</p>	<p>여기는 신발을 벗고 기도하는 곳이므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불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인데 앉아 있는 불상 중에는 제일 큰 불상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는데 높이가 약6m되는 불상으로 부처님의 눈은 마치 중생들을 굽어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p> <p>바위 속에서 얼굴을 내밀며 홀연히 나타나시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불상의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입체감 있게 새겼지만 그 밑으로는 얇게 조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불교가 들어 오기 이전부터 바위를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민간신앙과 불교의 사상이 섞여 신라인들만의 개성 있는 불교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이 불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머리 부분만 돌출해 보이고, 몸 아래쪽은 선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얼굴은 풍만해 보이지만 눈은 초승달 같아 보입니다. 코는 탐스럽게 정말 높이 솟아 있습니다.</p>

	<p>전체적인 모습은 조금은 엄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꼭 하나는 이루게 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 능선으로 이동하면 넓은 바위가 나옵니다. 다시 힘내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p>
<p>바둑바위</p>	<p>여기 넓은 바위가 바로 바둑바위입니다. 그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말 이곳에 신선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p> <p>신라의 첫 시조가 태어나신 나정을 비롯해서 신라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포석정도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주 전역을 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을 보시면 주변의 전경 사진을 우리 국립공원에서 설치했었는데 잘 보시면 유적지의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p> <p>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p>
<p>금오산</p>	<p>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대학자이신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소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조선시대 대학자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은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인 1455년 수양대군(세조)의 단종 폐위 소식을 접하고는 통곡한 뒤 읽고 있던 책을 모두 불태운 다음 스스로 머리를 깎고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p> <p>설잠(雪岑)</p> <p>높고 아른한 눈 덮인 산이라는 법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p> <p>10년여 년간 전국의 명산대찰을 방랑하던 매월당 김시습이 29세 되던 해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용장사입니다. 7년 동안 용장골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쓴 소설이 바로 ‘금오신화’ 인데 이곳 산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곳 남산은 수많은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기고 지금은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남산에는 신라인들의 신앙이 살아 숨 쉬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때로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부처님이 계셔서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역사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p>

<p>마무리</p>	<p>오늘 자연과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 남산이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셔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안전하고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p> <p>이상으로 삼릉에서 바둑바위까지 자연, 문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p>
-------------------	--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제 2018-120호)

해설주제	상세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토함산</p>	<p>여러분, 지금 경주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탐방객 답, 불국사) 예, 여러분의 대답들이 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불국사, 석굴암이라는 최고의 유산만 기억하고 그러한 유산과 함께한 토함산은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함산이 서운해 할까봐 제가 간단하게 토함산을 소개하겠습니다.</p> <p>토함산은 이름에 대한 세 가지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토함산의 한자를 풀이하면 토할 ‘토’에 머금을 ‘함’자를 써서 머금고 토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동해의 안개와 구름을 머금어 토하는 형태의 경관을 자아내어 많은 분들이 동해의 일출을 보기위해 찾는 곳입니다. 둘째, 토함산의 산신령이 된 석탈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탈해를 토해라고도 한다’ 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토해와 탈해는 유사음 입니다. 셋째, 토함산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불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토함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5악(동: 토함산, 서: 계룡산, 남: 지리산, 북: 태백산, 중: 팔공산)의 하나(동악)로써 왜구를 소탕하는 요새로 ‘호국의 진산’으로 신성시 된 산입니다. 다시 말해 불국사를 감싸 안고 신라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토함산은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숭고한 산이랍니다.</p> <p><재건 전 후의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운교, 백운교 재건 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운교, 백운교 재건 후(현재)</p> </div> </div>

<p>불국사의 역사</p>	<p>여러분 다른 사찰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세요?</p> <p>한국 사람은 부석사를, 일본 사람들은 선암사를, 서양 사람은 불국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과 인공을 대비시킨 조화의 멋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이 아름다운 불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불국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까 해요.</p> <p>불국사가 창건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p> <p>첫째는 신라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부인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라 눌지왕 시대에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바로 삼국유사(삼국유사 <향전>)에 나오는 김대성에 관한 설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p> <p>(심화)</p> <p>신라시대의 한 마을에 김대성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면 복을 만 배로 얻는다는 점개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재산인 밭을 절에다가 바치고 그 후 얼마 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생에 대한 보답으로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김대성은 지금의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대성이 완공하지 못한 채 죽자 나라에서 말아 절을 약 30년간에 걸쳐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p> <p><출처: 삼국유사 대성효이세부모조, 불국사사중기(佛國寺寺中記)></p> <p>(어린이를 위한 설화)</p> <p>삼국유사에는 김대성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옛날 신라 땅 모량리 에는 김대성이라는 농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복안」이라는 부자집에서 며슴살이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노승이 주인집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시주를 하라고 하는데, 주인 복안은 비단 50필을 부처님께 시주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주는 나중에 만 배의 값어치가 되어 돌아 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p>
---------------------------	--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고는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는 조상 중에 아무도 좋은 일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가 봅니다. 우리도 부처님께 시주 드려요.” 라고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근심어린 얼굴로 “대성아,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니 당장 뭘 시주 한단 말이나? 안타깝구나...” “어머니, 제가 평생 벌어서 모은 작은 밭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밭을 시주해요, 네?”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그 밭은 네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차마 그 밭을 어떻게...” 하시며 안타까워하시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 해서 또 벌면 되요.” 하고는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밭을 시주 하고 난 후 대성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 그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대성이 죽던 날 홀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아들을 부둥켜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성의 몸에서 신비한 빛이 나오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제상 「김문량」이라는 사람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가 너의 집에 다시 태어나리라 !!”

깜짝 놀란 김문량은 이튿 날 사람을 보내 알아 봤더니 정말 김대성이란 사람이 그 날 밤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은 후 김문량의 아내는 임신하여 열 달 후 아기를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손을 꼭 쥐고 펴질 않았습니다. 7일 후 스스로 손을 펴는데 손바닥에 ‘김대성’ 이라 새겨진 금간자(金簡字金판)가 있어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다시 태어난 대성은 훌륭하게 잘 자라 토함산에서 곰 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밤이 어두워 산 밑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어이하야 우리를 죽였느냐? 내 오늘 너에게 복수를 하리라.” 하며 화가 난 표정으로 여러 마리의 곰 귀신이 나타나 대성을 쫓아왔습니다. 놀란 나머지 대성은 달아났지만 곰에게 붙잡히자 꿰어앉아 짹짹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시키는 데로 다 하겠습니다. 후후...”
그러자 곶이 “네 이놈, 그럼 우리 곶들을 위하여 절을 지어줄 수 있느냐?” “예, 예,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고한 생명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대성은 곧 응수사(장수사)라는 절을 지어 곶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 하며 참회를 하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일까요? 김대성은 어른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라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전생의 가난했던 홀어머니를 위하여 석불사(석굴암으로 잘못 불림)를 세우고 다시 태어난 집 부자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웠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김대성이 처음 불국사를 세웠을 때는 지금 현 모습보다 열배나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2천여 칸에 80여동의 목조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잃고 작은 절이 되었지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임진왜란 때문이죠.

1593년(조선 선조26년 5월) 왜구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버리고 불에 타지 않는 석축, 백운교와 청운교, 연화교와 칠보교,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비로자나부처님, 아마타여래, 이렇게만 남았답니다. 당시 일본군의 눈을 피해 승병들이 창과 칼 등을 대웅전 벽속에 감추었는데 아름다운 불국사의 경내를 감상하며 감탄하다 무기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절을 지키던 여덟 명의 스님들을 발로 밟아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난을 피하여 문수사(또는 응수사)에 피해있던 주지 스님이 도착 하였을 때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부처님 두 분 만 겨우 살려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목조 건물들은 수십 차례의 중수를 거쳐 1970년 초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중건공사를 통해 통일신라식 쌍탑가람의 체재와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p>가람배치 정의</p>	<p>가람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p> <p>가람이란 쉽게 말해서 사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승려들의 정신 수행처를 samgharama(상가람마)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음역하여 ‘승가람마’ 라 표현되다가 다시 줄여서 가람이라 부르는 것에서 유래되었답니다.</p> <p>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할 때 배치하는 기준이 있듯이 불국사 같이 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지닌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조형물과 이에 따른 부속건물이 수반됩니다. 때문에 이들을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약을 필요로 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가람배치입니다. 한국사찰은 건물이 입지하는 형식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으로 구분됩니다.</p> <p>평지형 사찰은 불교 초기 도성과 가까운 평지에 두었으며 왕실의 원당이나 국찰로 많이 지어졌고 도성 안에 위치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답니다. 그 후 우리 민족 고유의 산악숭배 사상과 풍수 지리 사상 및 선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지에 터를 두고 사찰을 조영하게 되는 산지형 사찰로 바뀌게 됩니다.</p> <p>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무엇일까요?</p> <p>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사리를 모신 탑과 금당이랍니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전각을 금빛이 나는 집이라 하여 금당이라고 하지요. 가람의 구성에서 탑과 금당의 관계에 따라 1탑 1금당식, 2탑 1금당식, 무탑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용어가 어렵나요? 그럼 한 번 풀어보죠. 1탑 1금당식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p> <p>1탑. 즉 하나의 탑이 있고, 금당은 좀 전에 제가 부처님이 있는 집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탑에 하나의 집이 있는 양식이란 말이죠. 사찰에서 가람 배치는 건축되어진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용어는 배우고 가도록 하죠.</p>
<p>불국사의 가람배치</p>	<p>(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초기 불국사의 가람구조는 크게 다섯 구역 즉,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과 지장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불국사의 가람배치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세 영역에 저마다 독립적인 전각이 배치되어 세분의 다른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모셔져</p>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이 있고 무설전 그리고 비로전과 관음전, 나한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불국사 가람배치

이제 사찰의 가람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불국사의 가람이 어떻게 배치 되어있는지 눈으로 보며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찬란했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역사 속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주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문을 하나 통과 하셨을텐데요.
 그 문 현판에 쓰여 있는 한자를 보셨나요?
 무엇이라고 적혀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불국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처 불(佛) 나라 국(國) 절 사(寺) 즉 재상 김대성이 부처님 나라를 경전에 있는 그대로 세운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주택에 문패가 있는 것처럼 사찰에도 문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을 받치고 있는 문을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보충: 일주문은 불국사 초창기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복원공사에 따라 진입로의 적절한 위치에 세운 것입니다)

불국사의 일주문은 우리나라의 사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문인데,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문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세계와 부처세계의 경계라 할 수 있는데 왜 일주문이라고 하였을까요? 일주(一株)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기둥이 하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주문의 문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기둥이 한 개씩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둥이 겹쳐 보여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p>이것은 곧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올 때에는 하나 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p> <p>또 하나의 특징은 일주문에는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p>
<p>천왕문</p>	<p>잠시 안으로 들어와 보실까요?</p> <p>성스러운 부처님 나라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아무나 가면 안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맨 처음 관문인 수미산 중턱 동·서·남·북 사방 하늘을 지키는 왕이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을 본 느낌이 어떤가요? 발 아래를 한번 보세요. 악귀들이 밟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가야겠죠? 몇 분의 신들이 계시는지 볼까요?</p> <p>천왕문 안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다소 우락부락하게 생긴 네 명의 천왕이 있어서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데, 본래에는 인도에서 귀신을 다스리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감화되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왕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과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그리고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p> <p>(심화)</p> <p>그럼 사천왕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찰마다 사천왕의 배치와 가지고 있는 기물이 서로 다른데요. 이것은 나라, 사찰, 경전마다 사천왕상의 배치와 사천왕이 들고 있는 기물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입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천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기쁨의 세계를 관장하고, 계절 중에서는 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여움의 감정을 주관하면서 가을을 관장하고 서쪽하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있는데요.</p>

	<p>사랑의 감정을 주관하며 여름을 관장하고 남쪽하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천왕은 탑과 깃대를 들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감정을 주관하고 겨울을 관장하며 북쪽하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듄직한 존재로 느껴지시나요?</p>
<p>사찰예절</p>	<p>불국사를 관람하시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세 가지 사찰예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p> <p>첫째, 대웅전 중앙 길로 가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웅전 가운데 길은 여러 높은 신들과 큰스님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는 것은 사찰예절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p> <p>예, 대웅전 양 옆의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p> <p>둘째, 사찰은 스님들이 수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p> <p>셋째, 사찰 안의 문화유산을 관람하실 때 다녀간 흔적(문화유산에 걸터앉기, 문화재 만지기, 낙서 등)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p> <p>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p>
<p>청운교 및 백운교</p>	<p>불국사 경내에는 국보가 총 일곱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있는 이 공간(청운교 백운교 앞)에는 두 개의 국보가 있습니다.</p> <p>국보를 한번 찾아보실까요?</p> <p>예, 이 공간 안에 있는 국보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여기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잘 보이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p> <p>국보 제23호인 청운교, 백운교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위쪽 5.4m인 16계단이 백운교이고, 아래쪽의 6.3m인 17계단으로 된 청운교입니다. 푸른 청년의 모습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총 계단 수는 33계단이고, 33이라는 숫자는(불교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고 이 단계를 벗어나면 부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는 뜻이죠.</p> <p>청운교를 자세히 보면 안쪽이 동그란 아치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5°의 경사를 보이는 이 석재는 설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으며, 좋은 화강암을 써서 다듬은 수법도 정교합니다.</p>

이 다리를 무지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홍예다리’라고 하는데 홍예다리는 양끝이 처지고 가운데가 무지개처럼 굽어 있는 모양의 다리를 말합니다. 청운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리 안쪽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못이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지 20년도 채 안된 성수대교(보충: 1979년 준공, 1994년 붕괴)가 무너진 사건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운교와 백운교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청운교 백운교를 지났으면 법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곳에 문이 있을까요? 저 문은 자하문 (붉을 ‘자’ (紫)이고 두 번째는 안개 ‘하’ (霞)라는 한자입니다) 인데 자줏빛 안개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후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단 밑의 인간 세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서 고뇌와 좌절을 극복한 후 이 문을 들어서서 부처님 품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문이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가 건축적으로 잘 표현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길에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의 문을 설명해드렸죠?

예, 사찰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일주문과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하문을 거쳐 왔고

이 3개의 문을 말씀 드렸죠. 청운교와 백운교는 국보로 지정되어 직접 올라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볼까요?

여러분, 아래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일반적인 돌단이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건축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단부 석축의 아랫단은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윗단은 울퉁불퉁한 자연석 위에다 맞닿는 면을 맞춰 다듬은 석재를 엮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기법을 ‘그랭이 기법’ 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목조건축에서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오래전부터 성곽 축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랭이 기법을 이용하여 돌의 위와 아래를 잘 맞물리게 하여 쌓은 덕분에 석축이 오랜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랭이 기법으로 지어진 2단의 석단은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랫단은 우리 인간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치형으로 된 구름다리를 설명해드렸죠? 이 구름다리는 무지개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아치형 석축을 쌓는 방법은 못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잘 다듬은 사다리꼴의 돌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조각하여 견고하게 맞추어가면서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석주들이 힘을 분산시켜 이곳을 지지하여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리가 있는 석축 아래쪽으로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단 왼쪽에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수구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폭포처럼 부서지는 물보라에 의해 무지개가 떴다고 전하고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옛 불국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합니다.

자하문
〈건축양식〉





▲ 수구



▲ 대석단



▲ 아치형

<p>대웅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 좌경루 ▲ 범영루 </div> <p>여러분, 자하문을 통해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보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옆 오르막 길을 통해 불국사의 중심인 대웅전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이동) 왼쪽 석축 위에 있는 것은 좌경루이고 오른쪽 화려하게 장식된 것은 범영루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살펴볼까요?</p>
<p>좌경루 범영루</p>	<p>좌경루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보관하는 곳인데 지금은 사물의 하나인 목어와 운판이 걸려있습니다. 좌경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무로 만든 물고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머리는 용인데 몸은 물고기 모양이죠. 속도 비어 있습니다. 피리의 속이 비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물고기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에서 목어라고 합니다. 그 옆에 금속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구름 모양 판이라고 해서 운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범영루를 볼까요? 석가탑이 있는 부근으로 가면 범영루가 있습니다. 범영루 안에는 거북 한 마리가 등에 큰 북을 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만 북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멀리 서 볼까요? 씨익 웃고 있는 거북의 얼굴이 보이시죠? 범영루의 거북 법고나 좌경루의 목어, 운판 그리고 범종은 대부분 절에서 꼭 갖춰 두는 것으로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새벽과 저녁 예불 전에 친답니다. 예불 전에 이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에 빨리 다다른다고 합니다. 온갖 잡념이 사라지겠죠? 위의 4가지 사물은 북·징·목탁·태평소로 바뀌고 지금은 다시 북·장구·징·뽕과리의 네 개의 민속타악기로 바뀌어 사물놀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p>



▲ 목어

▲ 운판

▲ 법고

▲ 법종

**석가탑
다보탑**

이 대웅전 영역에는 국보가 3가지 숨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그 중 두 가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한 가지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우뚝 솟은 탑 두기가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두기의 탑이 국보입니다. 그럼 절에는 왜 탑을 세울까요? 원래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여래는 현세 불 즉 현재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부처님이고 다보여래는 석가 이전의 과거불을 의미 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곳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보 제21호인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의 모습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탑 이름도 [석가여래상주설법탑]이지요. 그럼 다보탑은 무슨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시면서 옆에서 다보여래가 듣고 “그래 맞다.” 하고 증명하는 모습이라서 [다보여래상주증명탑]이지요.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이곳에서 마주보며 만나고 계시는 모습이랍니다.

석가탑

그럼 석가탑을 먼저 살펴보을까요? 석가탑은 ‘불국사 삼층 석탑’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보 제21호로서 높이 8.2m이고 기단 폭은 4.4m입니다. 석가탑 밑 부분의 기단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연꽃모양의 돌들이 있죠? 왜 기단 주위에 연꽃모양의 돌을 두었을까요? 예, 석가탑 주위를 둘러싼 이 연꽃모양의 돌들을 팔방금강좌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역으로서 탑의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연꽃 한 송이에 1보살씩 모두 8보살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보고, 다보여래가 석가모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뻐하며 꽃을 뿌렸던 그 모습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석가탑의 모습은 2층 기단위에 3층으로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신라 석탑 양식의 완성형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1966년 9월) 경주 어느 골동품 상의 사주를 받은 한 무리의 도굴꾼 들이 한밤중 석가탑을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책으로 탑 속의 유물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다음 날 또 다시 몰래 들어와 시도를 하다 그만 새벽이 되어 그대로 도망을 가 버렸는데 이를 발견한 스님의 신고로 곧 넘어질 것 같은 탑을 1966년 10월 해체 하였더니 2층 몸돌(몸체부)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 되었습니다. 사리함, 사리병, 각종 사리들(공양구)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비단에 곱게 싸여져 발견되었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51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발견 이전까지는 일본 법륜사에서 발견된 목판 인쇄본 백만탑다라니경이 770년에 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그보다 약 20년 앞선다고 밝혀져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주국립박물관 미술관 2층에 가시면 석가탑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실 수 있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불교중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석가탑의 탑신부는 각 층마다 몸체석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구성되어있고 상층 옥개석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상륜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석가탑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탑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상륜은 원래 노반과 복발,

양화만 남아있었으나 1973년 불국사 복원공사 때 남원 실상사 3층석탑의 상륜부를 그대로 본떠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소박하게 생긴 석가탑은 무영탑이라고도 하는데 전해지는 설화가 있습니다.

옛 백제 지역의 사람인 아사달은 서기 751년 신라35대 경덕왕 때 불국사 창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 아사녀를 고향에 남겨 놓고 신라로 왔습니다. 아사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에 열중하면서 다보탑을 완성하고 난 다음 석가탑 조각에 착수 할 무렵, 수년간 아사달의 소식을 기다리던 아사녀는 견디다 못해 신라까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정하므로 신성한 사찰을 짓는데 함부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불국사의 문지기 때문에 탑이 완성될 때까지 근처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아사녀는 못 위에 비친 남편의 환영을 쫓아 그 속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불국사의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못을 영지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설화)

탑을 세울 때 신라에는 훌륭한 석공이 없어서 백제에서 「아사달」이란 훌륭한 기술자를 초대하여 탑을 만들었습니다. 아사달은 온 정성을 다하여 탑을 세우는 데 몇 년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 했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리워하던 아내 아사녀가 불국사로 남편을 찾아왔으나 스님께서는 부정이 탄다며 만나게 해 주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을 보고 싶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사녀를 측은하게 여긴 주지스님이 “저 아랫마을 못에 가서 기다리면 탑과 당신 남편의 모습이 비칠 것어요”

이 말을 들은 아사녀는 며칠 밤낮을 연못가에서 기다려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 달 밝은 밤, 물에 아련히 비친 남편의 환영을 보고는 “여보, 아사달!” 이라 부르며 물 속으로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퐁당’ 그만 아사녀는 달빛 가득한 물속으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내가 기다리는 못으로 달려갔으나,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 날도 달은 환하게 물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간 아사녀, 아사달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부처님을 만들고 아내 곁으로

가버렸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 내려 온 답니다. 오늘도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을 슬퍼하듯 무심한 달빛만 물속 가득 출렁인답니다. 그래서 이 못을 후세 사람들이 아사달의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못' 이라고 「영지」라 부른답니다.



다보탑

여러분, 혹시 10원짜리 동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보탑을 지칭하며) 예, 맞습니다. 특이하게도 인물이 아닌 여기 있는 다보탑이죠. 그만큼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보탑은 국보 제20호이며 통일신라시대 중기 특수형 석탑을 대표하는 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보탑의 높이는 0.4m로서 석가탑보다 조금 높고 매우 변화 많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층 기단 위에 4층의 탑신을 가진 석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다보탑의 탑신부를 4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3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층에서 연꽃모양의 옥개석(지붕석)까지를 한층으로 볼 때는 4층의 탑신과 각각 옥개석을 올린 구조로 해석할 수 있고, 연꽃모양의 판석을 옥개석이 아닌 3층탑신부 중앙에 올린 연화대석으로 보고 그 위에 팔각의 옥개석을 올린 것으로 볼 때는 3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기단의 사면에 각각 10단의 돌계단을 놓고 기단 모서리에는 훌륭한 솜씨로 조각된 돌사자를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나, 일제강점기에 세 개는 사라지고 현재는 얼굴이 깨어진 한 마리만 서쪽면 중앙에 1개만이 남아있습니다. (돌)사자는 불교에서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이랍니다. 1층 탑신은 중앙에 정방형 찰주석과 ㄱ자형 단면을 가진 우주(또는 모서리기둥)를 놓은 후 위쪽에는 (목조건물에서 볼 수 있는) 첨차모양을 2중으로 새기고 그 위에 사각형 옥개석(지붕돌)을 올려

	<p>놓았는데 처마 끝 윗면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라 가도록 하여 미묘하고 경쾌한 멋을 느끼게 합니다.</p> <p>2층 탑신부 밑에는 사각난간을 배치하여 그 안쪽으로 8개의 대쪽모양의 다리를 세워 그 위에 8각형의 판석을 올렸습니다. 3층은 팔각형의 판석 위에 난간을 두르고 연꽃모양이 옥개석을 올리고 그 위에 4층의 탑신부와 8각형으로 된 옥개석을 올린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보탑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 및 독특한 구조와 표현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 목조건축처럼 만든 석공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다보탑은 여성적인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반면 석가탑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충만한 남성미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다보탑을 여성에 석가탑을 남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p>
<p>대웅전</p>	<p>이러한 쌍탑 1금당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전형적인 가람배치형식입니다.(또는 쌍탑 1금당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사찰을 지을 때 유행하던 가람배치 형식입니다)</p> <div data-bbox="523 1167 1198 1532" data-label="Image"> </div> <p>금당(대웅전)이란 황금색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흔히 법당이라고도 합니다. 법당은 법을 설하는 건물이라는 뜻이고 불보살(부처님과 보살)을 모시고 있기에 궁전(대궐)이라는 뜻의 전(殿)이라 존칭하고 있습니다. 법당은 그곳에 모셔져 있는 불보살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탑 뒤로 커다란 전각이 보이시죠?</p> <p>지금 소개 해드릴 곳은 불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법화경》이란 불교의 경전에서 석가모니를 큰 영웅인 대웅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되었으며 그만큼 석가모니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분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p>

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시는 대웅전은 영조 41년 (1765)에 중창 된 것으로 기단부 및 초석 등은 신라시대의 것이고, 상부건물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구조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석등이 보이시죠? 석등은 부처님의 세계를 밝혀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석등을 향해서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고 고개를 들다보면 석가모니의 얼굴이 직사각형의 구멍으로 보인답니다. 그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도록 해요. 대웅전 처마 밑을 한번 보실까요? 용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예, 용들은 각각 물고기와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이 있는 법당을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를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이라고 불렀는데 부처님이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을 이끌어 극락세계로 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용머리를 지붕 아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용은 왜 물고기를 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항상 눈을 뜨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내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목조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람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수미단을 세우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불교에서 본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하였고 다시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그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불 뒤쪽에 그림이 보이나요? 중앙에 석가모니가 그려진 영산회상도와 함께 양 옆으로 사천왕이 그려진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는 201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조선시대 영조의 딸이었던 화완옹주의 시주로 제작된 불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전 석가모니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오른쪽 벽면에는 세 명의 보살이 그려진 삼장보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의 무리 ‘신중’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오른쪽부터 지지, 천장, 지장 보살상으로 조선시대 때 제작된 불화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보물로 지정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한 뒤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 후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정문을 바로 출입하는 것은 불경을 의미하므로 탐방객은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 정면으로 출입하지 않고 회랑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웅전에 관한 설명 재미있으셨나요? 자, 이제 ‘무설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설전의 용도는 강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설전의 이름을 해석해보면 ‘말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무설전이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어 전각이름을 무설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무설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경전을 읽으면서 불교의 교리를 익히는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며, 불국사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무설전

그 옛날 부처님도 불법을 말씀한 뒤에도 “나는 불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항상 말씀 하셨습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기단위에 9개의 기둥이 다섯줄로 서서 지어진 이 건물은 1593년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708년에 중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일합방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없어졌다가 1972년 다시 복원 되었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발굴 조사를 통해 평면만 복원되었고 상부 건물은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무설전 한편에는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교각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697년에 신라 성덕대왕의 아들로 태어난 김교각 스님은



24살 되던 해에 출가하여 당나라로 건너가 각지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구화산이란 곳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남자아이가 길을 잃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교각 스님이 그 남자아이를 구해서 정성껏 치료 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또한 구화산의 주인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김교각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구해준 남자아이가 실은 저의 아들입니다. 스님덕분에 가문의 대를 이을 어린자식의 목숨을 구했으니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교각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사(스님들이 입는 옷자락)를 벗으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자락만한 땅을 시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제 아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깟 가사크기의 땅쯤이야 못 드리겠소?”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높은 법력으로 가사를 찢어 구화산을 모두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화산에 화성사라는 절을 짓고, 지장보살의 화신(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로부터 구화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절이 되었으며, 김교각 스님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교각 스님의 행적으로 인해서 이 곳 불국사 무설전 안에는 김교각 스님의 형상을 한 지장보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님께서 ‘1300년 후에 다시 고국인 서라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셔서, 1997년 스님의 탄신 130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화성사로부터 김교각스님의 동상을 기증받아 무설전에 봉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름이 난 김교각 스님의 일화를 들으니 역시 불교문화가 찬란했던 불국사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는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불국사에는 석가모니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국사는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전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독특한 건축구조의 미(美)를 선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각각의 독립된 공간임을 표시하는 회랑이란 건물입니다. 회랑의 기둥을 보면 마치 사극에서나 나오는 듯한 배흘림 양식의 기둥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배흘림기둥은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가장 굵고 위나 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는 기둥으로 옆에서 보면 배가 볼록 튀어 나온 모습입니다. 불국사의 회랑은 멀리서 보면 정말 한국의 건축양식이 아름답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구조와 배치가 뛰어납니다. 기둥은 배흘림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웅전의 기둥은 민흘림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흘림기둥은 기둥뿌리의 지름이 기둥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든 기둥입니다.

무설전
<기둥양식
및
지붕>



▲ 민흘림기둥



▲ 배흘림기둥



▲ 회랑

기둥을 따라 시선을 올려서 하늘과 맞닿은 지붕을 보시겠습니다. 지붕은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 대웅전(팔작지붕)



▲ 천왕문(맞배지붕)

대웅전의 지붕을 한번 보실까요?

대웅전 지붕의 형태인 팔작지붕은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으로 곡면이 특이합니다. 측면에서 지붕을 보면 사다리꼴 모양위에 삼각형을 엮어 놓은 모습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자하문과 대웅전, 비로전, 극락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설전의 지붕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무설전의 지붕은 대웅전 지붕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설전 지붕은 법당에서 유일하게 맞배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맞배지붕은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어 책을 반쯤 펴놓은 ‘人’자 모양의 지붕 입니다. 앞뒤에서 지붕면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고, 옆면에서는 지붕면의 테두리만 보입니다. (보충-보통 맞배지붕은 향교나 서원 등 강당용도의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배지붕은 격식 있는 건물보다는 간소한 겸허한 성격의 건물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일주문과 천왕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의 구성요소라고 하면 기와만 생각하지만, 기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와 종류에는 수키와 암키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 수키와 및 암키와



▲ 수막새와 암막새

기와아래를 받쳐주는 것이 암키와이고, 암키와 위에 포개져 있는 것이 바로 수키와입니다. 이처럼 기와에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붕처마 끝을 꾸미는데 쓰이는 수막새는 수키와의 끝부분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 동그랗게 만든 막새(와당)를 붙인 장식 기와입니다. 처마 끝을 꾸미는데 쓰이는 암막새는 암키와의 끝부분에 동그랗게 만들어 연화나 당초 등의 무늬를 새겨 넣은 막새를 붙인 장식기와입니다.



▲ 용두



▲ 치미

용두는 용마루나 내림마루 끝에 올리는 용머리모양의 장식기와 입니다. 치미는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올려진 새의 날개나 물고기 꼬리모양의 장식용 기와입니다. (관음전으로 이동)

이곳 관음전으로 가는 계단은 다른 곳보다 높고 가파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에서 계단이 높고 가파르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실 때에는 천천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없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말함)를 상징하고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 쓴 관을 보면 부처님 한 분이 숨어있고 손에 감로수가 담겨있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감로수는 배움에 목마른 자가 마시면 지혜를 얻고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시면 금세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관음전

관음전은 751년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성종 원년(1470)에 중수되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선조 37년(1604)에 중창하여 그 뒤 다시 숙종 21년(1695)과 44년(1718)에 두 차례 중창, 그 뒤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없어진 것을 1973년 복원하면서 새로 조성한 관세음보살 입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동시에 많은 것을 보시기 위해 두 눈으로 감당을 할 수 없어 천개의 눈을 가지시고 또 모두 해결을 해야 하니 두 손으로는 도저히 모자라 손도 천개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천수천안보살이라 부른답니다. 특히 관음전은 지붕이 뿔족하게 나와 있는 사모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p>다른 건물은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현존 하는 사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p>
<p>비로전</p>	<p>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국보를 보았죠? 예, 이제 여섯 번째 국보를 찾으러 이동하겠습니다. 비로전이란 이름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로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이 모셔진 곳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빛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이란 어원은 바이로차나(vairocana) 또는 비로차나(virocana) 라는 산스크리트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하여 비로자나 또는 비로사나라 부르는데 이 뜻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입니다.</p> <p>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국보 제26호로 극락전의 아미타여래좌상과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의 하나입니다.</p> <p>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법은 ‘지권인’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인간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으로써 인간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 불국사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좌우의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곧추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전 형식이 특징입니다.</p> <div data-bbox="630 1355 1141 1713" data-label="Image"> </div> <p>대좌와 광배가 없어지고 불신만 남아있으며 얼굴은 풍만하나 근엄한 인상이 강하며 목에는 삼도를 나타내어 위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주름은 우견편단(오른쪽 어깨는 벗고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형식으로 얹게 밀착되어 몸의 굴곡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습니다. 8세기 부터 나타났지만 9세기에 크게 유행하던 것입니다. 크기는 높이 180cm, 머리 높이 55cm, 너비 136cm입니다.</p>

751년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린 뒤 현종 원년(1660)에 중수되었으나 그 뒤 황폐화되어 터만 남아있던 것을 1973년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터는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규모 및 그 내용이 밝혀져 그 근거에 의해 평면이 복구 되었으며 지상건물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고려시대 건물 양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불상도 극락전 등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전각은 앞면과 옆면 각 3칸씩의 규모에 팔작지붕형태이며 내부에는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수미단 위에 비로자나불과 후불탱화를 봉안하였습니다. 후불탱화는 1973년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 325cm, 너비400cm 크기의 대작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 이었죠? 비로전의 옆에 있는 이 사리탑도 사리를 봉안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여래의 사리탑인지 승려의 사리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국사사적기(佛國寺事蹟記)에서 말하는 '광학부도(光學浮屠)'가 곧 이 사리탑을 가리킨다고 하여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리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사리탑은 보물 제61호로서 높이 2.06미터에 상대석과 하대석의 연꽃모양과 중대석에 구름무늬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표면장식이 화려하고 세련되어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한 동안(1905년)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되었다가 동경에 있는

	<p>한 제약회사 사장집 정원에서 발견되어 1933년 다시 찾아온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p> <p>1)삼도: 보고 닦아서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하며 견도(見道),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를 삼도라고 합니다.(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인격자가 되기 위 해 거쳐야 하는 3단계입니다)</p>
<p>나한전</p>	<p>자, 지금까지는 각 전각에 모셔져 있는 대표적인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셨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나한은 아라 한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부처님의 제자를 모셔놓은 나한전이라는 곳 입니다.</p> <p>나한전은 대웅전과 달리 좁은 폭의 불단을 ㄷ자형으로 배치하여 부처와 나한을 차례로 봉안하고, 깨달음의 정도가 낮은 나한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단을 장식하지도 않고 절집을 장엄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위치 또한 주불전에서 떨어진 자리에 두고, 건물의 외양도 주불전보다 격이 낮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p> <p>부처에게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 이들을 16나한이라 합니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를 주존으로 좌우에 아난(阿難)과 가섭(迦葉)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두 제자는 석가모니의 수많은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 해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으니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섭존자와 달리 아난존자는 많 은 것을 외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남긴 말씀들 모두 기억해 경전으로 정리할 때 큰 역할을 하였 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공부를 할 때에는 아난존자를 가장 큰 스승으로 받듭니다.</p> <p>그 좌우로 16나한이 자유자재한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끝부분에 범천과 제석천(불법을 수호하는 신)을 함께 봉안하는 것이 나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백 나한을 모신 곳도 있는데, 이것은 부처가 열반한 후 가섭이 부처가 생존 했을 때의 설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모인 비구가 5백 명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p>



이제 마지막 코스인 극락전이 남아있는데요, 불국사에서 연주하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미타여래가 계시는 극락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극락전인데요. 극락세계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낙원을 뜻하는 말로서 이곳을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극락전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주불전이 될 때에는 무량수전이라고 하며 주불전이 아닐 경우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이라고 합니다.



극락전

극락전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부처님은 많은 부처들 중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를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만든 불상으로 국보 제27호입니다. 불당안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좌상보다 3cm정도 더 크며(1.66m)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아마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정도는 알 것입니다. 이 말에서 나무(남무)란 우리말이 아니라 옛날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그 좌우에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동반하며, 이 두보살로 하여금 중생들을 돕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한마디로 딱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늘씬한 몸매에 볼록한 아랫배 등은 건장한 남성적인 체구를 연상시켜줍니다. 또한 옷 주름선은 어깨나 팔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유연한 편이지만, 가슴의 옷깃안쪽에서 밖으로 늘어지게 한 옷 접힘 또는 팔에서 내려오는 지그재그형의 옷자락, 그리고 배와 다리의 옷 주름 선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무릎의 옷 접힘과 무릎사이에 내려온 형식적인 손과 팔, 무릎 그리고 평평하게 처리한 콧잔등 등에서 직선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추상화의 경향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8세기에 제작된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과는 다른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손은 각각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인을 맺었지만 좌우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까지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의 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극락전으로 모셨다가 지금은 비로전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극락전 건물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뒤에 영조 26년에 중창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1925년 강점기에 중수되었지만 중창 때의 모습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석등 앞에 특이하게 금빛색의 돼지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이 돼지해였던 건 다들 아시죠?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베이비붐을 일으켰던 해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극락전에서

돼지가 발견되었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현관 뒤에 있었던 터라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전에 한 개그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어 아주 유명해졌죠.

자, 다음으로 안양문으로 이동하여 연화교, 칠보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
연화교
칠보교**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있는 이곳이 바로 안양문입니다. 안양문의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극락정토를 말합니다. 수도권의 안양(安養)시와 한자가 같기에 그곳의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몸과 마음이 편한 극락세계에 살고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

현재의 안양문은 1960년대에 중건한 건물로 고려시대 양식으로 건축되었는데, 고(故) 임천 선생께서 설계한 건물로서 강릉 객사 문과 도갑사 해탈문을 참고한 것입니다. 안양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양문 아래에 있는 돌계단을 보실까요?

저 계단이 바로 극락전으로 오르기 위해 있었던 국보 제22호인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 칠보교는 세속 사람들이 밟는 다리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사후세계)의 깨달은 사람만이 오르내리던 다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18계단이며, 아래 10단이 연화교로서 각 계단마다 연꽃잎을 새겨놓았다는 점이 특징이고, 높이는 230cm, 폭은 148cm입니다.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마노, 호박의 7가지 보석의 다리

(지금은 흔적이 없음)라는 데서 칠보교란 이름이 생겨났으며 나머지 8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406cm, 폭은 116cm입니다. 앞서 말한 대웅전영역의 청운교, 백운교보다 규모가 작을 뿐, 계단을 다리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성에서 시작하여 경사면을 45도 각도로 구성한 점과 다리아래가 무지개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점 등 구조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청운교, 백운교가 웅장한 멋을 보여주는데 비해, 연화교, 칠보교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내보이고 있어, 불국사와 조화된 멋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변형의 미(美)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계단이 많이 닳아 조각이 희미하고 훼손되어 지금은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연화무늬의 장식과 일곱가지 보석이 놓여져 있었던 다리를 상상하면서 안양문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극락전을 떠받치고 있는 석단 덕분인데요. 지금 바로 석단을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록 쌓기 놀이 해 보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는 돌들이 꼭 블록을 쌓아 놓은 듯 하죠? 극락전을 받치고 있는 이 석단은 자연석으로 쌓은 중간 중간에 인공석을 넣어 조화 있게 만들었으며, 경사진 곳에서는 인공석을 비스듬히 쌓아 상승감과 안정감을 준 것으로 아름다운 석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범부의 세계를, 위는 불국토를 나타낸답니다. 바닥의 경사와 맞추었기에 높이가 항상 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로 인해 보는 사람은 눈에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국사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오래된 그림, 오래된 각에 대한 향수는 이것이 문화유산이기 때문이기도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 보호 강조</p>	<p>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일거예요. 문화유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하고 푸근한 분위기, 마음의 적요함, 우리 선조의 지혜, 옛 조상의 흔적 등에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p> <p>‘자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 아름답다’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과 그러한 자연과 동화되어 훌륭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소중한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불이문을 지나 불국사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여러분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	--

해설용 참고자료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 문화재와 한식건축

I. 문화재의 이해

1. 문화재란?

(1)사전적 정의: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2)문화재보호법상의 정의: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族的·世界的遺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價値가 큰 것.

(3)문화재의 종류

1)유형문화재: 건축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등 형태가 있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소산

2)국보: 그 분야,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

3)보물: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
* 국보 제1호(송례문), 보물 제1호(흥인지문): 송례문(남대문)이 흥인지문(동대문)보다 1년 먼저 세운 정문으로 건축 기술적 면에서 비중이 높음
*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경우 희소성 때문에 모두 국보 지정

4)무형문화재: 연극, 무용, 기술 등 형태가 없는 것으로 역사,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종묘제례악, 처용무, 인간문화재 등)

5)기념물: 사적: 선사시대유적, 고분, 절터, 종묘, 서원, 향교 등
명승지: 이름난 건물이 있는 정원, 계곡, 폭포, 주요서식지 등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
민속자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6)기록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II. 불교문화재

1. 불교의 이해

(1)삼국의 불교 전래

- 1)고구려(서기 372년)는 “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351~394)의 왕 부견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아울러 전도승순도(順道)와 불상, 경문을 함께 파견해 불교를 전했다.”『삼국사기』⇒ 북조계대승불교(국가적차원의 전래)
- 2)백제(서기 384년) “침류왕원년(384)9월 인도 출신의 마라난타스님이 동진(東晉)에서 들어오자, 왕은 환영해 궁중에 모시고 예경했다” 『삼국사기권24백제본기』⇒남조계소승불교(개인차원의 전래)
- 3)신라(서기 527년) “눌지왕 때(417~458) 사문목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 모례(毛禮)의 집에 와서 불교를 전파했다”『삼국사기』“법흥왕 14년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삼국사기』

(2)불교전래의 의미

- 1)전제왕권강화 이데올로기설(設): 전서울대 이철준, 전한림대 이기백
- 2)“부처님의 권위를 빌려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 불교수용의 의미”
- 3)“불교의 전래는 절대적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형성의 관념 형태적 표현”이며, “삼국시대불교의 의의는 왕권과의 결합에 있었고, 불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귀족층의 독점물이며, 피지배층인 일반민중은 불교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관심이 있었다 해도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다”
- 4)일반 백성의 종교적 역할(設): 고려대 김정배 “왕권이나 국가라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전쟁이나 개인이라는 각도에서 삼국시대를 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삼국의 불교수용과 발전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만이 아닌, 일반백성을 위한 종교적 역할도 했다는 것”
- 5)불교의 전래는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문화의 중흥을 가져와 우리문화로 흡수되어 이를 통한 독특한 양식의 사찰, 불상, 석탑, 범종, 각종문화재를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불상과 보살의 차이점

- * 불상: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래 라고도 한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서 설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한 석가모니가 있고 인간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부처들도 있다. 이는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불상에는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여래가 있다.
- * 보살상: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존재이다. 보살상에는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 있다.

3. 불상과 보살상의 종류

(1)응신불(應身佛, 석가모니, 석가여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부처가 되신 분

- * 석가여래를 모신 법당으로는 대웅전,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등이 있음.

(2)법신불(法身佛,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등): 인간의 형태로 태어나지 않은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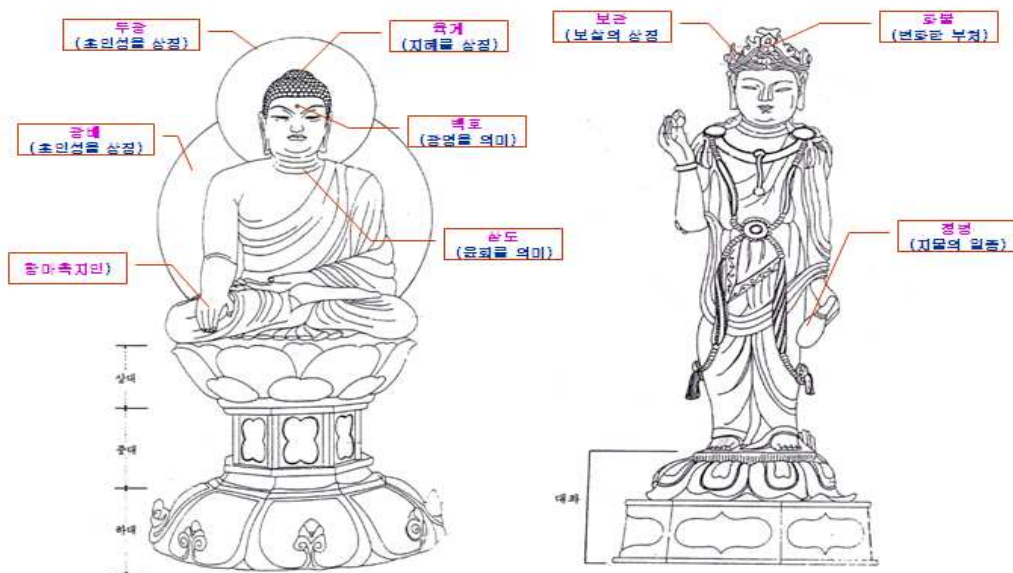
- * 비로자나불: 부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존칭. 비로나사, 노사나라고도 함. '화엄경'의 주존불로 진리를 상징. 대광명전, 대적광전에 모심.
- *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에 살며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등에 모심.
- * 약사여래: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온갖 아픔을 고치고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해주며 재난과 근심을 없애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모두 잘 실천하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처
- * 미륵불: 석가여래가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한 미래불로, 미륵불이 봉안된 불전을 용화전이라고 부름

(3) 보살(菩薩)

- * 관세음보살: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 기쁨을 주는 보살. 아미타여래의 좌협시 보살로서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으로 조성되기도 함. 원통전(圓通殿), 원통보전(圓通寶殿), 관음전(觀音殿), 관음보전(觀音寶殿)에 모심.

(3) 보살(菩薩)

- * 관세음보살: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 기쁨을 주는 보살. 아미타여래의 좌협시 보살로서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으로 조성되기도 함. 원통전(圓通殿), 원통보전(圓通寶殿), 관음전(觀音殿), 관음보전(觀音寶殿)에 모심.
- * 대세지보살: 가난, 고통에 좌절하여 쓰러지는 중생들에게 힘을 북돋워 마침내 정토세계에 당도하게 하는 보살
- * 지장보살: 석가모니 열반 후 56억 7천만년 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의뢰 받은 보살. 머리에 보관 대신에 민머리 또는 두건을 쓴 모습으로 지장전(地藏殿), 명부전(冥府殿) 등에 모심.
- * 일광보살(日光), 월광보살(月光): 약사여래의 양협시보살로서 일광보살은 해를 상징하는 적홍색을, 월광보살은 달을 상징하는 백홍색을 보관이나 손바닥에 나타내어 약사삼존으로 조성



(4) 명왕(明王)

부처의 명령을 받아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과 이교(異敎)의신들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

(5)천부(天部)

불교의 수미산 위천계에 사는 모든 신 인도의 토착신이 불교에 흡수된 것임.

- 1)사천왕: 수미산중턱에 살며 사방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신
- 2)인 왕: 사찰의 문, 입구를 지키는 한 쌍의 신. 금강역사, 집금강신이라고도 함.
- 3)범 천: 만물의근본의 신격화. 불교 이전 바라문교의 가장 존중되던 신
- 4)제석천: 인도의 고대 신으로 천둥, 비를 관장하는 신
- 5)팔부중: 석존에게 교화된 이교의 신들로 불법을 수호하는 8종류의 신

(6)나한(羅漢): 불교의 수행을 통해 온갖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

- 1)십대제자: 석가를 따르는 10명의 뛰어난 제자
- 2)유마거사: 인도 비야리국의 만아들로 대승불교의 이치를 터득

※불상의 종류별 특징 및 수인법

주 불	수 인	전 각	협시보살
석가모니불	시무와인 여원인 항마축지인 설법인	대웅전	(좌)문수보살 (우)보현보살 (좌)관세음보살 (우)미륵보살
		대웅보전	(좌)아미타불 (우)약사여래
아미타불	구품정인 설법인 미타정인 모관찰지인 내영인	극락보전 극락전 무량수전 아미타전 미타전	관음, 대세지 관음, 지장 또는 8대보살
비로자나불	지권인	대광명전 대광보전 대적광전 비로전 보광전	문수 보현보살
약사여래불	약기인	약사전	일광, 월광보살
미륵불	용화수꽃	용화전 미륵전	신광, 청광

	<p>아미타 구품인 아미타불이 중생의 신앙심이나 성품의 깊이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교화하여 구제한다는 뜻입니다.</p>
	<p>시무외인, 여원인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준다는 뜻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p>
	<p>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짓는 손갓춤으로 위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은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p>
	<p>선정인 참선할 때 짓는 손갓춤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p>
	<p>항마촉지인 석가모니불이 온갖 번뇌를 물리치고, 도를 깨닫는 순간에 짓던 손갓춤입니다.</p>
	<p>전법륜인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불교의 진리를 전도할 때의 손갓춤입니다.</p>

Ⅲ. 한식건축의 이해

1. 기둥

목조건물의 공간을 이루는 기본 뼈대로서, 주춧돌위에 세워져 보나 도리 따위를 받치는 수직 구조의 부재로 모양새나 쓰임새에 따라서 사모기둥, 원기둥, 민흘림기둥, 배흘림기둥, 도랑주, 활주, 누상주, 누하주등으로 구분

- (1) 배흘림기둥: 기둥높이의 3분의1지점이 가장 굵고 위나 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는 기둥(부석사무량수전, 해인사사천왕문)
- (2) 민흘림기둥: 기둥뿌리의 지름이 기둥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든 기둥(화암사 극락전)
- (3) 사모기둥: 기둥의 단면이 네모난 기둥으로 방주라고도 한다. 작은 건물이나 살림집에 주로 사용(청량사)
- (4) 도랑주: 자연목의 껍질만 벗기고 거칠게 다듬어 만든 기둥형태로 살림집이나 사찰에서 볼 수 있음(화엄사 구층암)
- (5) 누상, 누하주: 2층집이나 다락집과 같은 누각식 건물에서 위층에 세우는 기둥을 누상주, 아래층에 세우는 기둥을 누하주라 함.(화엄사보제루)
- (6) 활주: 추녀가 처지지 않게 추녀를 받치고 있는 가는 기둥으로 지붕의 네 모서리에 세워져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기능도 함.(통도사대웅전)

2. 지붕

눈비를 막고 태양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덮개 또는 구조

- (1) 맞배지붕: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어 책을 반쯤 펴놓은 ‘八’자 모양의 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만 있고 추녀마루는 없다.
- (2) 우진각지붕: 지붕모서리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용마루에서 합쳐지는 지붕으로 내림마루가 없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있다.
- (3)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맞배지붕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지붕으로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모두 갖춘 지붕이다.

(4)모임지붕: 지붕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지붕 중앙의 한 점에서 합쳐지는 지붕으로 평면모양에 따라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이라 한다.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만 있다.



3. 공포

포라고도 하며 목조건물에서 지붕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데 짜 맞추어 댄 나무 부재로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1)주심포(柱心包): 조선이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공포가 기둥 위에 있는 공포형식, 지붕은 맞배지붕이 많다.
- (2)다포(多包): 공포가 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놓이는 공포형식, 기둥위에 놓인 공포를 주심포, 기둥사이에 있는 공포를 주간포, 또는 간포라 함.
- (3)익공: 기둥위에 새 날개처럼 뻗어 나온 첨차식(翬遮式)장식으로 된 전통건축
 * 양식으로 익공이 하나인 경우를 초익공, 두 개인 경우를 이익공이라 한다.



(4) 단청

목조건물의 각 부재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 단청에 들어가는 각종 무늬에는 액을 막아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 가칠단청: 무늬나 선을 그리지 않고 단색으로 칠한 단청으로 굿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의 바탕이 된다.
- * 금단청: 도리, 보, 서까래 따위의 전체에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는 단청으로 양쪽 끝에는 각종 문양을, 중간에는 비단 무늬나 사람, 꽃, 새 등을 그려 넣는다.
- * 굿기단청: 단색으로 칠한 가칠단청위에 긴 선만을 그려 넣은 단청으로 선의 색에 따라 먹굿기와 색 굿기로 나눈다.
- * 모로단청: 도리, 보, 서까래 따위에서 양쪽 끝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넣고, 가운데부분에는 선을 그리는 단청으로, 모루단청이라고도 한다.



백양사 쌍계루
가칠단청



부석사 일주문
금단청



송광사 대웅전
단청



수덕사 금강문
단청



병머리초



연화머리초



가칠단청



금단청



굿기단청



모로단청

IV. 사찰의 유래와 가람 배치, 상징체계

1. 사찰의 어원 및 기원

(1) 사찰의 정의

‘절’이란? 부처를 조각한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수행을 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절은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수행하는 승려’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이를 佛, 法, 僧 이라 하여 삼보(三寶)라고 하며, 이삼보가 모두 갖추어진 곳을 절이라 한다.

(2) 사찰의 기원

석가모니가 처음 불법을 전하던 기원전 6세기 인도 승려들은 무소유(無所有)를 이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으며, 독신으로 탁발하며 수행했다.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처럼 떠돌이 생활로 결식하며, 숲 속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인도의 기후는 3개월의 열기, 5개월의 우기, 4개월의 냉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후 특성상 5개월의 우기 기간에는 숲 속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불가능했다. 석가모니는 인도 지역의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기(雨期)기간에는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규율을 만들게 되었다. 비를 피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제력이 있는 신도들의 시주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왕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부처와 승려가 모여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기증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찰이 발생하게 된 계기이다. 마가다국의 가란타 장자가 대나무 숲이 있는 땅을 바치고, 왕과 신하들이 그 죽림원에 수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과 강당을 지어 절의 기원이 되었다.

(3) 사찰의 어원

1) 정사(精舍)

인도에서 생겨난 승려들의 수행처를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람마samgharama’ 상가람마는 죽림정사나 기원정사에서 알 수 있듯 ‘정신을 수행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번역되었다.

2) 가람(伽藍)

‘samgharama’를 중국인들이 음역하여 ‘승가람마(僧伽藍摩)’라 표현하다가, 다시 줄여서 가람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

3)사(寺)

불교의 중국 전파 시 관청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한나라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머물게 하던 관청을 ‘홍로시(鴻廬侍)’라 함. 인도에서 온 승려들도 이곳에 머물렀고, 이후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머무는 곳을 ‘시’라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관청과 구별하기 위해 ‘사’라 하게 되었다. 일정한 법도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라는 뜻이 합하여 졌음.

4)암(庵)

산속의 작은 예배공간을 뜻함, 큰절에 딸린 작은 절, 또는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며 도를 닦는 집(암자)을 뜻함

5)총림(叢林)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승려와 세속의 사람이 한데 모이는 곳을 의미 따라서 총림이라 하면, 강원·율원·선원 등의 구성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큰절을 의미한다.

6)강원(講院): 경전 교육기관

7)율원(律院): 계율 교육기관

8)선원(禪院): 참선수행 전문도량

원래 의미는 규모가 큰 사찰 내나 선방을 가지고 있는 사찰 내에 소속된 전각으로서, 스님들이 참선을 위주로 수행을 하는 건물. 광의의 의미로는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주로 하는 참선 전문도량을 뜻함.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 포교당이나, 지방 중소규모의 사찰 중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9)선방(禪房)

선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좌선수행을 하는 방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 근래에는 참선수행을 하는 모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10)절

민간속설에 의하면 절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함

* ‘모래의 집’에서 어원이 되었다는 설

【‘모래의 집’ 어원설】

신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질 때, 고구려의 아도 스님이 신라에 포교하려했으나, 뿌리 깊은 신라의 민간신앙 때문에 그 뜻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처음 접하는 불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심지어

아도스님을 해하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례’ 라는 사람이 불교를 아주 좋아하여 지금의 선산 도리사 근처 자신의 집에 아도스님을 숨겨 주게 되었고, 아도스님은 이렇게 모례의 배려 속에 그 집에 머물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례의 집이 우리말로 바꾸면 ‘털례의 집’ 이 되고, 그것을 줄여서 ‘털집’ 으로 부르다가 그 털이 ‘덜’ 로 바뀌고, 덜이 다시구개음화 되어 오늘날 ‘절’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2.가람배치

(1)가람 배치

- * 인도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안정과 번영을 이룸
- * 탑이 대형화 되고, 장식이 화려해지면서 탑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이 유행·지속
- * 기원전 2세기경부터는 석굴사원이 유행
- * 석굴사원의출현은 불교의식과 기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양식으로서 내부공간이 필요해졌음을 암시
- * 사실적인불상의 출현은 불상을 모실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짐을 뜻함 이는 신앙의 대상은 변화가 없으나, 사리와 탑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밀려나게 됨에 따라 가람형성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을 의미

1) 중세인도(5~12세기)

- * 힌두교의 번성으로 인한 불교의 쇠퇴
- * 사찰 자체의 권위, 형식 등의 보호가 필요해짐
- * 가람도 넓은 대지 위에 높은 담이나 회랑으로 둘러싸고, 중앙의 본당을 중심으로 그 전후좌우에 여러 건물들을 배치

(2)배치형식 분류

- *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사리를 모신 탑과 불상을 모신 당우(큰집과 작은 집) 이다.
- * 가람의 구성에서도 탑과 당의 관계에 따라 1탑 1금당식, 1탑 3금당식, 2탑 1금당식, 무탑식 등으로 나뉜다.

(3)한국사찰의 형식 분류

건물이 입지하는 형식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으로 구분됨
평지형 사찰은 불교 초기 형태로 도성과 가까운 평지에 두었으며, 왕실의 원당이나 국찰로 많이 지어졌고, 도성 안에 위치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산지형은 불교 정착 후 수행을 목적으로 입지

하게 됨(초기에는 석굴을 이용하다가, 점차산지에 터를 두고 사찰을
조영하게 되면서 일반화 되었다)

* 한국의 사찰은 평지보다는 산에 위치하는 산지형 사찰이 주류
(불교사상의 변화, 민족신앙의 영향, 풍수지리의 영향)

* 민족 고유사상

우리 민족 고유의 산악숭배신앙 영향

산에는 반드시 신령한 산신이 있다고 믿었던 원시신앙에서 시작
불교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명산의 이름이나 봉우리의 이름으로 명명된
산을 불교의 성지로 인식하는 사상이 뿌리내리게 됨

* 불교사상 변화

선종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반발
이 반발을 피해 선종 세력이 지방의 한적한 산 속을 중심으로 발전

* 풍수지리영향

신라 말 풍수지리(산천비보설)의 유행

신라말 도선국사가 주장한 산천비보설에 근거하여, 기운이 쇠한 곳을
골라 절을 세우기 시작함

(고려대조 훈요십조: 절을 세울 때는 산천의 順逆을 고려하여 세워라)

이 때부터 절은 풍수지리적 명당에 위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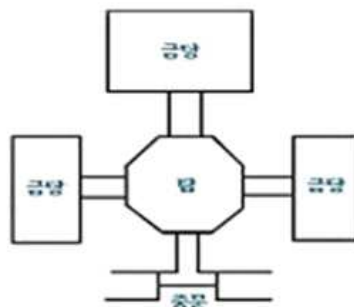
* 산천비보설(山川裨補設)

나라안에 있는 산천의 쇠한 기운을 補益하여 국가의 基業을 든든
하게 하는 것 지형이나 지세는 국가나 개인의 길흉과 관계를 가지며,
땅에도 쇠약함과 왕성함, 순조로움과 어긋남이 있다는 것

* 시대별 가람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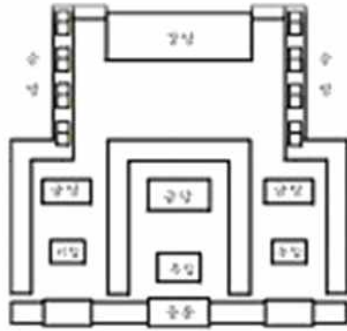
○ 고구려 <사진~ 청암리 사진 도면>

평양의 청암리 - 1탑 3금당식 가람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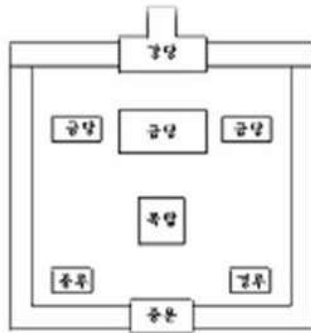
○ 백제 <사진~익산 미륵사지, 복원상상도>

익산 미륵사지의 조감도- 1탑 1금당식 가람배치



○ 신라 <사진~ 황룡사지, 복원도>

황룡사지 - 1탑 1금당 및 1탑 3금당



(4) 사찰의 전각구성

1) 일주문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문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해서 一柱라는 이름이 유래 되었다. 일주문의 일주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나, 큰 편액을 걸어 사찰의 격을 높이기도 한다.(범어사 일주문은 '조계문' 편액 설치)

2) 금강문

사찰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으로 금강문이 있는 사찰에서 주로 대문 역할을 한다. (없는 사찰의 경우에는 사천왕문이 대문역할) 불법을 휘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무리를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함, 들어가면서 우편을 나라연금 강이라 하는데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 하고, 좌편을 밀적 금강이라 하는데 야차신의 우두머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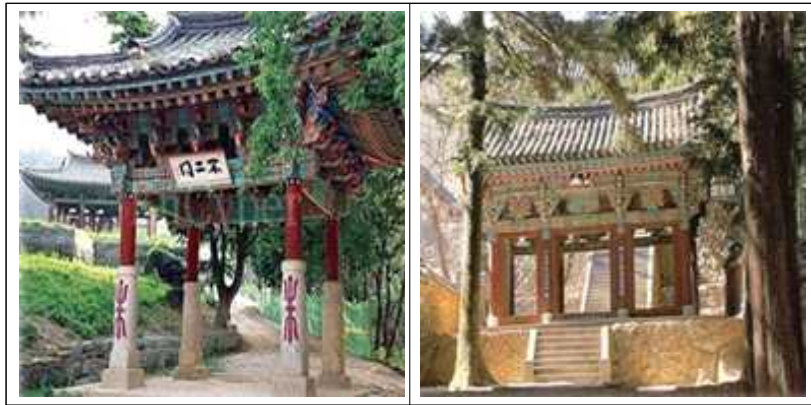
3) 사천왕문

사찰의 삼문(三門) 가운데 두 번째 문으로 네 방위를 수호하는 지국천(동방, 갈), 증장천(남방, 용과 여의주), 광목천(서방, 비파), 다문천(북방, 탑)을 봉안한다. 사천왕은 사왕천(四王天)의 주인으로 제석천왕을 섬기며, 불법수호를 염원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수호한다.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이유는, 타고난 성질이 횡포무상하고,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무리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교화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4) 불이문

대웅전 등 중심이 되는 법전 앞에 세우는 문(해탈문)으로 불이(不二)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로, 생사(生死)가 둘이 아니며, 유무(有無) 또한 서로 다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라는 절대평등의 경지를 나타냄 일체에 두루 평등한 진리가 불이문을 통해 재조명 되므로, 오직 이 문을 통해 불교의 진리가 전개, 따라서 문 안과 밖의 세계가 완전히 별개임을 나타낸다.



5) 대웅전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법당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한 형태가 기본이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 이라 할 때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기도 한다.

- * 삼세불은, 석가모니불(현재), 미륵보살(미래), 갈라보살(과거)
- * 삼신불은, 비로자나불(법신),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보신), 석가모니불(화신)
- * 선종의 삼신불은, 비로자나불(법신), 노사나불(보신), 석가모니불(화신)



6) 비로전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당우(화엄전, 비로전, 대적광전)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비로자나불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였음, 경우에 따라서는 삼신불 좌, 우에 아미타불(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약사여래(일광과 월광보살)를 봉안하여 약사전과 극락전을 함께 수용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불상들을 한 곳에 모신 격이다.



7) 극락전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모신 당우로 대웅전 다음으로 많은 사찰의 당우로, 불교도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사한 법당이다. 우리나라에 극락정토 신앙이 강했던 만큼 대웅전과 버금가는 화려한 법당 내부를 지니고 있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 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다.



8) 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불당(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전)으로 약사여래상은 수인 위에 약함을 들고 있어 다른 불상들과 구분이 명확하다. 현세이익과 치병을 위한 신앙으로 고대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입상의 경우, 시대에 따라 7세기에는 약함을 좌수에, 8세기부터는 우수에 들고 있는 형태로 구분이 된다.



9) 관음전

대자대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모신 당우(원통전)로 관음보살은 모든 환란을 구제하는 보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서원이 철두철미하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에 있고, 불가사의한 인연과 신력으로 중생을 돕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관음전이 많은 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핀다고 한다.



10)지장전

구원의 이상을 상징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으로 시왕전, 명부전이라고도 하며, 조상의 천도를 위한 근본도량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지장신앙과 명부시왕 신앙이 결합되어 불교적으로 전개되다가, 명부심판관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명부전’의 독립된 이름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11)미륵전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신 법당(용화전, 장륙전)으로 미륵전을 본전으로 하는 사찰은 대개 법상종 계통의 사찰이다.(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법상종과 화엄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음)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도솔천상생 신앙과, 말세적인 세상을 구제하러 미륵이 하생하기를 바라는 미륵 하생 신앙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12) 영산전

석가모니와 팔상탱화를 모신 법당(팔상전)으로 영산은 영산회상의 준말로, 석가모니가 설법했던 영산불국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로 모신다. 후불탱화로는 영산회도를 모시고, 그 주위에는 팔상도를 봉안하는데, 이 때문에 팔상전이라고도 한다.



13) 삼성각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을 한 곳에 모아 총칭함. 외부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이 아닌 각이라 칭한다. 수호신인 호랑이와 함께 모시고 있는 산신각, 수명장수신인 칠성을 봉안하고 있는 칠성각, 홀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하는 나반존자를 모시는 독성각이 건물들은 우리의 고유 신앙 대상을 불교화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4) 사찰장식과 그 상징세계

* 다리: 개울을 건넌다는 것은 피안의 세계에 다다름을 상징

다리는 절에 오는 것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와,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는 자하문(자하는 도교에서 신선이 거쳐하는 곳을 의미)을 통하여 선계, 부처가 있는 세계로 향한다는 의미 연화교와 칠보교는 극락세계로 진입하여 다시 태어남을 의미



* 연꽃: 청정한 불국토(佛國土)의 꽃

연꽃은 높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미묘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연꽃의 생태적 속성이 불교의 이상과 부합되어 청정과 고결, 미묘의 상징형으로 쓰이고 있다. 『화엄경 탐현기』에 보면 연꽃은 향, 결, 청, 정의 네 가지 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 용

불국정토로 인도하는 사찰의 수호신

법당 전면 기둥과 처마 밑을 비롯 법당 안의 단집, 천장, 기둥, 벽, 그리고 계단 소맷돌 등에 주로 장식

법당 어간(전면 중앙 칸)의 양쪽 기둥머리에 조각해놓은 용두의 경우, 용미와 함께 세속에서 극락을 향하는 반야용선을 의미
범종의 용뉴는 불법을 전파하는 의미를, 다리의 용은 부처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부터 수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 귀면

사악한 무리를 경계하는 벽사의 화신(사찰을 수호하는 역할)
인도 고대의 신인 시바의성소와 불교사원에서 볼 수 있는 장식용 벽사의 탈인 키르티무카(영광의 얼굴)에서 유래. 시바신의 무서운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사악한 자를 물리치고, 참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당초나 연꽃을 물고 있어 일반적인 용두와는 구분이 되고, 낫(얼굴)휘(몇 가지의 색깔 띠로 색채)'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비천상

부처의 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선녀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인도신화의괴물이다.(건달바와 긴나라가 원형) 건달바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香)만을 구하여 몸을 보호하고,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며, 속악을 연주한다.(긴나라는 법악을 연주하는 천신) 대부분의 비천상은 주악비천상, 성덕대왕신종은 공양비천상



* 卍

길상과 만덕의 충만함을 표현

동서남북을 상징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옮겨가는 태양의 궤적에 따라 공간이 분할된다는 의미(십자의 형태(城)는 소우주를 의미, 석가모니가 출가 전에 사문유관한 행위는 지구상에 창조된 소우주를 편람 했다는 의미)

가로선은 삼세(三世), 세로선은 시방(十方), 일심의 덕이 삼세시방을 관통해 중흥무진한 것을 나타냄

【四門遊觀】

석가모니가 출가 전 동문 밖에서 늙은이를, 남문 밖에서 병든 이를, 서문 밖에서 죽은 자를, 북문 밖에서 승려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석가의 출가를 재촉하기 위해 제천이 변화한 것이라 해석

토끼와 자라- 불국정토로 향하는 불전설화의 주인공들

토끼는 불전설화를 통하여 희생과 헌신의 상징형으로 묘사(제석천과 원숭이(도토리), 여우(잉어), 토끼) 별주부전을 통해 자라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불국정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원숭이(석가), 악어(변절한 석가의 제자 제바달다), 악어의 아내(원숭이의 간을 먹고 싶어 하는 용왕))



* 물고기

원천적 자유와 수행의 상징

물고기가 연못에서 헤엄치며 노는 모습은 어떠한 제약이나 정형화된 틀에 구속되지 않은 경지를 나타낸다.(梵의 경지)

물고기를 형상화한 풍경, 목어, 목탁은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듯이 수행자도 항상 부지런하게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

전통적인 자물쇠의 형상은 물고기 모양(자물쇠 자체가 도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밤낮으로 눈을 뜨고 지킨다는 의미)



* 태극

절대 평등과 원융(圓融)의 조화

사찰장식에서 태극은 형식상 이태극과 삼태극의 양식이 혼재

이태극은 음과 양이 개별성과 의존성을 지니면서 상호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태극은 천, 지, 인을 의미하고 홍, 청, 황색으로 표현

성리학에서의 태극은 사멸이 없는 구원의 상으로 이해, 불교에서 불성이란 심오하고 참된 법으로, 불생불멸하는 만물의 실체를 의미하므로 태극과 불성은 모두 우주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불단

법당 정면에 부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단(수미단)
 부처님의 상을 직접 모시는 자리인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식 문양들로 가득
 신령계의 환상적 동물들과 현실계의 길상 상징물, 그리고 불교적인 상징형
 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불단은 불교장식문양의 보고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불단의 경우, 쌍을 이루고 있는 물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상의
 새나 동물들이다.



* 단청

청, 적, 황, 백, 흑의 색을 기본으로 사용(오행을 상징)
 불전 건물에 단청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전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머리초와 머리초 사이의
 공백과 벽체, 공포벽, 편액에 회화적인 수법으로 그려 넣은 장식화를
 특별히 별지화라 한다. 별지화의 주요 내용은 불, 보살처럼 불교 신앙
 체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 불법을 외호하는 동물을 그린 것, 상서로운
 동·식물들, 불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 단집

불전 속에 세워진 또 하나의 궁전

불전 내부에 들어가면 불좌 위에 작은 집의 모형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단집 이라 부른다. ('달'이란 '따로'라는 옛 말이니 '집안에 따로 지어 놓은 또 하나의 '집'이라는 뜻이다)이러한 단집은 불국정토의 궁전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징물들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연출하는 운궁형, 독립된 집 모양을 하고 있는 보궁형, 포작의 결구를 통해 천장을 파고 들어간 공간의 사면에 설치하는 보개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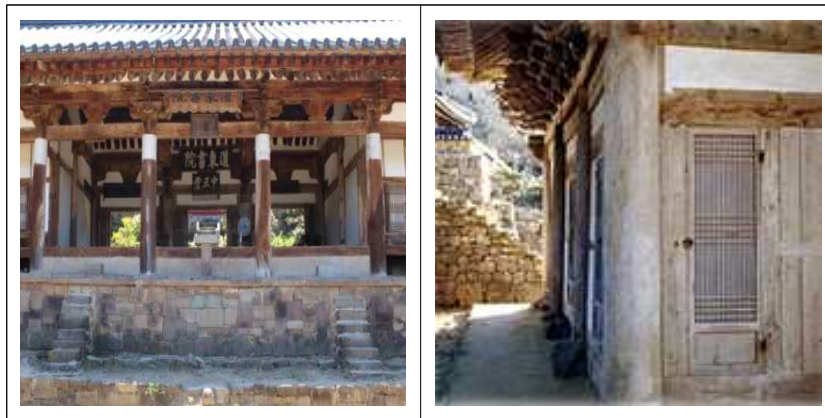
* 탑의 층수

우리나라의 불탑은 기수(홀수)로 구성.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 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3은 완전성을 갖춘 수, 천·지·인 삼재를 의미하며, 길상의 수로도 인식(三陽開泰 (삼양은 봄이 시작되는 시점, 개태는 만사형통함을 의미) 5는 천위(天位)의 수로 오행에 응하는 수, 7은 천·지·인과 사시(사철)를 의미하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수, 9는 양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 기단과 기둥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보다 높이 쌓은 것으로, 궁궐이나 사찰, 관청에서는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단을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건물의 격을 높임)
 보통 기둥의 종류에는 원기둥과 각기둥이 있는데, 대개 원기둥의 격이 더 높다고 하여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건물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천원지방-원형을 남성애, 방형을 여성애 비유)
 원주는 공간을 통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방주는 공간을 분화하는 성격이 강함



** 석탑의 시대적 변화

I. 한국 석탑의 시원(목탑 → 석탑)



1. 목탑의 요소: 상층으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체감비 /
 기단 구축 / 우주와 탕주의 표현 / 낙수면의 경사 및 반전 /
 옥개받침, 낙수홈

- (1)고구려 목탑-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의 팔각목탑지
 - (2)백제 목탑- 미륵사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제석사지 목탑지
 - (3)신라 목탑- 황룡사구층목탑, 흥륜사, 천주사, 영묘사 목탑
- 신라 석탑의 시원(始原)기,7세기중반



의성 탈리 오층석탑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에 비해 목조건축의 요소를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탑 구성에 많은 양의 석재가 사용됨 / 지대석 윗면 우주와 탕주가 놓일 위치에 홈 을 파서 마치 초석과 같은면은 보이고 있음. 우주와 탕주에 엔타스시 수법 / 1층 몸돌에 놓인 별석의 우주에 엔타시스가 뚜렷, 윗면엔 주두(柱頭)가 놓여 있고 / 남쪽 면에는 감실 / 안정된 체감비를 통해 목조건축 재현에 충실. 옥개석 위아래면에 표현된 층단형 받침에서는 전탑 수법 보임.

* 목탑을 꿈꾼 석탑- 석탑에 남긴 흔적



* 신라 석탑의 전형(典型), 통일직후~8세기



감은사지3층석탑 13.4m



고선사지3층석탑 7.3m

692년 효소왕이 부왕인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

706년(성덕왕 5년) 성덕왕이 형인 효소왕과 부왕인 신문왕을 기리기 위해 사리, 불상 등을 다시 넣었으며,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세를 기원함.



구황리 삼층석탑(황복사지삼층석탑)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

* 8세기 제작(추정)

감은사지삼층석탑, 고선사지삼층석탑과 비교되는 9m 높이의 짜임새 있는 석탑.

3층 옥개석에서사리함 나옴. 금동불 입상 1구, 금동삼층탑 1기, 9층탑 3기

* 나원백탑(白塔): 신라 8괴(八怪)의 하나.(남산부석, 문천도사, 계림황엽,

금장낙안, 백물송순, 압지부평, 불국영지, 나원백탑, 선도효쇄, 금오만하)

* 남산부석: 남산 국사골 바위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 문천도사(倒沙): 문천의 모래는 물위를 떠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 계림황엽: 계림숲에서는 가을 아닌 여름에도 잎사귀가 누래진다.

(최치원이 신라 국운이 이미 쇠퇴하였음을 예언했다는 이야기)

* 금장낙안(金丈落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형산강가, 임금이 놀던 금장대에
날아 온 기러기는 반드시 쉬어간다.

- * 백률송순: 소나무는 순(筍)이 생기지 않는데 백률사 소나무는 가지를 친 뒤 솔순이 생긴 다고 함.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이 있으며 솔순은 불교 소생을 의미.
- * 압지부평: 안압지에 있는 마름이라는 여러해살이 풀은 뿌리를땅에 내리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다.
- * 불국영지: 영지에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길 기다린 아사녀와 아사달의 전설이 얽혀 있다.
- * 나원백탑: 나원리 오층석탑은 통일신라 초기의 탑인데 지금까지도 순백색의 빛깔을 간직하고 있다.
- * 선도효색: 선도산의 새벽경치가 아름답다.
- * 금오만하: 금오산 곧, 남산의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 * 신라 석탑의 전형(典型), 8세기중엽



석가여래상주설법탑(석가탑)

751년 건립(추정)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층 몸돌

1966년 복원

무영탑(無影塔)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을 구현 법화경(法華經) 견보탑품(見寶塔品)조 >> ‘다보여래’는 과거불의 하나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움. 이후 현세불인 석가 모니에 의해 이 경전이 설파될 때 다보탑의 형상으로 나타나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 >> 석가여래 상주설법 다보여래 상주증명(釋迦如來常住說法 多寶如來 常住證明)



석가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일괄 및 석가탑 단면도(2층 몸돌에서 나온 사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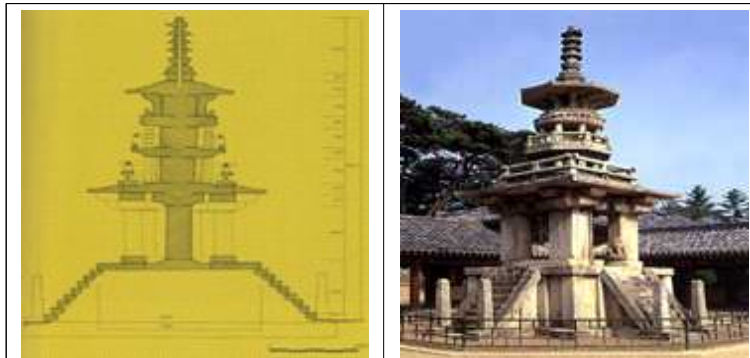
* 유일무이한 존재로 탄생한 다보탑

751년 건립(추정)

높이 10.4m(석가탑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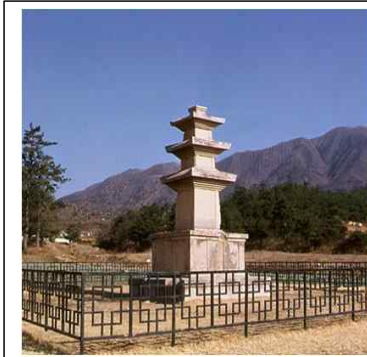
1925년 해체, 보수

유일하고 독특한 형태



단면도 및 다보여래상주증명탑(다보탑)

법화경(法華經) 견보탑품(見寶塔品)조 >> ‘다보여래’는 과거불의 하나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움. 이후 현세불인 석가모니에 의해 이 경전이 설파 될 때 다보탑의 형상으로 나타나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한다는내용 >> 석가 여래상주설법 다보여래 상주증명(釋迦如來 常住說法 多寶如來 常住證明)



마동삼층석탑



천군동동서삼층석탑

8세기 석탑에 수호신을 두다
 월성장항리서오층석탑
 1층 몸돌에 한 쌍의 인왕상 표현
 정교한 조각술과 아름다운 비례의 8세기 걸작



월성장항리서오층석탑



원원사지삼층석탑

원원사지삼층석탑
 처음 십이지신상이 탑에 조각됨.
 통일신라의 뛰어난 조각술
 8세기중엽 건립
 9세기 변화의 시기- 줄이고 간략하게, 지방으로 크기 줄었음.
 옥개받침 • 탱주 • 옥신괴임 감소



남사리사지 삼층석탑



효현리삼층석탑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 특이형 석탑, 8세기 이후



불국사다보탑



화엄사사사자석탑



정혜사지십삼층석탑

* 모전석탑 양식 반영한 이형탑



* 고려시대 석탑



남계원칠층석탑
- 신라탑영향(개성)



무량사오층석탑
- 백제, 신라탑영향(부여)



개심사지오층석탑
- 1010년건립(예천)

* 고려시대, 특수형 석탑

	
<p>월정사팔각구층석탑 - 고려전기(다층다각)</p>	<p>경천사십층석탑 - 고려후기(대리석)</p>

* 조선시대 석탑

	
<p>낙산사칠층석탑 - 고려양식계승한 조선전기석탑</p>	<p>원각사지십층석탑 - 조선시대 대표탑(형태특이, 장식풍부, 대리석)</p>

* 불전사물

목어는 물고기처럼 잠자지 않고 도를 닦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소리는 물속의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사찰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것이 범종이며 그 소리는 지옥의 중생을 향하여 불음을 전파하여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판은 멍게구름 모양의 얇은 청동 또는 철제 평판으로 만든 불구입니다. 두드리면 맑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허공을 헤매는 고독한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류계(鳥類界)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며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당간지주



이곳 마당에 서 있는 돌기둥 두 쌍을 ‘당간지주’라 부릅니다. 전국 여러곳에 이런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데 경주에만 해도 여러 틀의 당간지주가 중요한 절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신성한 절터에 왜 이런 돌기둥을 세워 두었을까요?

확성기가 없던 시절, 높은 장대를 세워 깃발이나 대중들이 알아보는 그림을 내다 걸면 ‘오늘 무슨 일이 절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럿에게 알리는데 장대는 유효하게 사용되어 왔죠. 그런 장대를 든든하게 버텨주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당간을 불교 종파를 나타내는 기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로서 절의 문전에 세워집니다. 불국사에는 연화교와 칠보교의 앞뜰에 당간지주 2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당간을 받치는 돌로 만든 지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 불국사 석조



불국사 석조는 신라인의 뛰어난 조형의식과 예술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 9월 11에 보물 제15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수조의 형상이 원형인 백제시대의 석조와 달리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형상인 직사각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면에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이 특이합니다. 특히 내부 바닥면의 화려한 연화문 조각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조형의식과 높은 예술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석조에 물을 채우면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석조의 바닥 중앙에는 지름 약 3.5cm의 출수구가 있습니다. 석조의 규격은 길이 262cm, 폭 131cm, 높이 52cm이며 아래로 내려 갈수록 점차 좁아져 입면 상으로는 사다리꼴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석조에 비해 내·외면에 조식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도서 및 자료>

- 불국사- 대원사
- 우리아이 첫 경주여행- 박광일, 전향이. 삼성당
- 한국의 사찰1 불국사- 한국불교연구원 저. 일지사
- 전통사찰총서15- 사찰문화연구원
- 문화유산 해설가 양성 교육교재- 경상북도 관광진흥과
- 불국사와 석굴암- 황수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토함산에 이룬 이상세계 불국사- 신영훈, 김대벽. 조선일보사
- 천년고도 경주- 경주시 지음
- 천년, 서라벌을 거닌다- 강석경 지음, 경주시
- 불국사와 석굴암- 문명대 지음, 스쿨김영사
-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강민기 지음
-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허균 지음
- <http://cafe.naver.com/sam8553/1395>

